

# Doing Peace

평화, 나날이 한 걸음씩



## 평화, 우리 모두의 존엄을 실현하는 길

평화는 언제나 인류의 염원이었습니다. 이 꿈은 아직 달성된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세계를 돌아봐도 아직 평화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고통받는 모습을 매일 목격한 우리는 이 상황이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러리즘과 전쟁, 인종주의와 민족주의, 권위주의적 독재,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 환경 위기 등으로 평화는 끊임없이 위협받고, 많은 사람은 이 힘든 고통이 부디 끝나기를 지금 이 순간에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우리를 공포와 절망에 빠뜨리고, 무기력하게 하며,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증오심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보면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모든 문제들도 모두 인간의 활동으로 생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린 것은 아닐까요?

평화란 무엇일까요? 과연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우리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 또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평화는 존재의 평등한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불의와 폭력이 만연한 세상에서 조그마한 변화를 나날이 한 걸음씩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peace)는 실천하는 것(doing)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서점, 인디고 서원과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오늘날 평화가 위협받는 시대에 평화적 감수성을 키우고 실천적 변화와 희망을 열어가고자 평화 워크북 『Doing Peace - 평화, 나날이 한 걸음씩』을 만들었습니다.

이 워크북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화의 실천을 세분화하여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그리고 '세계'로 연결해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처한 특수한 상황인 '통일'에 대한 이야기도 담았습니다. 워크북의 각 부에서는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와, 그 가치를 실제 자기 삶으로 살아냈던 인물을 소개했고, 평화 문제와 관련해서 토론할 수 있는 질문과 활동을 담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채로운 자료를 소개하고자 함께 읽으면 좋은 책과 영화도 포함하고 있으며, 평화에 관한 이슈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국내외 사이트와 일상에서 평화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실천 리스트까지 함께 실었습니다.

평화 워크북 『Doing Peace - 평화, 나날이 한 걸음씩』은 중·고등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와 다양한 교육 기관에서 평화교육을 진행할 때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의 문제는 특정한 교육 대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평화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읽고 실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함께 연대하고 협력한다면 분명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부디 여러분의 평화로운 삶과 정의로운 세계를 향한 발걸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날이 한 걸음씩, 평화를 향해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 1부 평화와 나 – 내 삶의 주인, 영혼의 선장

가치   아름다움의 씨앗, 나	8
인물   브라이언 스티븐슨,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정의로운 정체성	20
토론   내 삶이 의미 있는 이유	32
활동   My Favorite I...	42

함께 읽으면 좋은 책 / 함께 보면 좋은 영화 / 참고하면 좋은 사이트 / 평화를 위한 일상의 실천

## 2부 평화와 우리 – 공존, 공감, 공생의 삶

가치   살아 있는 민주주의를 위한 희망의 목소리	54
인물   그레타 툰베리, 미래를 위한 기후정의 행동	68
토론   우리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한 질문	82
활동   희망의 소용돌이 만들기	90

함께 읽으면 좋은 책 / 함께 보면 좋은 영화 / 참고하면 좋은 사이트 / 평화를 위한 일상의 실천

## 3부 평화와 세계 – 세계 시민이 만드는 새로운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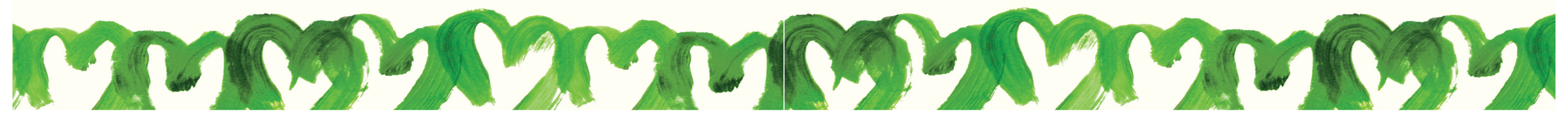
가치   정의와 희망의 동반자들	102
인물   마수드 하사니, 세상을 바꾸는 정의로운 아이디어	112
토론   더불어 실천하는 아름다운 세상	126
활동   세계평화 포스터 만들기	136

함께 읽으면 좋은 책 / 함께 보면 좋은 영화 / 참고하면 좋은 사이트 / 평화를 위한 일상의 실천

## 4부 평화와 통일 – 가장 아름다운 나라

가치   상처의 연대를 넘어 연민 어린 사랑으로	148
인물   다니엘 바렌보임과 에드워드 사이드의 평화 프로젝트	158
토론   정의와 희망으로 가능한 통일	168
활동   평화를 위한 법안 만들기	180

함께 읽으면 좋은 책 / 함께 보면 좋은 영화 / 참고하면 좋은 사이트 / 평화를 위한 일상의 실천



1부 평화와 나

## 내 삶의 주인, 영혼의 선장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나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떤 때 기쁨과 보람을 느끼나요? 또,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고, 어떤 일을 해내고 싶은지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나요?

자기 안의 존엄을 지키고 싶은 의지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존엄하게 산다는 것은 선하고 정의롭게, 자신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것을 지켜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첫 번째 걸음은 바로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내 삶에서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지 고민할 때 우리는 지금 해야 할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가치

아름다움의 씨앗, 나

인물

브라이언 스티븐슨,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정의로운 정체성

탐론

내 삶이 의미 있는 이유

활동

My Favorite I...

함께 읽으면 좋은 책 / 함께 보면 좋은 영화 / 참고하면 좋은 사이트 / 평화를 위한 일상의 실천

가치

## 아름다움의 씨앗, 나

“한밤중에, 어느 상점 바닥에 앉아 등잔 불빛을 받으며 아이는 몸을 수그린 채 책을 읽고 글을 씁니다. 주변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불편함, 소음, 혼잡함, 그의 곁에서 벌어지는 거칠고 폭력적인 삶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숲 한가운데, 그 상점 바닥에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등잔 불빛 아래서 홀로 글을 읽는 아이는 우연히 그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중략) 우리가 함께 사는 이 지구상에, 성(性)과 언어와 종교가 무엇이든, 어떠한 아이도 향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굶주림과 무지에 내던져지지 않기를. 그 아이는 자기 안에 인류의 미래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썼듯, 그 아이에게 절대적인 힘을 주기를.”

- 르 클레지오, 2008년 노벨문학상 수상 연설 중에서

프랑스 문학가 르 클레지오는 2008년 노벨문학상 수상 연설에서 그 어떠한 아이도 인류의 향연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주변이 아무리 혼잡하고 불편하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아주 작은 불빛 아래서 글을 읽고 있는 그 보잘것없는 아이에게 온 인류의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험벗고 굶주리고 연약한 아이마저도 소외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인류가 이루어낼 수 있는 가장 존귀한 미래입니다. 화려한 불빛과 풍족한 먹거리, 떠들썩한 음악과 넓은 집을 가지는 것이 빛나는 문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넘치는 것들을 모두가 이롭게 쓸 수 있도록 나누는 것이 바로 인류의 위대함입니다.

우리에게는 르 클레지오가 평생 자기 글쓰기의 지표로 삼은 이미지처럼, 그 아이를



청소년에게는 영혼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떠올릴 고요하지만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힘을 가지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애썼던 사람들을 예시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전염병과의 사투에서 사람들을 살려낸 것은 열 일 제쳐두고 가장 위험한 곳으로 뛰어간 사람들이며, 더 간단하고 빠르고 안전하게 검진할 수 있는 키트와 드라이브 스루와 같은 진단 방법을 개발해낸 사람들이고, 마스크 앱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한 사람들이며, 자신에게 배당된 공적 마스크를 모아 더 힘든 사람을 위해 써 달라고 경찰서나 병원에 기부한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자신의 능력으로 발휘할 줄 아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인이자 인간다운 인간입니다. 자신이 배운 것을 정말 필요한 곳에 쓰고자 하는 마음이 소중한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 경제적 불평등, 난민 문제, 생물 다양성 감소 등 앞으로 점점 더 크게 다가올 위기가 많아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나요? 인간다운 삶에 대한 고민, 함께 사는 세상에 대한 이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의지는 생존과 직결된 것임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꿈꿔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 말이지요. 그 꿈은 우리를 끝끝내 살아 있게 할 것입니다. 포탄이 날아드는 전쟁터에서도, 경쟁이 극심해지는 사회 속에서도, 전염병이 창궐해 모든 것이 멈추고 단절된 세상에서도, 더 이상 나아질 것 같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그것을 딛고 살아 있게 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청소년기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공부입니다.

그렇다면 삶에서 마주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딛고 일어날 힘은 어디에서 생길 수 있을까요? 『물에 쓴 글씨』라는 소설의 주인공 ‘노엘’이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노엘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사는 가난한 소년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병들어서 세상을 떠났고, 형은 폭력조직에 가담해 방탕하게 살다가 칼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지요. 세상에 홀로 남겨진 노엘은, 엄마와 마지막으로 했던 약속인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를 지키기 위해 애쓰지만,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자신의 삶이 버겁기만 합니다. 하지만 우연히 들른 샌튼 도서관에서 한 청년이 자신에게 책을 한 권 선물하고, 그 책을 읽으며 가슴 깊은 곳이 채워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노엘은 깨닫습니다. 육체적인 배고픔도 있었지만, 영혼의 배고픔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배고픔이 채워져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이후 노엘은 학교 작문 숙제로 받은 “내 삶이 가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고민합니다. 그 결과, 물 위에 써서 없어질 글씨처럼 언젠가 죽어 사라질 인생이라도, 조금 더 의미 있게 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영혼의 배고픔은 무엇이 더 의미 있는 삶인가, 정직한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등 나의 삶과 내가 살아가는 세계에 질문을 끊임없이 할 때, 비로소 채워질 수 있습니다.

1950년대 미국에는 <내가 믿는 이것>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Be kind. Check-in on the elderly or vulnerable.**

**Make a difference by:**

- checking-in on any elderly or vulnerable people you know
- dropping supplies to those at home sick.

Find out more at [Covid19.govt.nz](https://www.covid19.govt.nz)

New Zealand Government

**Unite against COVID-19**

뉴질랜드 정부에서 만든 코로나19 대처 방안 포스터. “친절하세요. 노약자들을 돌보십시오.”



청소년 인문 토론의 장,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청소년, 세계와 소통하다'

사람들이 그들의 신념과 생각을 짧은 에세이로 써서 직접 낭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당시 사연을 읽었던 사람 중에는 아인슈타인이나 헬렌 켈러와 같이 유명한 사람들도 있지만, 평범한 사람들도 자신이 믿는 가치를 진심을 담아 낭독했다고 합니다. 전쟁 직후의 어지러운 사회 속에서도 사랑, 우정, 정직, 평화 등 자신이 바라는 가치를 소중하게 말하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큰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귀를 기울여 보세요.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면, 모든 인류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마음의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내가 믿는 이것” 혹은 “내 삶이 가치 있는 이유”를 주제로 글을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 자신도 잘 몰랐던 마음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청소년들이 쓴 다음 예시를 통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믿어요

사람들이 언제나 제 곁에 서 있지 못할지라도, 함께 하는 그 순간만큼은 서로에게 진심으로 귀를 기울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를 사랑하듯이 주변 사람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생전 처음 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을 발견하면 분명 주저하지 않고 그를 위해 손을 뻗을 거라고 믿어요. 비록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쟁에 고통받고, 같은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일을 저지르길 서슴지 않는 이들도 있지만, 제가 사랑하는 이들은 자신의 세계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믿음은 나 자신을 다잡는 마음으로 이어져 나와 내 세계를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이것은 마치 꺼져 있는 촛불을 든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아름답게 빛나는 불이 켜진 초를 든 단 한 명의 사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옆 사람의 초에 불을 붙여주어도 결코 처음의 빛은 줄어들지 않죠. 때론 거센 바람이 불어와 여러 초를 꺼뜨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금세 옆 사람이 알아채고 불을 나누어 줄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방 안은 촛불로 환해질 거예요.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완벽해질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부족하기에 서로를 간절하게 필요로 하고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닐까요? 저는 이러한 부족함으로 인해 생기는 사랑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 저는 제 눈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웃을 수 있는, 울 수 있는 나의 눈을 믿습니다. 저는 제 마음의 눈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다가온 당신을 믿으며, 마음으로

입은 책을 믿으며, 마음으로 느낀 사랑을 믿습니다. 저의 눈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좋아하는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될 수도 있고, 하나뿐인 동생의 작은 손을 잡을 수 있는 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보았고, 많은 사실을 보았고, 많은 가치를 보았습니다. 그냥 지나치기도 했고, 눈여겨 유심히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저의 눈은 나와 당신을, 타인을, 세상을 연결해 주는 끈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아니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냥 당연하게 지나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와 타인을 연결해주는 끈은 왜 타인을 도와야 하고 왜 세상과 소통을 해야 하는지, 또 왜 정의로워야 하고 왜 진실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답이기 때문입니다.

### 저는 모든 인간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을 믿고 인류를 믿으며 정직성과 사랑도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지니는 책임과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저 역시 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연대, 그리고 국가와 세계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한 인간으로서 현재를 살고 과거로부터 배우며 미래를 준비해야 함을 믿습니다. 저는 또한 제 삶에 있어서 정직하게 무엇인가를 달성하는 것에서 오는 삶이 의미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삶만 풍족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과 주변을 배려하여 세계에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오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사람들을 믿고,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리라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른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아마도 “커서 뭐가 되고 싶니?”일 겁니다. 이 질문에 아마 대부분은 직업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부터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고 싶니?”를 묻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훨씬 필요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을 다시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로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렵게 느껴진다면 “당신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말로 바꿔봐도 좋겠습니다. 만약 이 질문에 누군가 “매일 저녁 붉게 타오르는 노을을 믿습니다”라고 대답한다면, 그 사람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그것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을 해치는 수많은 요소를 없애기 위한 일들을 해야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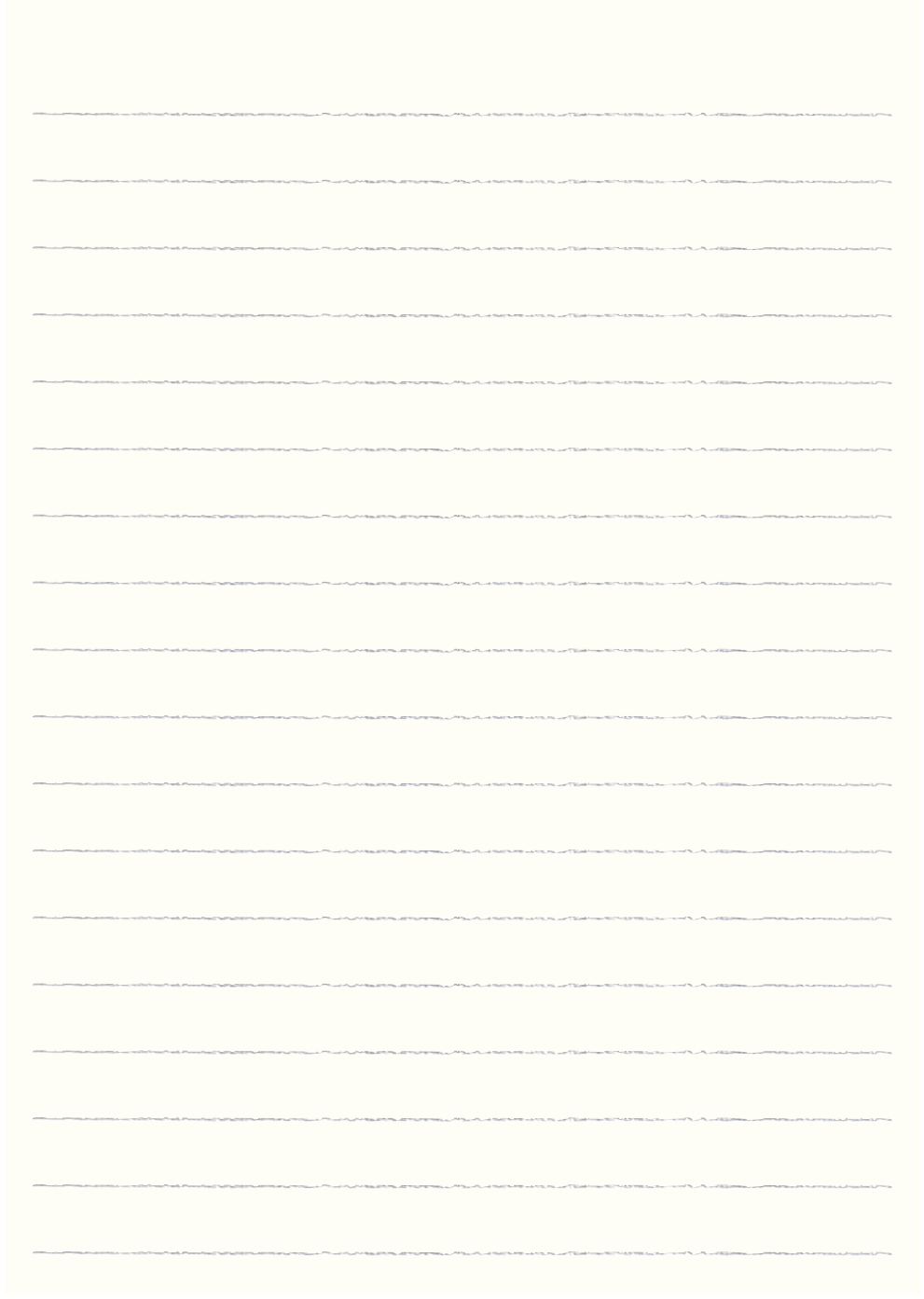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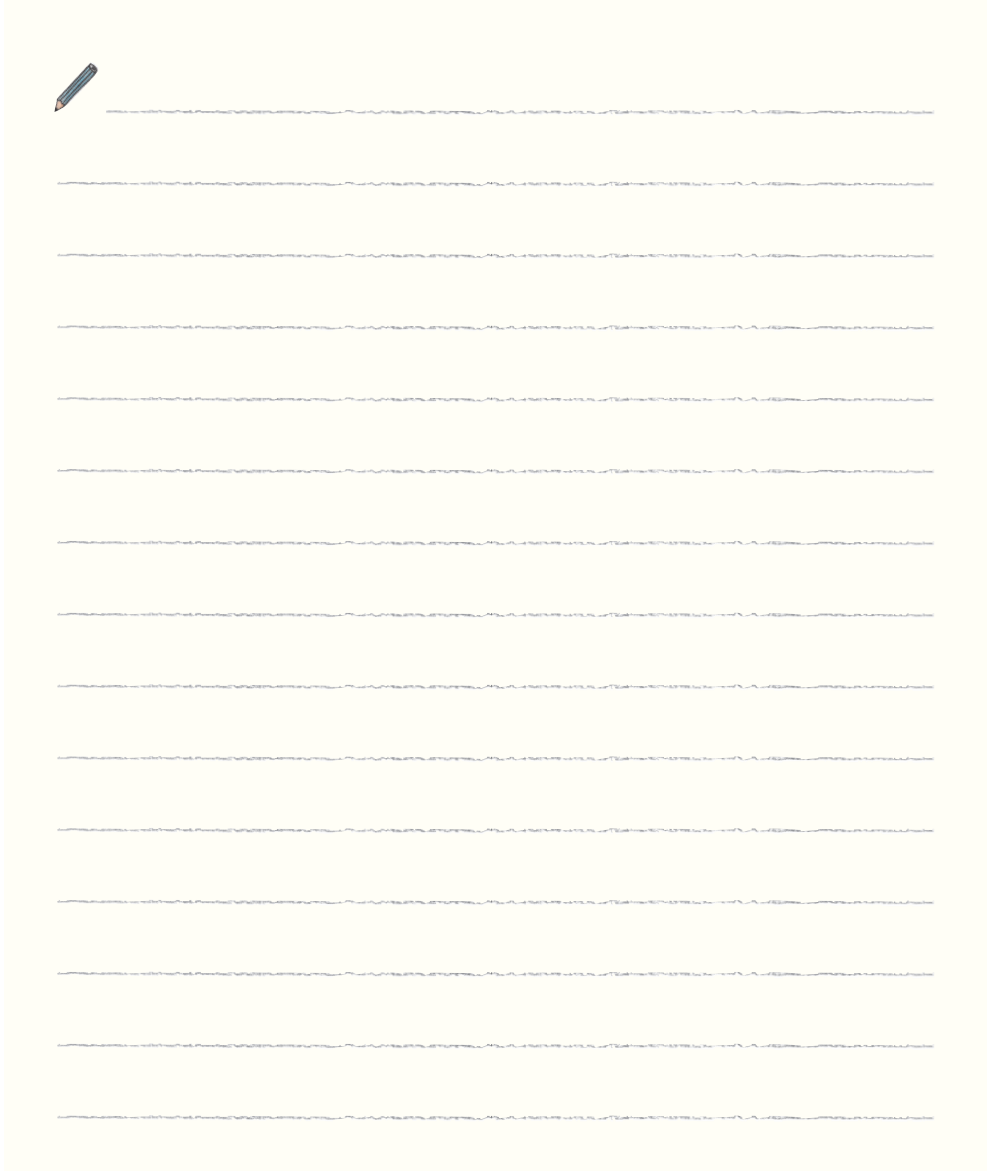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늘 스스로를 향해 묻고, 그 질문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답한다면 ‘나’는 좀 더 그 가치를 닮은 모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자신의 삶을 걸고 지키고 싶은 가치를 늘 질문하는 사람은 폭력이나 차별, 혐오와 같은 것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 자유와 평등, 생명과 평화라는 아름답고 품위 있는 가치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선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가득하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떠올려야 할, 온 인류의 미래를 간직한 아이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정의롭고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꿈꾸는 여러분이야말로 아름다운 세상의 씨앗이고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 희망입니다.



질문

여러분의 삶이 가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내 삶이 더 행복하고 자유롭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조용히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 정직하고 솔직한 자신의 이야기를 써 봅시다.



## 실천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또 어떤 세계를 만들고 싶나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만트라를 만들어 보세요. 만트라는 산스크리트어로 '마음 도구'라는 뜻인데, 어떤 단어나 문장을 반복해서 말하면 강력한 파동이 생겨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일종의 주문인 것이지요! 여러분만의 만트라를 세 가지 만들고 그것의 이유도 함께 써보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만트라를 읽으며 여러분의 꿈에 가닿아 보세요.

### 만트라 예시

- 사소하지만 남들에게는 커다랗게 느껴질 수 있는 일을 하자.
- 불가능한 방식을 고집하자.
- 원대한 꿈은 사소하고 터무니없는 행동에서 비롯된다.
- 무엇이든 시작하고 보자.
- 만 명의 사람을 살리는 꿈을 꾸자.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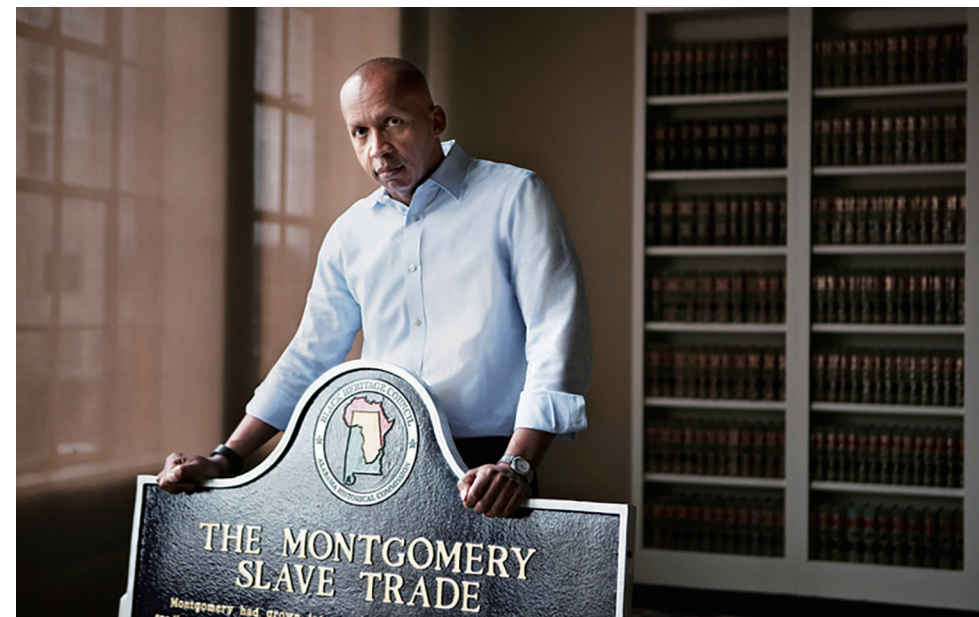
입

## 브라이언 스티븐슨,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정의로운 정체성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을 모른 채할 경우 결국에는 그 영향이 우리 모두에게 미치기 마련이다. 측은지심의 부재는 지역 공동체는 물론이고 나라 전체의 품위를 떨어뜨릴 수 있다. 두려움과 분노는 우리에게 복수심과 폭력, 불공평함과 부당함을 부추기며 결국에는 자비의 부재로 모두가 고통받는 그리고 타인을 괴롭힌 만큼 스스로를 자책하는 상황을 만든다. 대량 투옥과 극단적인 처벌 문제에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다음을 주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다. 우리 모두에게 자비와 정의감, 그리고 아마도 약간은 분에 넘치는 품위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 브라이언 스티븐슨, 『월터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 30쪽, 열린책들

브라이언 스티븐슨은 흑인, 빈곤층,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게 한없이 가혹한 미국의 형사 사법 제도를 바꾸는 활동을 하는 변호사입니다. 2012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TED 강연에서 “우리는 불의에 관해 말해야 합니다(We need to talk about an injustice)”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하여 TED 역사상 가장 긴 기립 박수를 받기도 하였지요. 그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수형자가 사망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교도소에 가두며, 중간에 가석방도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종신형) 선고 폐지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고, 무고하게 또는 저지른 죄에 비해 과도하게 형량을 선고받아 사형수가 된 사람들 100여 명을 구제하는 등 미국 형사 사법 제도의 불공정한



브라이언 스티븐슨은 흑인,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변호해왔다. ©The New York Times

법 집행을 적극적으로 개혁해온 사회운동가이기도 합니다.

브라이언 스티븐슨이 쓴 책 『월터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에는 그의 삶을 구성하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브라이언이 사법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 이유가 서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학생으로 인턴 생활을 하던 그에게 첫 번째 임무가 내려졌고, 그것은 헨리라는 사형수에게 “내년까지 당신에 대한 형 집행은 없을 것입니다”라는 말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첫 임무인 만큼 떨리는 마음으로 전달할 내용을 연습하지만, 준비한 말을 하나도 하지 못한 채 브라이언은 헨리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악한 교도소에서 손과 발이 다 묶인 채 인간다운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의 모습에 미안했고, 그에게 사형 집행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앞으로 1년은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밖에 전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함이 미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헨리는 너무나 기뻐하며 고맙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언제 사형당할지 몰라서 가족 면회를 신청하지 못했는데, 이제 가족



평화와 정의를 위한 국립기념관(National Memorial for Peace and Justice)에서 ©Beth Perkins

에게 자신을 만나러 오라고 할 수 있겠다면서 말이지요. 변호사 접견 시간이 끝난 후 다시 교도관에게 끌려나가는 순간에도 아름다운 찬송가를 부르며 자기 삶의 존엄성을 잃지 않으려는 헨리를 보며 브라이언은 다짐합니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죄 없이 수감되고 사형당하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겠노라고 말이지요.

브라이언에게는 이러한 결정적 삶의 순간이 많습니다. 그는 이러한 순간들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작지만 귀한 말과 행동, 느낌들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며, 그것이 자신에게 주는 힘을 믿지요. 예를 들어, 아홉 살 때 할머니가 자신을 꼭 끌어안으며 세 가지 약속을 해달라고 부탁한 말을 평생 지키는 식으로 말입니다. 할머니는 “너의 어머니를 사랑할 것”, “항상 옳은 일을 할 것”, “술을 마시지 말 것”이라는 세 가지 약속을 부탁했는데, 이 이야기를 대중에게 전한 52세까지 세 가지를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말 자체가 갖는 중요성보다, 나에게 소중한 할머니가 나를 특별하게 여기며 한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윌터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은 이러한 이야기들의 모음집입니다. 브라이언 스티븐슨이 교회에 강연하러 갔다 만난 한 흑인 청중이 강연이 끝나고 “자네는 정의를 위해 복을 쳐야 하네”라고 어깨를 치며 해준 말, 흑인 소년에게 내려진 과도한 판결을 막아야 하는, 아무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 냉소하고 있었던 재판정에서 청소하는 흑인 관리인이 브라이언에게 “목표를 향해 똑바로 가라”라고 한 말이 그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정의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는 곁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존엄함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노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브라이언 스티븐슨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자기 정체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품격 있고 존엄한 정체성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질문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 희망을 살아 있게 하는 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또 한 명의 멋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댄서 릴 벅(Lil Buck)입니다. 릴 벅은 전 세계에서 무선 이어폰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 그 제품의 광고 모델이기도 할 만큼 세계적인 댄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주목할 점은 몸으로 나를 표현하고, 그것으로 세계와 소통하며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댄서라는 사실입니다. 릴 벅은 손끝 하나, 발끝 하나로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릴 벅은 몸과 마음을 다해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릴 벅의 인터뷰를 보며, 희망의 시작인 나를 어떻게 가꾸어 갈지 생각해 봅시다.

## 춤은 자유이고, 내면의 열정입니다

**인디고** 당신에게 춤은 무엇이고, 춤을 통해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나요?

**릴 벅** 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춤은 자유를 의미하며,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 저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제 주변의 어른들은 대부분의 그들 세대가 그러했듯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의자에 앉아서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열정을 쏟을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일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내면의 기쁨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고 시험을 치는 것만으로는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저 또한 학교에 다니면서 시험을 치고 점수를 받으며 행복하지 않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행복하지 않았지만, 춤을 통해서 저 자신을 표현할 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자신의 사랑과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청소년 여러분께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스트레스를 받고 통제당하는 상황 속에 있게 되면 그것은 분명 악순환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것이 춤이든, 음악이든, 노래든, 자신의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 작지만 소중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인디고** 당신은 가난한 지역에 태어나고 자란 흑인으로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춤을 통해 자신이 누구



릴 벅은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미국에서 차별당하는 현실을 비판하는 영상을 기획·제작하고 있다.  
<현실의 색깔 Color of Reality>의 한 장면

인지 알아가고, 다양한 음악과 춤과 사람을 만나면서 자신도 변했고 환경 역시도 바꿀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당신이 겪은 어려움처럼 이곳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희망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인지, 희망을 시작할 방법은 무엇인지 당신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릴 벅** 제 삶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 하나는 제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할 만큼 가난하게 자랐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는 정말 가난하고 어려움이 많은 곳이었는데요. 많은 사람이 저에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야. 너는 아무것도 될 수 없을 거야. 너의 미래엔 희망이란 없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는 무서운 갱단이 있었고,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등 나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희망을 찾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그런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나는 인간입니까 Am I a Man?>의 한 장면

하지만 저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백댄서가 되고 싶다는 작은 꿈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연습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발톱이 빠지기도 하고 신발이 피로 흥건히 젖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저는 최고의 백댄서가 되고 싶었으며, 누구보다도 강렬히 그렇게 되기를 열망했습니다. 제 삶을 바꾸고 싶었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으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세상에는 저보다 더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는 각각 다른 차원의 문제를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희망이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믿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끈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춤이었습니다.

저의 어머니께서 혼자서 7명이나 되는 아이를 키우셨습니다. 저 또한 주변의 많은 사람처럼 갱단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좋지 않은 환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도록 하는 여러 유혹이 있었지만, 최고의 댄서가 될 수 있을 거란 작은 희망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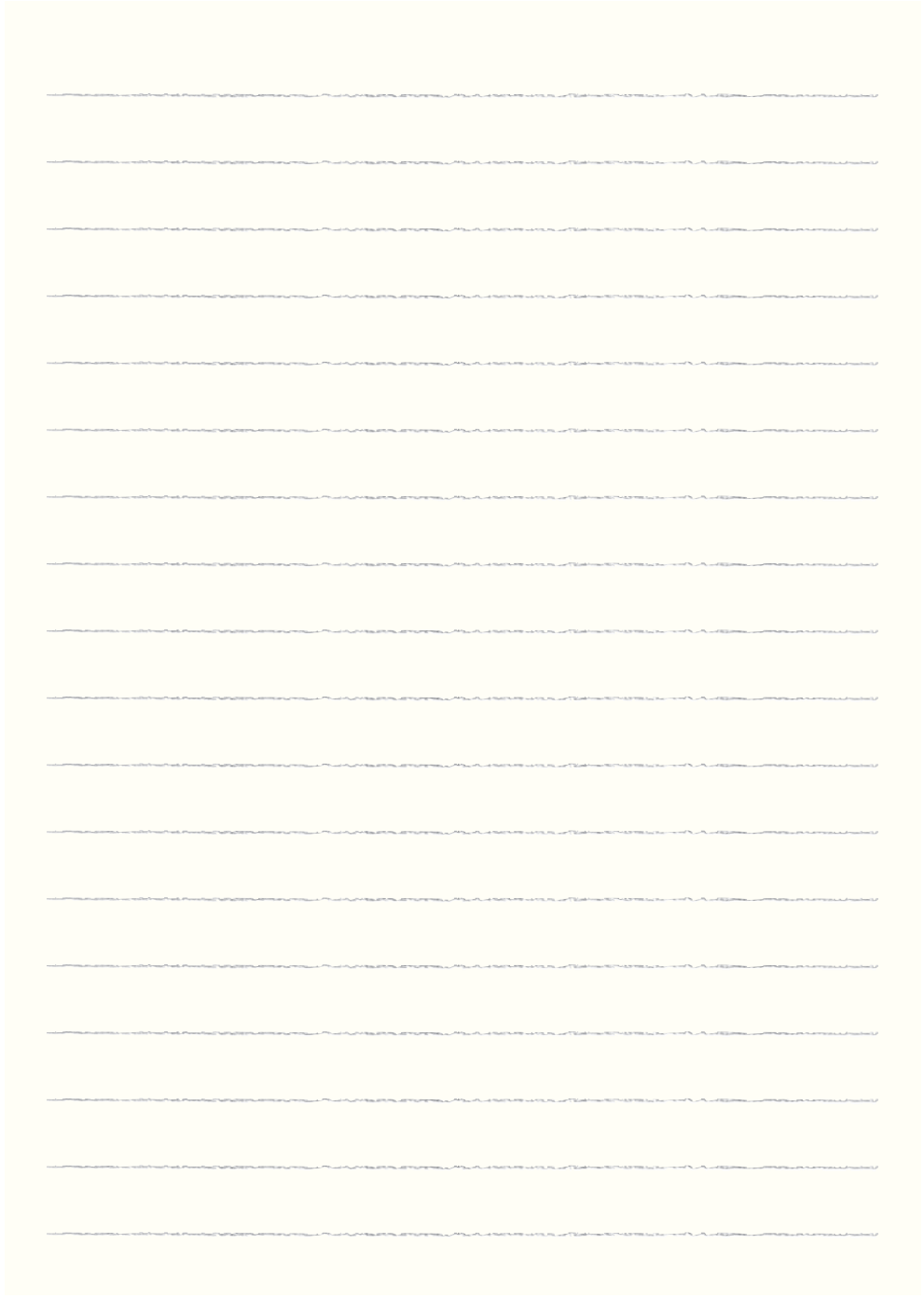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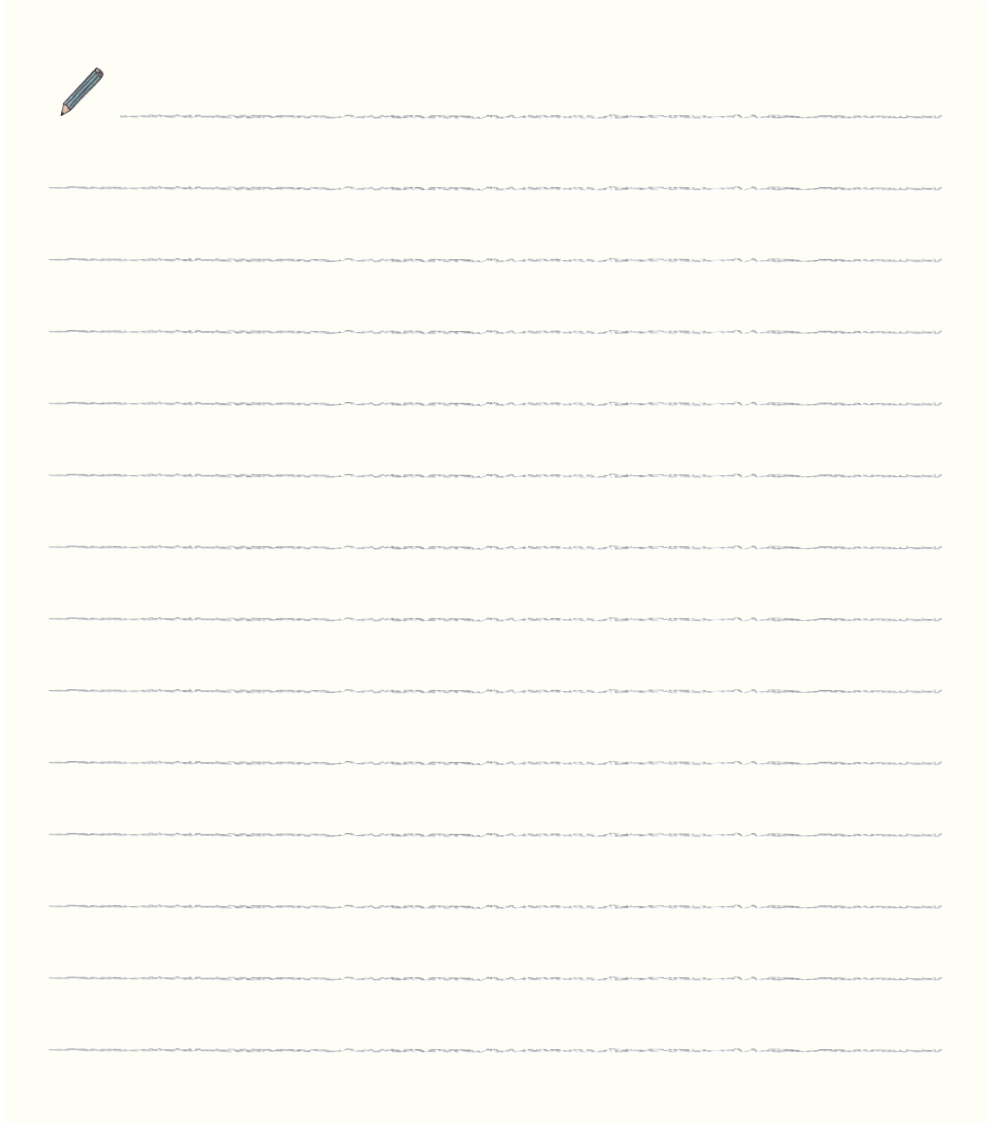
그렇게 마침내 저는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마돈나와 함께 월드투어를 두 번 하였고,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와 공동 작업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제가 대표로 있는 춤을 함께 추는 댄서 그룹도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까지 저는 오직 하나의 작은 꿈만 간직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큰 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그 꿈을 향한 강력한 동기가 있었고, 끈질기게 노력하여 마침내 백댄서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백댄서는 하루에 열서너 시간 춤을 추고도 100달러 정도밖에 받지 못한다는 힘든 현실을 알게 되면서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현실은 저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꿈을 갖는다는 것,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제가 희망의 증거입니다.

저는 현재 제가 살았던 도시의 아이들에게 춤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그들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회가 여러분 앞에 찾아왔을 때 그것을 잡으세요. “희망을 살아 있게 하라.” 이 말을 꼭 헤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여러분에게는 삶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고 또 살아갈 힘을 주는 말이 있나요? 소중한 사람들에게 들었거나, 특별한 경험을 했거나,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본 경우도 좋습니다. 나를 구성하는, 표현하는, 나의 정체성이 되어준 말은 무엇인가요? 그 말은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나요? 그 말이 여러분에게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실천

『안네의 일기』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안네 프랑크가 1942년부터 1944년까지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피해 네덜란드에 숨어 살면서 썼던 일기입니다. 학교도 갈 수 없고, 친구도 만날 수 없고, 먹는 것도 자유롭지 않고 바깥 공기를 쐬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벽장 뒤편 감춰진 공간에서 안네는 일기를 쓰며 새로운 세상을 꿈꿨습니다. “용기와 신념을 지닌 사람은 결코 불행 속에서 죽지 않아”라고 말하며, 삶이라는 모험에 절망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지금까지도 큰 울림을 줍니다.

안네는 우리에게 미리 정해진 꿈을 좇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어렵더라도 그를 넘어선 세상을 꿈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안네가 말했듯, 어렵더라도 내가 잃지 않아야 하는 자유를 누릴 소중한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그 어려움에 지치지 않기 위한 나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세요. 안네처럼 글을 쓸 수도 있을 것이고, 명상을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신나는 음악을 틀고 한껏 자유롭게 춤을 추는 친구도 있을 테고요. 영혼의 선장으로 ‘나’를 잃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봅시다.



A large yellow rectangular area containing a small pencil icon at the top left and several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 내 삶이 의미 있는 이유

여러분은 어떤 책을 가장 좋아하나요? 소설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과학이나 수학과 관련한 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철학적인 질문이 가득한 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좀 더 어렸을 때, 동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알프스 소녀 하이디』, 『빨강머리 앤』, 『15소년 표류기』, 『보물섬』, 『비밀의 화원』 등 소년과 소녀들이 나와서 황홀한 모험을 펼쳐나가는 이야기 말이지요. 『빨강머리 앤』을 읽으면서 앤의 발랄함과 엉뚱함 그리고 점점 성숙해지는 모습에 감탄하고, 『15소년 표류기』의 소년들이 서로 갈라지고 다시 모여서 위협에 맞서는 모습에 환호합니다. 자연에서 뛰노는 하이디를 부러워하고, 『작은 아씨들』을 읽으며 포근한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동화 속 주인공들의 순수함,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당당함과 용기, 긍정적 힘과 상상력.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닮고 싶은 것들입니다.

오랜만에 동화를 다시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신기하게도 책 속의 이야기들은 처음 읽었을 때보다 더 실감 나게 우리가 처한 현실에 맞닿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지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점점 어릴 때 우리가 사랑했던 소년, 소녀들을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닮고 싶은 사람도, 되고 싶은 사람도, 마음의 안식처도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닮고 싶었던 인물들을 다시 마음속으로 불러와 봅시다. 오랜만에 만난 동화 속의 인물들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속삭여 줄 것입니다. 그 말에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 행복할 틈을 만드는 소녀, 빨강머리 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작은 반짝임조차도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를 온전히 누릴 줄 아는 소녀가 있습니다. 반짝이는 눈과 맑은 영혼을 가진 소녀, 바로 빨강머리 앤입니다. 앤은 빼빼 말랐으며 새빨간 머리와 주근깨투성이 얼굴의 못생긴 아이입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상상할 수 있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며, 아름다운 것을 보고 감탄하는 것을 유치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순수하고 맑은 아이이기도 하죠. 친구 다이애나에게 실수로 과실주를 먹여 마을을 발각 뒤집어 놓기도 하고, 외모로 놀리는 길버트의 머리를 석판으로 내려치기도 하는 사고뭉치입니다. 하지만 그런 앤의 발랄함은 합리적인 것만을 중요시했던 마릴라 아주머니의 마음속에 작은 꽃을 피우게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경탄하는 엉뚱하고 사랑스러운 소녀가 바로 앤입니다.

우리도 앤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꽃들에 이름을 지어주기보다는 교과서 암기법을 만들어내고, 옷이 더러워질까 봐 잔디밭을 뒹굴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은 척을 하고, 부당한 일에 맞서다 피해를 볼까 봐 고개를 푹 숙이기도 합니다.

앤은 틈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완벽한 행복’을 누릴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흘러가는 것의 아름다움을 알아차릴 틈, 그것을 가슴 깊숙이 남겨 두었다가 누군가와 나눌 틈, 못생긴 고아라도 자신을 사랑할 틈,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흥분 때도 주눅 들지 않을 틈. 이런 틈들이 있었기에 그 사이로 꽃이 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며, 눈동자가 언제나 빛날 수 있었다고. 그제야 비로소 완벽하게 행복할 수 있었다고 앤은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꿈꿉니다. 행복해지는 방법을 책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찾기도 하고, 행복을 느끼려고 돈을 아낌없이 쓰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게 수동적으로 얻은



행복은 '완벽한 행복'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고자 했을 때,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부수고 틈을 만들어 낼 때, 탁한 눈동자가 조금씩 빛나기 시작할 때, 가슴속 숨어있던 말괄량이 소녀 앤을 마주할 때, 그때 앤처럼 중얼거릴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완벽하게 행복해.”

### 항상 당당한 모습으로 우리의 곁에 있는 영원한 친구, 삐삐



입고 싶은 대로 옷을 입고, 긴 짝짝이 양말에 커다란 신발을 신고 다니며 얼룩말과 아저씨꼴은 가볍게 번쩍번쩍 드는 괴력을 가진 버릇없는 어린이. 학교와 부모를 거부하며 언제든지 어른들의 권위에 함부로 도전하는 용감하고 자유로운 꼬마 영웅. 양 갈래로 땅아 옆으로 뻗은 빨간 머리카락과 주근깨가 가득한 얼굴, 크고 하얀

이를 가진, 아홉 살에 상상 속의 약 크루멜리스를 삼켜 영원히 어른이 되지 않는 소녀, 삐삐로타 델리카테사 윈도셰이드 에프레임즈 도우터 롱스타킹, 줄여서 삐삐 롱스타킹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삐삐 롱스타킹은 어린이집에 가야 하지 않겠냐는 어른의 말에 자신은 어린이고, 자기의 집 빌라 빌레쿠라에 살고 있으니 이미 어린이집에 살고 있지 않느냐며 자신을 어린이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온 경찰들을 지붕 위로 던져 버립니다. 자신의 금화를 탐내는 어른을 혼쫌내기도 하며, 친구들을 괴롭히는 아이는 나무에 걸어놓지요. 그러면서도 불난 집에 뛰어들어 아이를 구하기도 하고 유유자적 내키는 대로 놀고 하루하루를 재미있게 보냅니다. 그런 삐삐는 우리에게 어른들이 원하는 말 잘 듣는 아이가 아니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만 같습니다. 또, 아이들에게는 한없이 다정하고 재밌는 친구이자 꼬마 영웅인

삐삐가 어른들을 혼내는 모습에서는 쾌감을 느낍니다.

삐삐는 자유롭고, 정의롭고, 독립적이며, 상대가 어른이라고 한들 기죽는 일 없이 늘 당당합니다. 어른들의 권위에 도전하고, 또 어른과 싸워 이기죠. 어른들의 눈에 삐삐는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삐삐와 같은 어린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어른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른이 된 후에도 우리 사회가 삐삐와 즐겁게 어울릴 수 있는 곳이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삐삐를 따라 크루멜리스를 삼켜 영원히 자라지 않고 싶지만, 그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어떤 어른이 될 것인지는 우리 각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른이 되고 싶나요?

### 함께 나아가고 포용할 수 있는 리더, 도로시

소설 『오즈의 마법사』의 주인공 도로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동쪽 마녀를 물리치고 기지를 발휘해 서쪽 마녀도 무찌른 용감한 영웅이며 고민을 가진 일행들을 받아들여 주고 같이 이끌 어주는 좋은 리더입니다. 보통 영웅이나 리더는 용기가 남다르거나 남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는 등 특별한 데 비해, 도로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허수아비, 양철 나무꾼, 사자 등 처음 보는 낯선 생명체들을 반겨주고 함께하는 좋은 친구이고, 친구들의 소원을 이뤄주는 선한 해결사이며, 소원이 뭐냐는 물음에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 욕심 없는 소녀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항상 강아지 토토를 챙기는 멋진 반려인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리더는 종종 리더의 역할보다 ‘리더’라는 이름만을 원하거나 이를 악용해 자신의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명령만을 하며 구성원들과 소통을 잘 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요. 처음 생각했던 방법이 성공하지 않으면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럴 줄 알았다며 그 문제를 아예 포기하거나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처음의 방안을 끝까지 밀어붙이곤 합니다. 또한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일부 힘센 사람들의 의견만을 듣거나, 소수의 의견을 듣는 듯하다가도 여러 이유를 대며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리더만 그대로인 채 다른 구성원만 계속 바뀌거나 그 누구도 바뀌지 않는 상황에 마주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로시’ 같은 리더입니다. 도로시처럼 열린 마음으로 새로움을 받아들이고 함께한다면, 리더라는 이유로 나서기보다 구성원들을 보듬고 용기를 주는 좋은 동료로 같이 걸어 나간다면,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해본다면 분명 우리 사회는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 서로를 도와가고 배려하며 무인도에서 살아남은 모험가들, 『15소년 표류기』의 소년들

『15소년 표류기』는 뉴질랜드 체어맨 기숙학교의 아이들이 바다를 표류하다 무인도에 도착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15소년 표류기』의 소년들은 각자 장점을 살려 생필품을 만들고, 요리하고, 사냥하고, 지도자도 뽑으며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갑니다. 이 소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끊임없이 생각했고 기숙학교에서 배운 규칙들을 토대로 서로 교육하며 살아갑니다. 서로를 지키고, 갈라지더라도 서로 의심하지는 않았죠.

물론 서로 견제하던 사이인 브리앙과 도니편은 항상 의견을 내는 자리에서 부딪히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브리앙이 지도자로 뽑히자 도니편은 아이들이 거둬 말렸지만 자신을 따르는 아이들만 데리고 동굴에서 떠납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마지막, 섬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브리앙은 도니편을 위해 망설이지 않고 몸을 날리고, 도니편 또한 칼에 찔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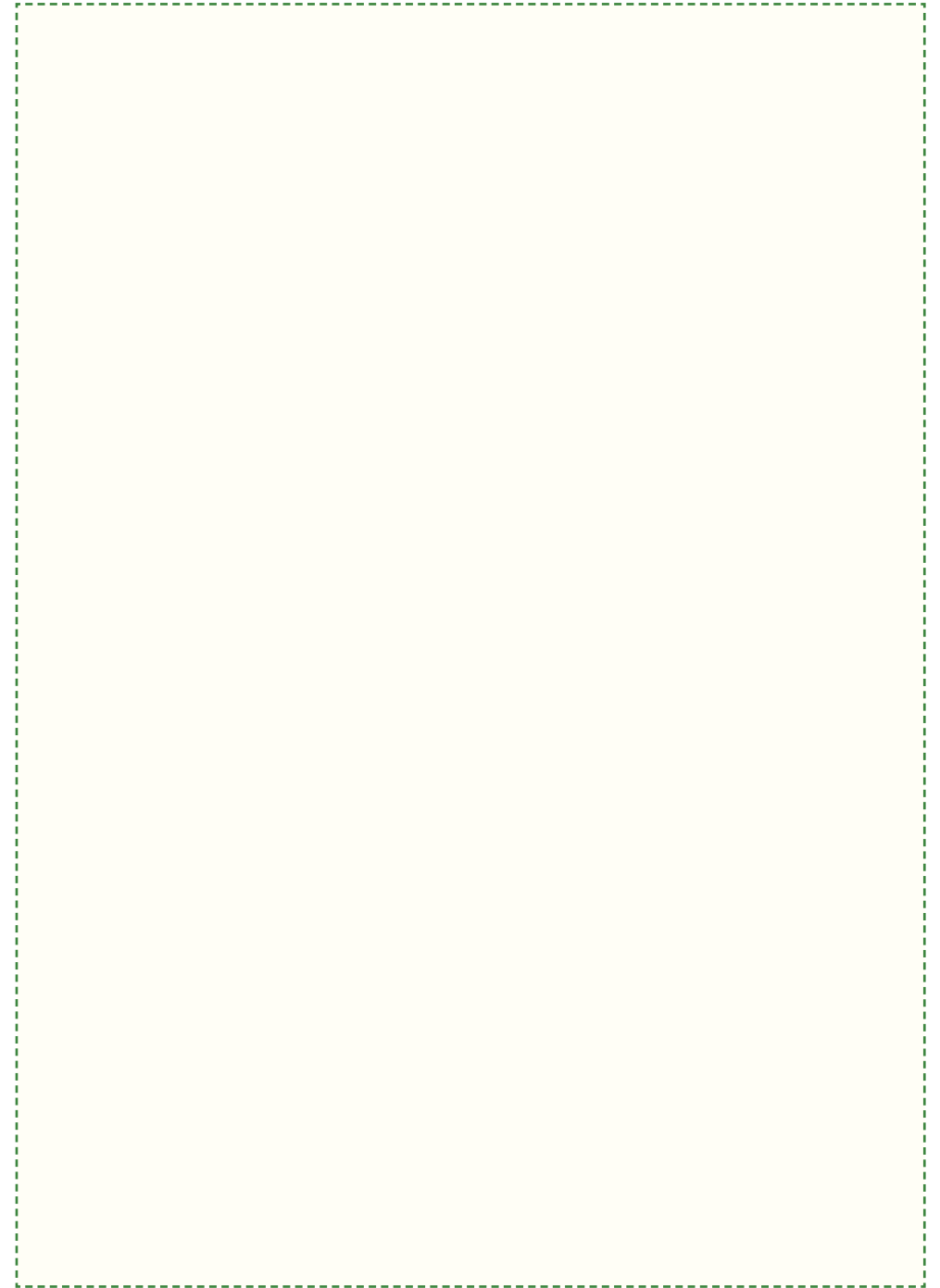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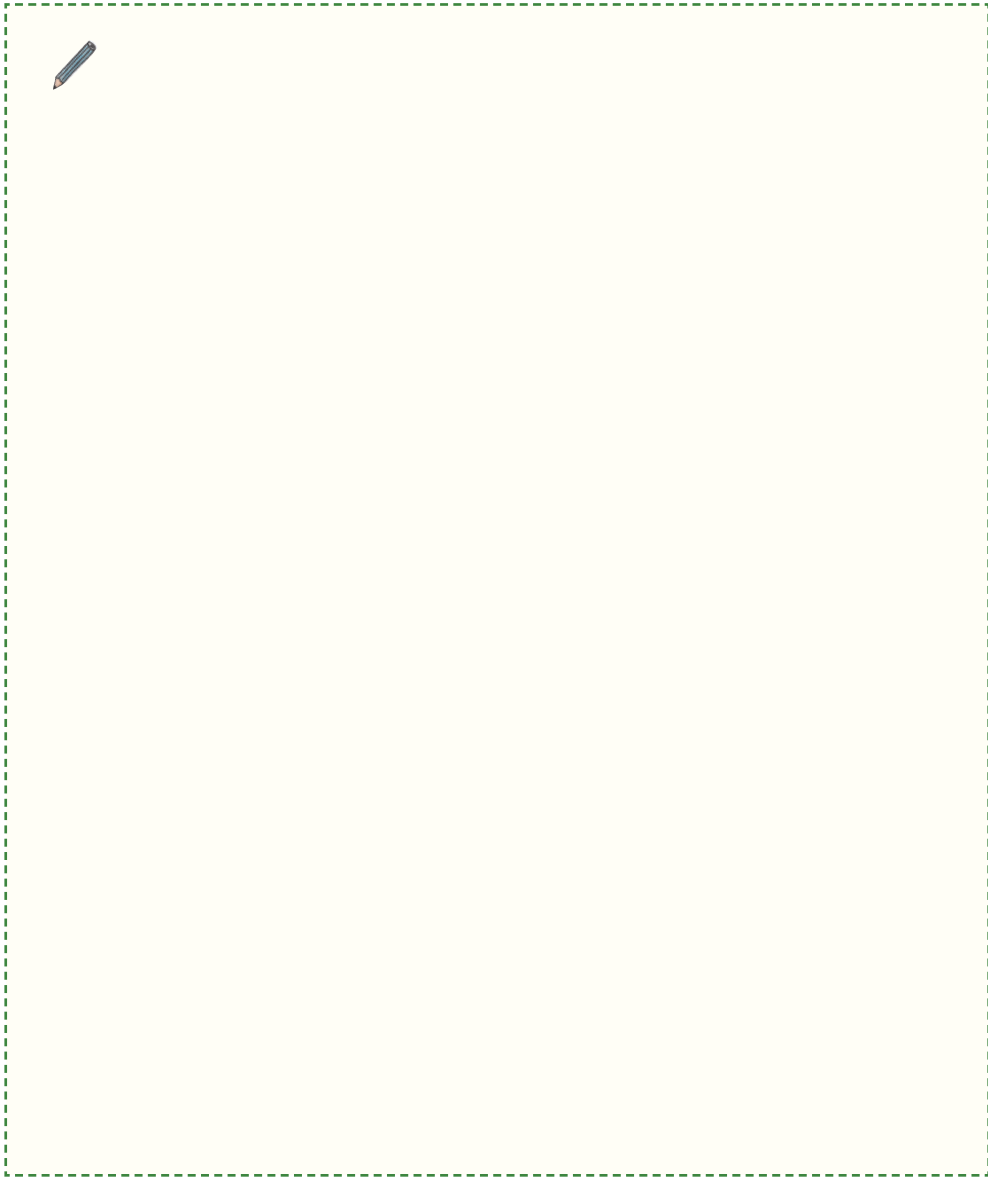
가며 브리앙을 구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소년들은 때로는 갈등을 겪지만 결국엔 서로 협력하고, 남을 돕는 것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만큼의 용기를 내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용감한 소년들의 작은 사회를 글로 읽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학교가, 사회가, 세계가 함께 협력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잘 살고 있나요? 혹시 이기적으로 나만 잘 살겠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가진 능력 중 공동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브리앙의 너그러운 마음과 도니편의 용기를 갖게 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나’를 찾아가는 모험을 떠나 봅시다.




질문


여러분은 어떨 때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자랑스럽나요? 자신이 가장 빛났던 순간은 언제 이고, 또 내가 가장 솔직해지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동화 속 인물들이 자신의 삶에서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자신이 가진 장점을 잃어버리지 않듯이, 여러분이 가장 지켜 내고 싶은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실천**

동화 속 인물 중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누구인가요? 그 캐릭터를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만약 그 동화 속 인물이 지금 현실에 있다면 어떤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질까요? 또 그 현상에 대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할까요? 동화 속 인물의 특성을 잘 살려 연극을 한 편 만들어 봅시다. 한 작품의 등장인물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작품 속 인물들이 연극에서 만나도 좋습니다.

 **연극의 배경:**

 **등장인물:**

 **대본 만들기**



## My Favorite I...

“자신이 어떤 면에서 똑똑한지, 어떤 면에서 들어맞는지, 어떤 면에서 강한지 적어 두기를 바란다. 적은 것을 벽에 붙여 놓고, 큰 소리로 읽어라. 그렇게 내면화하는 것이다. 그 사실들을 믿어라. 소중한 시간을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처럼 보이길 바라느라 낭비하지 않도록 하라. 당신의 딸, 조카딸, 언니, 여동생, 삼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모습 그대로 보고, 행동하고, 노래하고, 걷고, 말하고, 놀게 하라.”

- 케이트 T. 파커, 『나다운 게 아름다운 거야』 중에서, 13쪽, 시공아트

여러분은 가장 나다운 모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가장 나다워지는 순간은 언제 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금방 떠오르는 사람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다운 게 아름다운 거야』는 다양한 나다운 모습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책에는 모험심 넘치는 친구, 엉뚱한 친구, 상상력이 풍부한 친구, 용감한 친구, 개구쟁이 친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을 떠올리면 교복 입고, 학교에 있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사람들은 이런 청소년들을 특정한 집단으로 분류하는 단어를 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입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말하는 성별이나 나이, 소속과 사는 동네로만 나를 규정하기 어렵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내가 좋아하는 나의 모습을 써보며, 나를 찾아 떠나는 내면의 여행을 가 봅시다. 내가 좋아하는 내 모습을 매 순간 실현하면, 그 순간이 모여 삶 전체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채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1.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책, 영화, 음악, 사진, 장소, 향기, 사물, 사람 등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써보세요. 또, 만약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하고 싶나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을 소개해 주세요.



A series of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starting with a pencil icon at the beginning of the first line.

Blank lined writing area for page 44.

2. 나를 소개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직접 목소리 내어 발표해보세요. 이야기하고 난 후 여러분의 느낌은 어떤가요?



Lined writing area for activity 2.

3. 나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었는지 소감을 물어보세요. 소감을 직접 글로 써보는 시간을 서로 갖고 편지처럼 공유해도 좋습니다.



Lined writing area for activity 3.

##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 나다운 게 아름다운 거야

케이트 T. 파커 지음 / 신현림 옮김 / 시공아트 / 2017

여러분은 가장 나다운 모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가장 나다워지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이 책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예쁘고 멋진 순간이 아닌,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사진과 짧은 문장이 함께 소개된 책입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강하고, 당당하며 또 아름다운

것은 바로 '나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매 순간 기쁘게 삶을 사는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더 멋진 내 모습을 그려보면서 나다운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 봅시다.

### 더 읽어 볼 책



『내가 행복한 곳으로 가라』 / 김민웅 지음 / 이봄 / 2017

『산책을 듣는 시간』 / 정은 지음 / 사계절 / 2018

『울고 화내고 멍때려라』 / 설흔 지음 / 나무를심는사람들 / 2018



### 월터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

브라이언 스티븐슨 지음 / 고기탁 옮김 / 열린책들 / 2016

흑인, 빈곤층,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게 한없이 가혹한 미국의 형사 사법 제도를 바꾸는 활동을 하는 브라이언 스티븐슨은 “한 사회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진정한 척도는 그 사회가 빈곤층과 소외층, 피의자와 재소자, 사형수를 대하는 방식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부유한 소수의 정의가 아니라, 눈앞의 고통받는 자들의 부정

의를 없애고자 노력하는 브라이언이 전하는 이야기를 통해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 더 읽어 볼 책



『내가 행복한 곳으로 가라』 / 김이재 지음 / 샘터사 / 2015

『연필 하나로 가슴 뛰는 세계를 만나다』 / 애덤 브라운 지음 / 이은선 옮김 / 북하우스 / 2014

『영원한 소년』 / 인디고 서원 지음 / 궁리 / 2017



## 함께 보면 좋은 영화

### 빌리 엘리어트

스티븐 달드리 / 영국, 프랑스 / 2000

영국 북부 탄광촌에 사는 11살 소년 빌리 엘리어트는 매일 복싱을 배우러 가는 체육관에서 우연히 여학생들의 발레 수업을 보게 됩니다. 복싱보다 발레에 흥미를 느끼게 된 빌리는 발레 동작을 따라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발레 선생님은 빌리가 발레에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로얄 발레 학교에 오디션을 볼 것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발레는 여자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런 아버지 앞에서 빌리는 진심을 담은 춤을 추어 아버지의 마음을 돌려세워서 마침내 발레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멋진 발레리노로 성장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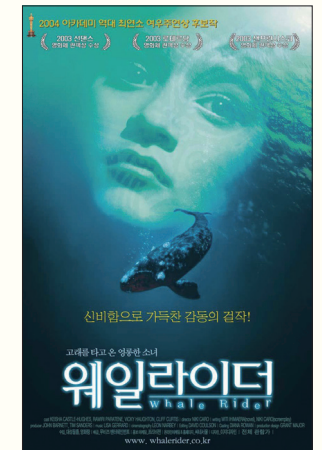
### 함께 생각해 봅시다

1. 빌리는 ‘발레는 여자나 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싸워야 했습니다. 발레가 아니어도 그와 같은 편견이 우리 사회에도 많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가장 심각한 사회적 편견은 무엇이며, 그 편견이 왜 문제인지 써 봅시다.
2. 빌리는 결국 편견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의 삶을 찾아갑니다. 편견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가로막힌 경험이 있나요? 내가 극복하고자 하는 편견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 웨일 라이더

니키 카로 / 뉴질랜드, 독일 / 2002

고래를 타고 온 파이키아가 세운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마을에는 위기가 있을 때 그들을 이끌 족장이 탄생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래를 타는 소년이 태어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파이키아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가 마을에 태어났습니다. 관습에 따라 족장은 남자밖에 될 수가 없었기에, 파이키아는 지도자로서 탁월한 능력이 있지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할아버지에게 외면을 당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마을 해변가에 고래 떼가 밀려와 죽는 위기가 마을에 발생하고,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를 파이키아가 해결하면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입니다.



### 함께 생각해 봅시다

1. 파이키아는 족장이 될 탁월한 능력이 있음에도 여자라는 이유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믿고 응원해주는 할머니와 삼촌이 있기에, 무엇보다 정말 사랑하는 바다와 고래가 있기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는 사람이나 사물, 혹은 장소가 있나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소개해 주세요.
2. 파이키아는 차별 속에서도 각종 시험을 통과하며 뛰어난 지도자로서 면모를 보여줍니다.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반드시 갖춰야 하는 능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토론해 봅시다.

## 참고하면 좋은 사이트

### ● 브라이언 스티븐슨 평등 정의 재단 [www.eji.org](http://www.eji.org)

미국의 흑인 인권 변호사 브라이언 스티븐슨이 만든 재단입니다. 인종 차별과 불합리한 사법 제도에 대한 역사와 그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종 차별의 역사 캘린더'에서 매일 그 날짜와 연관된 인종 차별을 없애고자 노력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 ● 안네 프랑크 하우스 [www.annefrank.org/en](http://www.annefrank.org/en)

안네 프랑크의 삶 전반과 그녀를 기억하는 전 세계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차별의 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영상과 인터뷰들을 볼 수 있습니다.

### ● 케이트 T. 파커(『나다운 게 아름다운 거야』저자) 홈페이지 [www.katetparker.com](http://www.katetparker.com)

소녀, 소년들의 당당하고 멋진 모습을 사진으로 담은 케이트 T. 파커의 멋진 작품을 마음껏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사진을 보며 나와 닮은 모습을 찾거나 사진 속 담긴 이야기를 상상하면서 보면 더욱 좋습니다.

### ● 피스모모 [www.peacemomo.org](http://www.peacemomo.org)

더 평화롭고, 덜 폭력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운다는 모토로 평화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평화란 무엇이며, 평화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반도에는 평화에 관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 평화를 위한 일상의 실천

- 나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 내 삶의 주인은 나이고, 나는 존엄한 존재라고 느끼나요?
- 나의 정체성이 되어줄 말을 찾았나요?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소중한 말을 다른 친구에게도 소개해 봅시다.
- 평화는 나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나요? 하루에 한 가지씩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봅시다.

## CHECK LIST .....

- 아침에 일어날 때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하는 '나' 축하하기
- 내 이름을 소리 내어 불러 보기
- 거울 보며 미소 짓기
- 방이나 책상을 정리하며 마음을 새로 다잡기
- 하루 다섯 줄 일기 쓰기
- 잠자기 전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해 주기
- 나의 좋은 점 열 가지 써 보기
- 나의 고쳐야 할 점 열 가지 써 보기
-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문장을 쓴 메모지를 책상에 붙이기
-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소중한 경험들 적어 보기

## 2부 평화와 우리

# 공존, 공감, 공생의 삶

인간은 결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글자만 봐도, 사람과 사람(人) 사이의 관계(間)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 조화를 이루며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이고, 우리는 그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시민들입니다. 시민은 자신의 사적인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정의로운 공익을 추구하며, 사익과 공익 사이에서 균형 감각을 잡을 줄 아는 존재입니다. 다른 존재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존재들과 공감을 통해 공생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이 곧 시민의 삶이자 평화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 가치** 살아 있는 민주주의를 위한 희망의 목소리
- 인물** 그레타 툰베리, 미래를 위한 기후정의 행동
- 토론** 우리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한 질문
- 활동** 희망의 소용돌이 만들기

함께 읽으면 좋은 책 / 함께 보면 좋은 영화 / 참고하면 좋은 사이트 / 평화를 위한 일상의 실천

## 살아 있는 민주주의를 위한 희망의 목소리

이 세상에는 수많은 ‘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로울 권리가 있고, 각자의 개성에 따라 삶의 양식을 선택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함께 모여 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제도적이고 문화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가치로서 민주주의입니다. 대부분 민주주의를 제도로서는 잘 알고 있지만, 일상 생활에서 실제 쓰이는 삶의 양식이자 가치로서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주적인 삶 혹은 민주시민이란 다수의 의견을 따르되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자세를 갖추는 일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가치이고, 소외된 사람들이 없는지 계속 관심을 갖고 살피는 것이 민주 시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적 가치를 실천하는 시민은 모두 스스로 삶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 바라는 세상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 우리 안에 내재된 힘을 움켜쥐는 것.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첫 번째 삶의 기술입니다. 이 선택을 시작으로 우리는 공동의 논의에 참여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변화를 실천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부터 민주주의 기술을 실천하고 더 이상 스스로를 무력한 피해자로 느끼지 않을 때, 나아가 내 삶의 주인이자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때, 우리는 스스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희망이란 변화의 실천 속에서 솟아나는 삶의 에너지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민주주의 운동가 프란시스 무어 라페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민주주의 기술을 소개합니다. 그녀가 소개하는 기술은 상대방 말을 귀 기울여 듣기, 창조적으로 논쟁하기, 중재하기와 협상하기, 좋은 공동체를 위한 상상력 발휘하기, 공적 대화의 장에 참여하기, 함께 결정하기 등 일상적이지만 우리가 애써 배우지는 않았던 삶의 기술입니다. 그 기술이 잘 적용되고 실천되는 민주주의를 ‘살아 있는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우리 함께 일상에서 살아 있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깨어 있는 시민이 되어 봅시다.



## 선택하기

살아 있는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깨어 있는 시민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시민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인식하고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존재를 뜻합니다. 그러한 시민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무관심하다면, 세상은 더 나아질 수 없습니다. '나'는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동시에 공동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어 있는 민주시민의 삶을 살고자 뜻을 세울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하고 자유로운 사회로 향하는 첫발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 귀 기울여 듣기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어려운 듣기 기술은 말하지 않고 조용히 듣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듣는 것 이상으로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귀 기울여 듣기'에 필요한 한 가지 기술은 다른 사람이 말한 후 잠시 멈추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그 멈춤은 다른 사람의 말이 끝났음을 분명히 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좀 더 사려 깊은 질문이나 균형 있고 침착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함께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공동의 가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마음을 열고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의 존재 자체를 존중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소통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세상 가장 연약한 존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는 가능해질 것입니다.



©Laura Park

## 창조적으로 논쟁하기



©Laura Park

사람들에게 갈등이란 단어를 들려주고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보통 '긴장', '세력 다툼', '더러움', '싸움', '승패', '전쟁', '분노'라고 대답합니다. 이러한 제한된 시각은 의견 대립에 있어서 '싸우거나 피하는' 반응으로 우리를 이끌지요. 갈등을 피하거나 끝장날 때까지 싸우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갈등은 우리에게 더 많은 선택 가능성을 줍니다. 그러므로 갈등은 '승패'의 결과가 아닌, '배움'의 과정입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좋은 사회란 자신이 속한 사회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야만 현재 상태로부터 개선과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논쟁을 통해 갈등을 창조적인 과정으로 바꾸는 일은 토론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 중재하기

중재란 갈등 상황에 있는 두 입장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주는 기술입니다. 다양한 사람이 각자의 의견을 표현하는 상황에서, 최선의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중재가 필요합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대화가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재는 사건에 관계된 사람들 모두가 스스로 충분히 표현할 기회를 가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던 상대에게 마음을 열고,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재는 단순히 갈등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당사자들이 이전과는 다른 관점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대화를 이끕니다.

## 협상하기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공통점은 존재합니다. 그 공통의 영역을 발견하고 넓혀갈 때, 우리는 타협 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협상을 가로막는 한 가지 장애물은 타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 입장을 포기하는 것 같은 느낌 때문이지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주요한 관심사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불필요한 두려움 없이 어떻게 타협할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소통을 포기하지 않고 상대와 끝까지 진지하게 협상에 임한다면, 그 합의는 오래도록 지켜질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협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이 논쟁이 최선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열린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협상이란 내 의사에 대한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다름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 차이를 좁혀야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의견 교환 과정에서 공손함을 유지한다면, 좀 더 현실 가능성이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상의 경험을 통해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앞으로도 더욱 능동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참여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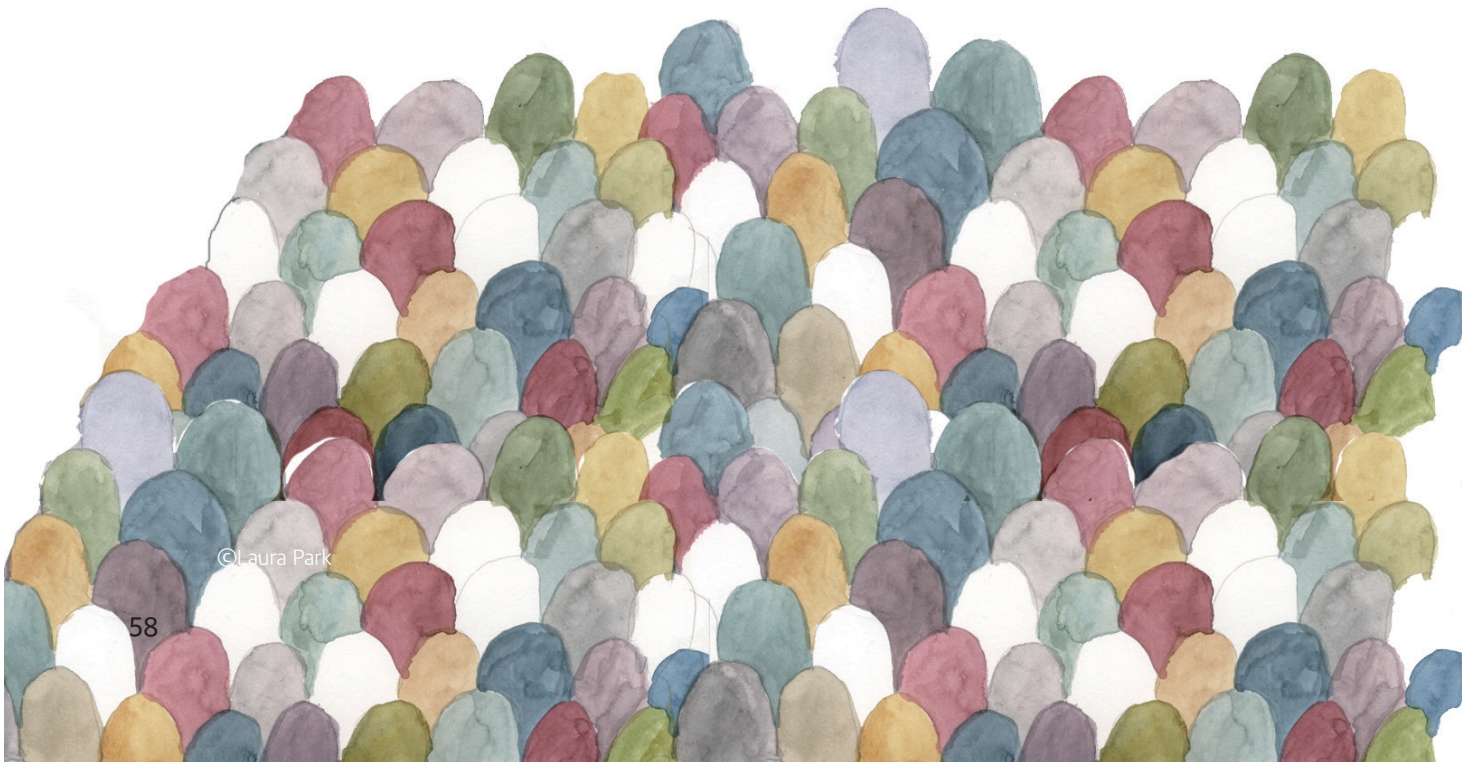
©Laura Park

## 좋은 공동체를 위한 상상력 발휘하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문제가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전쟁으로 대표되는 폭력이 일어나고, 수많은 생명이 멸종 위기에 처할 만큼 환경파괴가 심각해지고,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과 전 세계적 차원의 전염병이 발생하는 등, 삶을 위협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더욱 심해져 갑니다. 과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방법이 있을까요? 쉽지 않지만, 우리가 만들고 싶은 사회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는다면, 그곳에 도착하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공동체를 위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은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굳어진 지금의 모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위해 좋은 공동체를 위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제대로 발휘된다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싶은 세계는 어떤 모습인지 동시에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두 개의 세상을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과 토론해 봅시다.

## 공적 대화에 참여하기

살아 있는 민주주의는 우리와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도 마주하게 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공동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화와 토론을 해야 합니다. 공적 대화란 공동의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공적 대화를 통해 시민들은 각기 다른 관심사를 모으고, 합리적인 결정을 이끌



©Laura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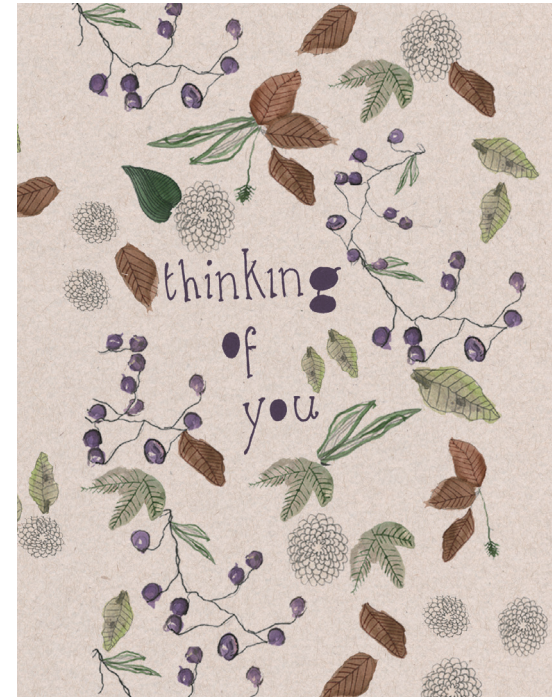
어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공적 대화의 장은 이제껏 말할 기회를 얻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변화를 향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공적인 대화를 통해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하는 이들과 함께할 가능성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 함께 결정하기

민주시민으로서 우리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적 판단이란 공동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비교하고, 무엇이 진정으로 올바른 것인지 함께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결정적 단계입니다. 좋은 공적 판단은 우리 사회에 명백히 드리워진 잘못을 걷어내고, 정의를 향해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공동의 문제에 대해 함께 판단을 내리는 것은 이 사회의 주인으로서 당연한 책임입니다. 그러나 만일 시민들이 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방향을 잃거나, 소수의 권력자가 원하는 쪽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 축하와 감사하기

전 세계적으로 국민이 투표장에서만 주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와 아래에서부터 의견이 모여 올라오는 ‘상향식’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이 모두 직접



©Laura Park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지금 정치 구조로는 어쩔 수 없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미 세계 곳곳에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목소리를 내는 직접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분명 더 나은 사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예상했던 결과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인내와 좌절의 반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순간에도 우리에게 축하와 감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믿고 있는 바를 위해 다른 이들과 함께 노력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을 바라 보고 달려왔는지, 지금부터는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를 꼼꼼히 살피되, 함께하는 사람들과 충분한 기쁨을 나누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힘은 더욱 강해질 것이고, 한층 더 성장할 것입니다.

## 반성과 성찰하기

살아 있는 민주주의 기술을 더욱 잘 실천할 방법은 공적인 활동에 참여한 다음,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계획대로 되었고 또 그렇게 되지 않았는지, 이 활동에 어떤 의미가 있었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배운 것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더 나은 행동은 무엇인지 깊게 탐구해 봅시다. 필리버스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조금 생소한 단어인 ‘필리버스터’는, 다수 정당의 일방적 표결을 막기 위한 소수 정당의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행위를 뜻합니다. 필리버스터는 고대 로마에서 시작되었으며, 근대에 들어 선진 의회주의 국가에서 널리 사용되며 다수결 원칙을 보완하는 상징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진정한 의의는 관련 법안과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습니다. 특정 의원들이 국회에서 ‘연설’하는 형태를 취하지만, 국민에게 해당 문제에 관한 관심과 논의를 촉구하는 엄밀한 의미의 ‘토론’입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를 한 것만으로 민주주의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 불씨를 지켜 가는 것은 시민의 몫입니다. 어떠한 시도가 있었다면, 그것을 돌아보며 우리 사회 평범한 이들의 목소리로 채워지는 무제한 토론이 10시간, 10년, 100년이 넘도록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문화를 통해 우리는 소수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가치로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반성과 성찰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성숙시키고 건강하게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 줄 것입니다.



©Laura Park

## 용기를 나누기

민주주의의 완성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도덕적인 시민으로 거듭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지지와 인정을 받고, 함께한다는 느낌을 나눌 때 사람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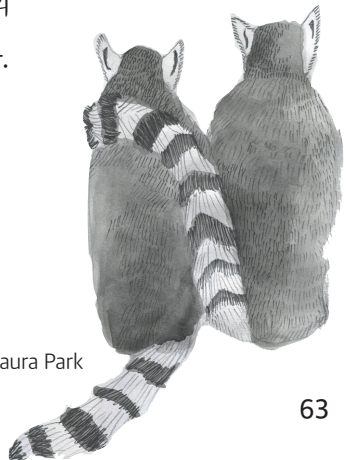
용기를 나누는 민주주의를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로 3·1운동이 있습니다. 일제의 부당한 강제병합에 분노한 시민들은 1919년 3월 1일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2천 회에 이르는 시위를 했고, 무려 200만여 명이 참여(당시 조선 인구 2천만 명)했습니다. 한반도의 주인은 우리 조선 사람이며, 우리는 자유와 평등, 평화를 실현하려는 강렬한 열망이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3·1운동의 시발점에는 민족대표 33인이 함께 고심하여 완성한 문건으로 알려진 ‘독립선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숨겨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민족대표 33인은 너무나 훌륭한 선언서를 써놓고 정치적 파장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탁하는 글을 뜻하는 ‘청원서’라고 발표하려 했습니다. 그러한 선택을 할 만큼 일제의 억압이 얼마나 삼엄했는지 다 가늠하기 어렵지만, 만약 그 글이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하는 글이었다면 과연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만세운동에 나설 열망에 불을 지필 수 있었을까요?

청원이라 하기에 부족함을 느꼈던 독립운동가 임규는 마지막으로 일본에 전달하는 과정에 자신의 결단으로 ‘독립선언서’라고 제목을 써버립니다. 그 이후 독립선언서는 수많은 ‘임규’에 의해 퍼져갑니다. 어떤 학생은 손으로 써서, 어떤 노동자는 자비를 들여 인쇄해서, 그 외에 수많은 사람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각자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정말 목숨을 걸고 만세운동을 기획하고, 전달하고, 실행합니다.

그러므로 3·1운동은 용기를 기획하고 전파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민주적 기획입니다. 그들을 움직인 힘은 다름 아니라 전 세계의 양심에 대한 믿음이었고, 자유와 평화에 대한 강력한 염원이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의 변화는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세상에 대한 꿈을 나누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용기를 내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mr & mrs



©Laura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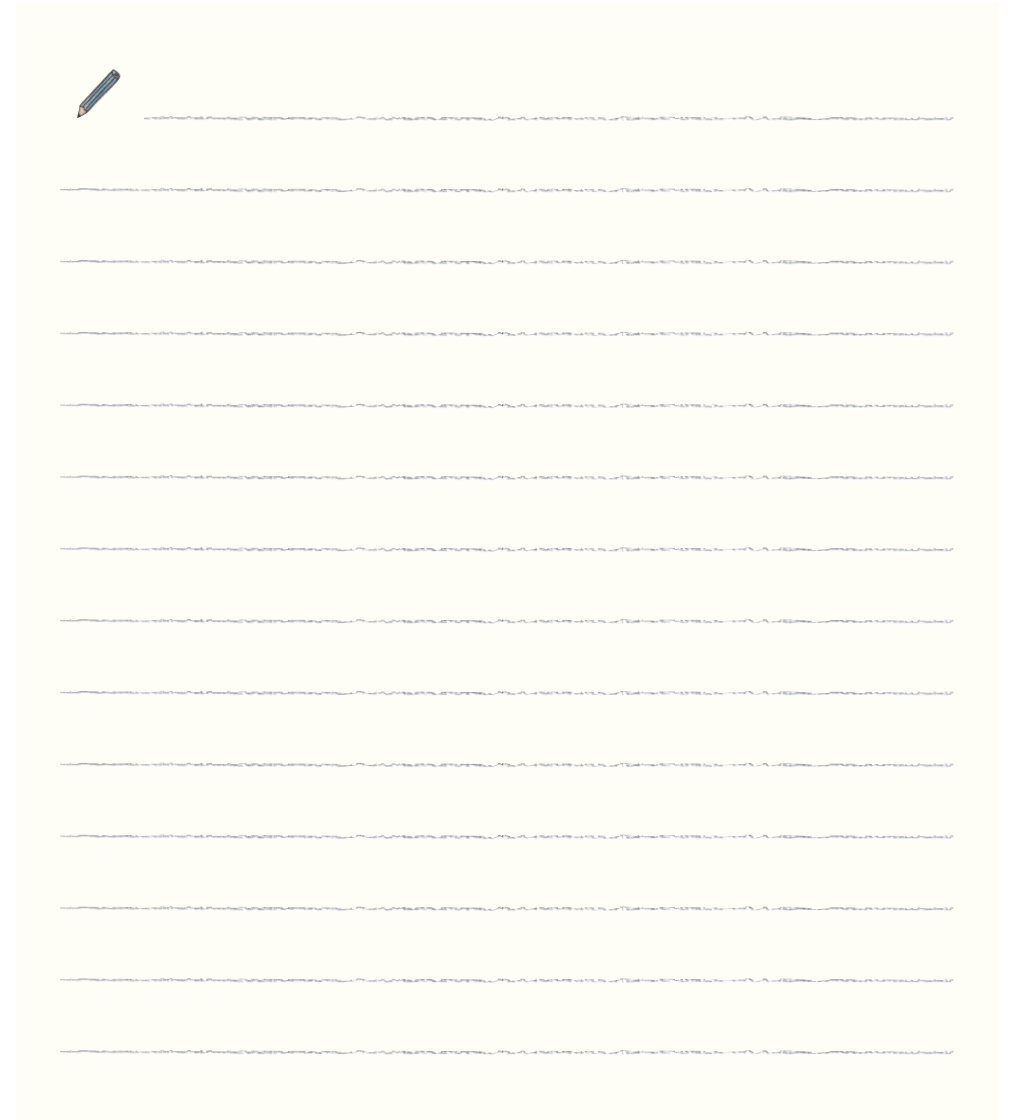


## 희망하기

한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공적 영역을 ‘공론장’이라고 부릅니다. 공론장이 활성화될 때 시민사회가 성숙하고, 사회는 변화합니다. 특히 이런 공론장은 기존의 시스템이나 제도, 법 등의 구조적인 문제에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며 저항할 때 폭발적으로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분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분노를 넘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공부하고 또 함께 소통해야 합니다. 정의로운 세상은 결코 그냥 오지 않으며, 소수에 의해서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잘못되고 공정하지 못한 일’을 함께 고쳐 나가는 공론장을 열고, 이를 통해 희망의 마음이 조금씩이라도 모일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한 세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 있는 민주주의는 나의 삶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해 세계를 변화시키겠다는 큰 꿈과 희망의 기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실천으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내면에 존재하는 공감과 협력, 평등과 공정함에 대한 깊은 갈망에 용기를 불어넣어 삶 자체를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어 봅시다. 희망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관념이 아니라 변화하는 행동입니다. 즉, 희망이란 끊임없이 공동의 문제에 함께 참여해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는 살아 있는 민주시민 그 자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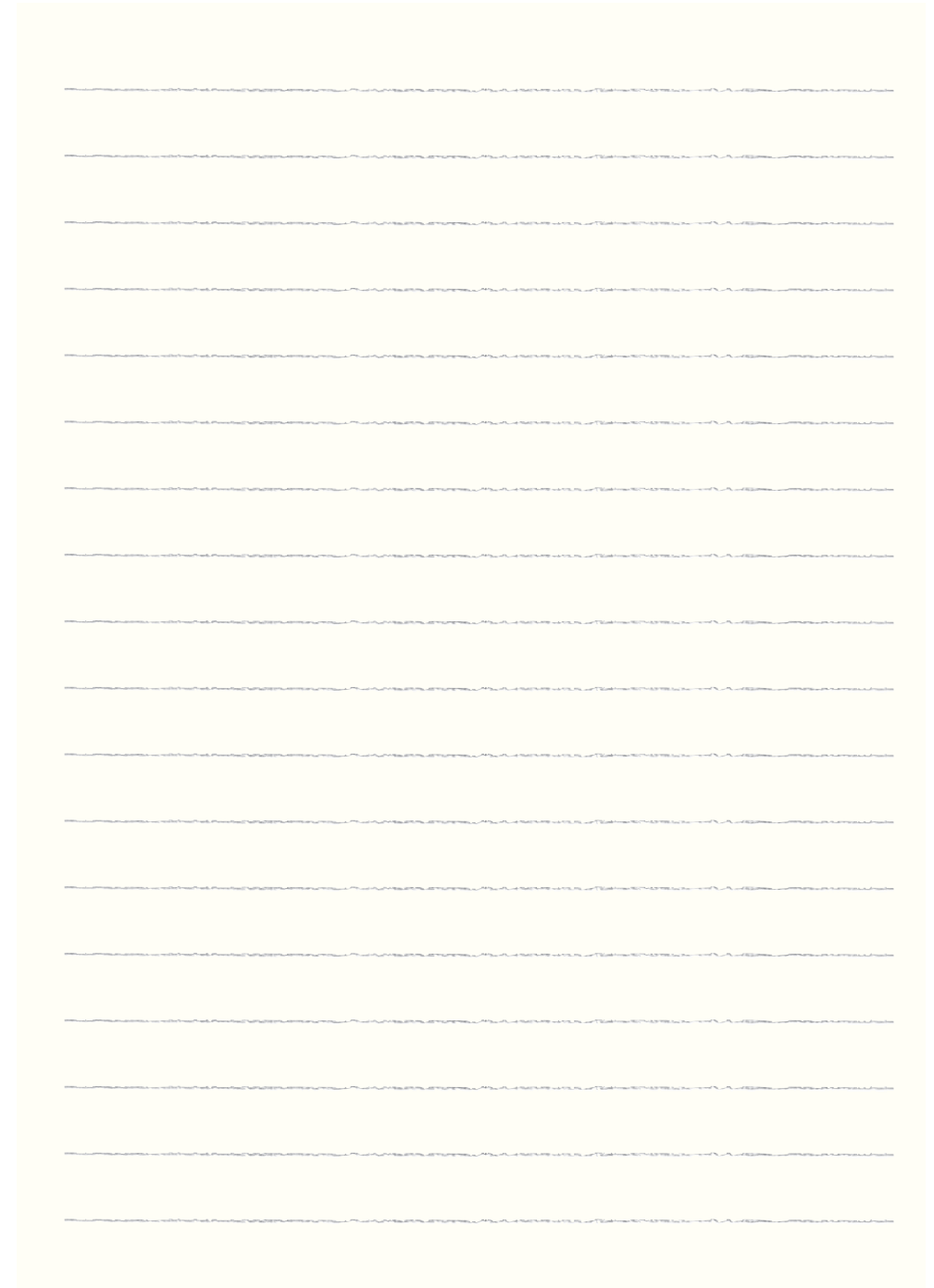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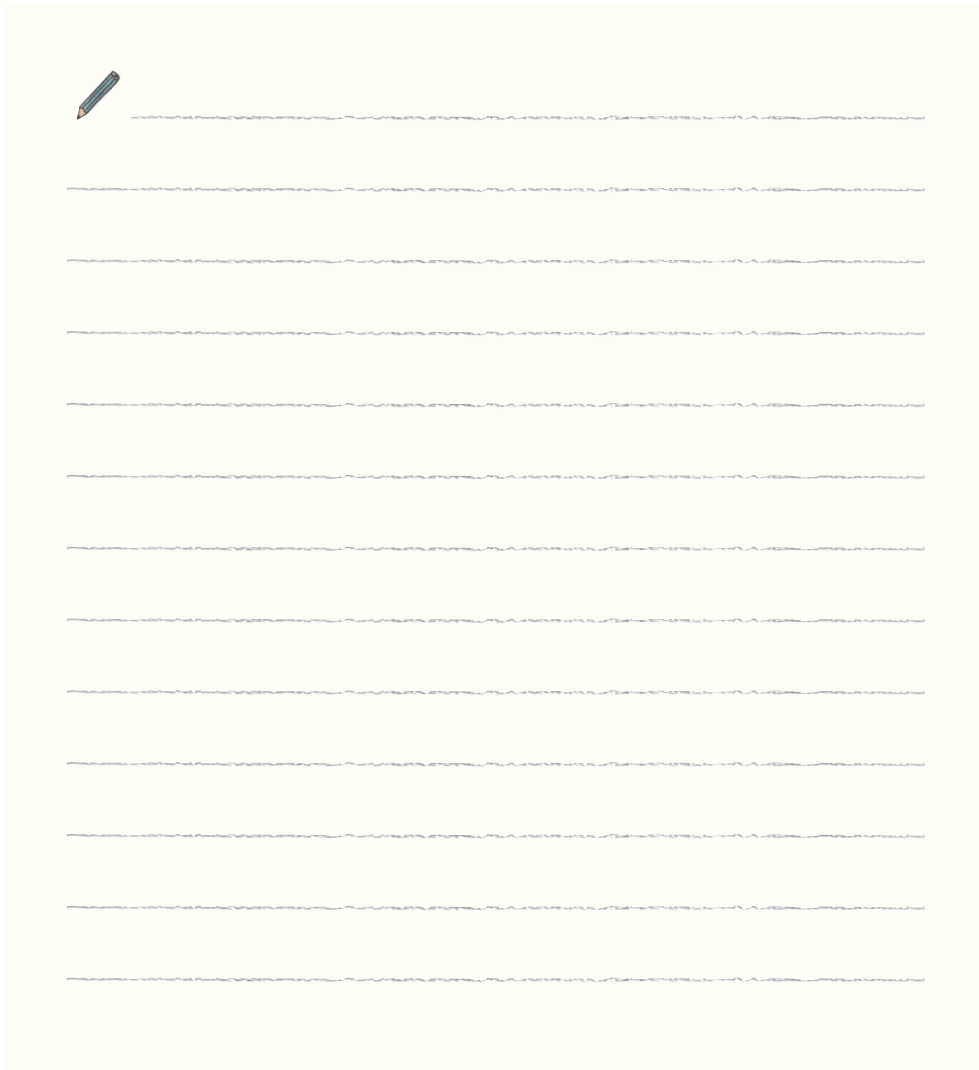
## 질문

민주주의는 딱딱하고 추상적인 체제가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꾸준히 실천해나가는 역동적인 삶의 기술입니다. 살아 있는 민주주의의 실천이 가장 필요한 때는 언제인가요? 앞의 글에서 제시한 민주주의의 기술 중 몇 가지를 골라 보고, 해결하고 싶은 상황에 적용해 보세요.



실천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싸움이 과연 정말로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수많은 뉴스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싸울 필요가 없는데 싸우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 보고, 반면에 반드시 싸워야 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도 찾아 보세요. 나아가 우리 시대에 내가 정의를 지키기 위해 맞서서 싸워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지 생각하여 적어 봅시다.



인물

## 그레타 툰베리, 미래를 위한 기후정의 행동

2019년 <타임>에서 뽑은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등교 거부 운동을 시작한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입니다. 그레타는 여덟 살 때 학교에서 해양오염에 관한 영상을 보고, 인간이 버린 쓰레기로 지구가 겪고 있는 끔찍한 고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구 환경의 위기를 위기로 생각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에 더 큰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만 말을 하는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병까지 얻었습니다. 세상의 고통을 자신의 온몸으로 느끼던 그레타는 마침내, 이를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합니다. 2018년 8월 20일, 스웨덴 스톡홀름 의회 건물 앞에 나와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전 세계 2천만 명에 가까운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에 공감하여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이름으로 그레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받고 소외된 존재를 위해 노력하는 또 한 명의 소녀가 있습니다. 2014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말랄라 유사프자이입니다. 말랄라가 태어난 파키스탄은 1억 9천만 명 전체 인구의 97%가 이슬람 신자인 나라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슬람 경전을 우선시하는 근본주의자들에 의해 여성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여성들은 계절에 관계없이 몸과 얼굴 대부분을 '부르카'로 가려야 합니다. 자칫하면 옷을 잘못 입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 여성들은 자유롭게 사회 활동을 하거나 교육을 받지도 못하고, 결혼 상대를 마음대로 정할 수도



그레타 툰베리는 기후위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8월 20일, 거리로 나섰다.

없습니다. 말랄라는 10살 때부터 파키스탄 여성의 교육과 평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녀는 주어진 삶에 순응하지 않고 용감히 바꾸어나가길 선택했습니다. 방송사에 나가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국제 회의에서 연설도 하는 등 파키스탄 여성들이 처한 부당한 상황에 대한 자신의 뜻을 마을에, 도시에, 나라에, 전 세계에 용감히 알렸습니다.

그레타 툰베리와 말랄라 유사프자이, 그리고 이들의 실천에 동참하는 청소년은 모두 훌륭한 시민입니다. 나의 좋음이 세계의 옳음에 가닿기를 바라기 때문이고, 그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민주적이면서도 강력한 방식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청소년들은 문제의 해결책이 기성세대가 올바른 법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지구가 겪고 있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세계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이들은 새로운 윤리적 세대입니다.



그레타 툰베리와 전 세계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금요일' 집회

## 그레타 툰베리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 - 그레타 툰베리의 연설

“제가 여덟 살 때, 처음으로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문제들은 우리 인간 삶의 방식 때문에 생겨난 것들이죠.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게 우리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나쁜 거라면서 어쩌서 우리는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왜 어떤 규제도 없나요? 왜 법은 이를 허용하는 건가요? 우리 모두의 미래가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누구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저라도 무엇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거리로 나와 스웨덴 의회 앞에 앉았고, 학교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첫째 날,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둘째 날이 되자 사람들이 저와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몇 명이 단지 학교에 몇 주 가지 않는 것만으로 전 세계의 신문 1면을 차지했다면,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무언가를 위해 모두 함께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해보세요.

정치적으로 무엇이 가능한지 고민하기에 앞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으면 희망은 없습니다. 위기를 위기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화석연료를 땅에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공정한지 고민해야 합니다. 기존의 구조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면, 과감하게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재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주의하며 정중하게 예를 갖춰 말할 시간은 지났습니다. 이제는 분명하게 말해야 할 때입니다.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것은 인간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위대하고 어려운 도전입니다.

저는 제가 느끼는 것처럼 어른들도 매일 두려움을 느끼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행동하기를, 위기에 처한 것처럼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난 것처럼 행동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명해지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기후정의와 우리가 살아갈 행성에 대해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버는 기회를 위해 우리의 문명은 희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지도자들에게 우리를 보살피달라고 구걸하기 위해 온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제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변화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시민인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인디고 서원 주최 '2012 유엔 평화 컨퍼런스' 연사로 참여한 그린 디자이너 윤호섭

## Everyday Earthday

그레타 툰베리와 같은 목소리를 내는 ‘영원한 소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그린 디자이너 윤호섭인데요. 윤호섭은 대한민국의 1호 그린 디자이너로 불리며 환경과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왔습니다. 원래 윤호섭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광고 디자이너였는데요. 국제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아서 86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 세계 잼버리 대회 등 각종 국제 행사의 디자인에도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환경 문제를 직시한 후, 경쟁과 이윤을 추구하는 디자이너가 아니라 공존과 공생을 추구하는 그린 디자이너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윤호섭 디자이너는 헌 티셔츠를 가져오면 친환경 페인트로 멸종 동물 등 생태환경의 메시지가 담긴 그림을 그려주는 ‘인사동 티셔츠 퍼포먼스’를 2002년부터 꾸준히 해오고

있고, 국내 최초로 대학원에 ‘그린 디자인’ 학과를 개설해서 본격적으로 디자인에서 환경 문제를 다루고 생태적 감수성을 가진 디자이너들을 길러냈습니다. 윤호섭은 작품만이 아니라 삶으로 생태적인 실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옷을 사지 않고, 차도 폐기했습니다. 심지어 냉장고와 에어컨도 사용하지 않고, 샴푸와 비누를 적게 쓰기 위해 머리도 짧게 잘랐다고 합니다. 윤호섭 디자이너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건 다름 아닌 아이들입니다. 기성세대가 지구를 오염시킨 것이 미래 세대에게 너무나도 미안하다고 말하는 윤호섭은,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직접 찾아가서 만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이 평화 워크북의 표지가 바로 윤호섭의 작품인데요. <새해 카드(new millennium card)>라는 작품으로, 새 천년을 맞이하던 1999년에 그린 작품입니다. 사랑으로 새 천년을 전망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여기서 하트는 대량생산, 판매, 소비, 폐기의 악순환 속에 자원이 낭비되고 생태계가 파괴되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착한 마음으로 모든 이를 사랑하고, 약자를 돕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푸른 생각의 씨앗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평화는 모든 존재를 향한 초록빛의 사랑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작품과 교육철학, 그리고 온 삶으로 공존, 공감, 공생을 실천하고 있는 그린 디자이너 윤호섭. 그런 윤호섭을 만나 우리 시대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왜 공생의 가치가 중요한지, 또한 다가오는 미래에 새로운 세대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인디고** 생태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특히 오늘날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생긴 기후위기를 비롯해서 생물 다양성의 감소와 해양 오염 등은 생명 그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는데요. 선생님께서 디자이너로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삶에서 공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윤호섭** 디자이너란 인간과 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예요.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인간이 많은 물건을 만들어서 편리하게 사용하면 생활은 편해지지만 그것이 인류

전체에게는 손해이자 에너지 낭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지구에 살면서 환경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매일매일이 지구의 날(everyday earthday)”이라는 말처럼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매일매일 생명과 환경을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초록색 물감은 천연물감입니다. 초록색은 엽록소, 그러니까 자연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또 가장 붓이 잘 나가고 그림이 부드럽게 그려지는 물감이기도 합니다. 사실 작업하다가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해도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낄 때면 회의감이 들기도 해요. 예를 들면 산호초가 반 이상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예요. 그 말은 바닷속에 산소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반 이상이 죽으면 스스로 회복이 안 된다고 합니다. 바다가 생명을 잃은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없잖아, 미안”하고 잊어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것으로 제가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돼요.

제가 소뿔을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고 있을 때였어요. 뿔들을 삶았는데, 속에서 뿔이 하나 더 나왔어요. 그걸 집 마당에 있는 퇴비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비닐로 덮어놓았는데, 이틀 사흘이 지나니 그 전체가 구더기가 됐어요. 섬뜩했습니다. ‘이런 작업을 왜 내가 하고 있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그 구더기가 다 파리가 됐어요. 처음 보는 파리였어요. 까맣고 아주 착하고 귀엽게 생겼습니다. 세상에 갓 태어난 어수룩한 생명체였어요. 그 파리들을 보며, ‘내가 구더기를 혐오했다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혐오스럽다고 생각했던 구더기였는데 이렇게 까맣고 귀여운 파리가 되었다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많은 것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전 지구적이고 보편적인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아이들에게 자유로운 시간을 줘야 합니다. 몇몇 부모님들은 아이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모든 것을 정해줍니다. 나가는 시간도, 있을 장소도, 해야 하는 학업 같은 것도 말이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숲에 가고, 흙을 만지고 노는 거예요. 아이들이 해님과 별님과 달님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흰 옷에 그림을 그려줄 때 그런 것들을 그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윤호섭 그린 디자이너가 흰 티셔츠에 그려준 돌고래 그림

**인디고** 공존, 공감, 공생하는 세상을 꿈꾸고 평화롭고 정의로운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은 청소년이 꼭 갖춰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윤호섭** 지구에 함께 사는 것은 모두 존귀한 ‘나’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는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청소년들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저의 작품 <더 이상 핵 발전소는 안 된다(no more nuclear power plants)>는 태아 사진과 지구 사진을 활용해 핵 발전 마크를 형상화하고, 전 세계 핵 발전소 개수가 적혀 있습니다. 이 작품은 한 가지 질문 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다음 세대가 ‘그때 핵 발전이 아닌 다른 대안이 전혀 없었나요?’라고 물어온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핵 발전의 위협으로 고통받을 다음 세대가 핵 발전을 세운 세대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미안하다는 말밖 에는 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세대가 겪을 비극적 결과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무엇 인지 항상 물어봐야 합니다. 그 질문은 우리가 항상 최상으로 유익한 일을 하며 약자를 보살피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런 순간이 모여 평화를 실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방아쇠 없는 총> ©윤호섭

**인디고** 지금 청소년 세대는 가장 윤리적일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최초의 세대입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교육을 받은 세대이며, 가장 다양한 문화에 열려 있는 세대입니다. 또한 내가 하는 행위가 지구 반대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화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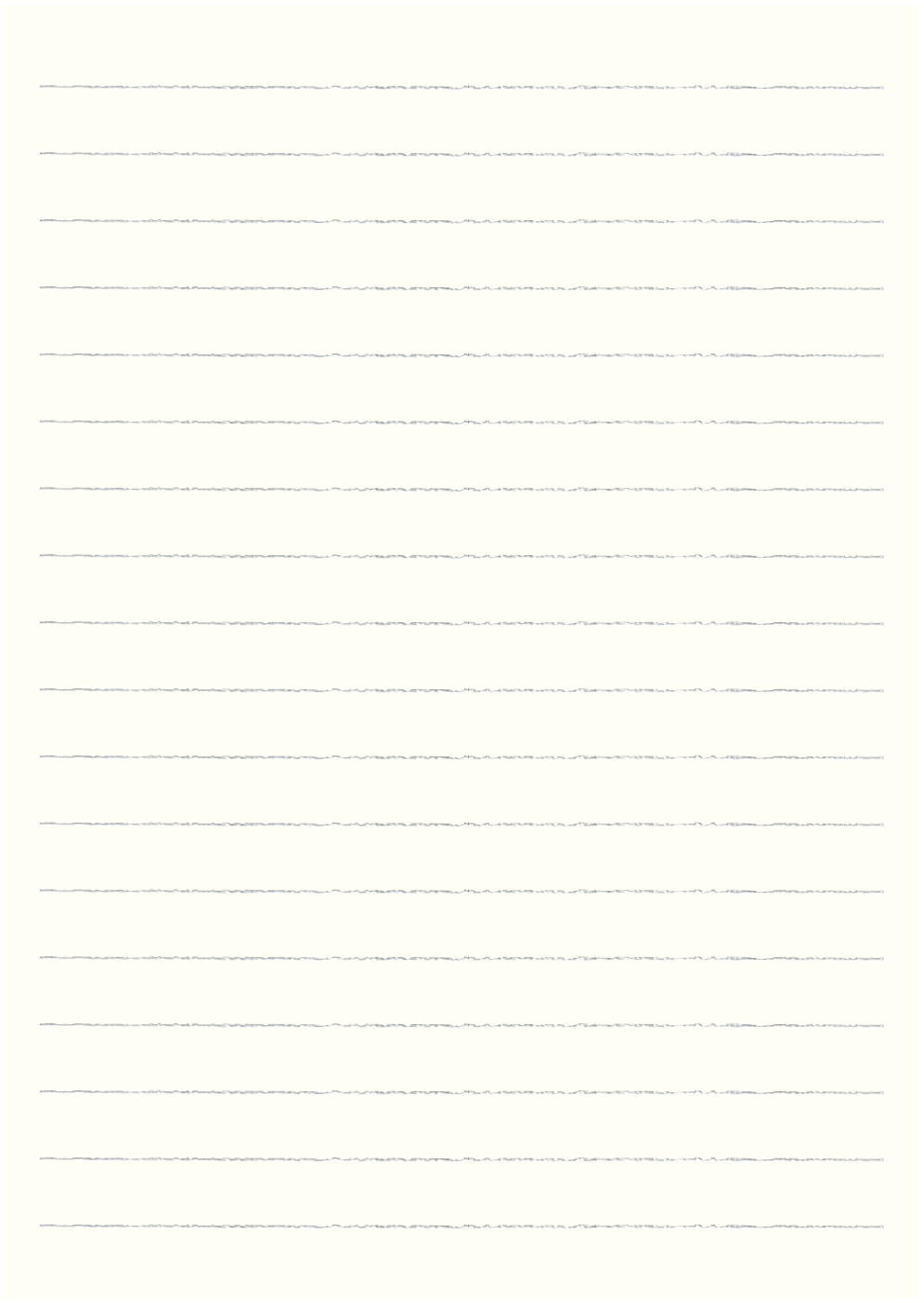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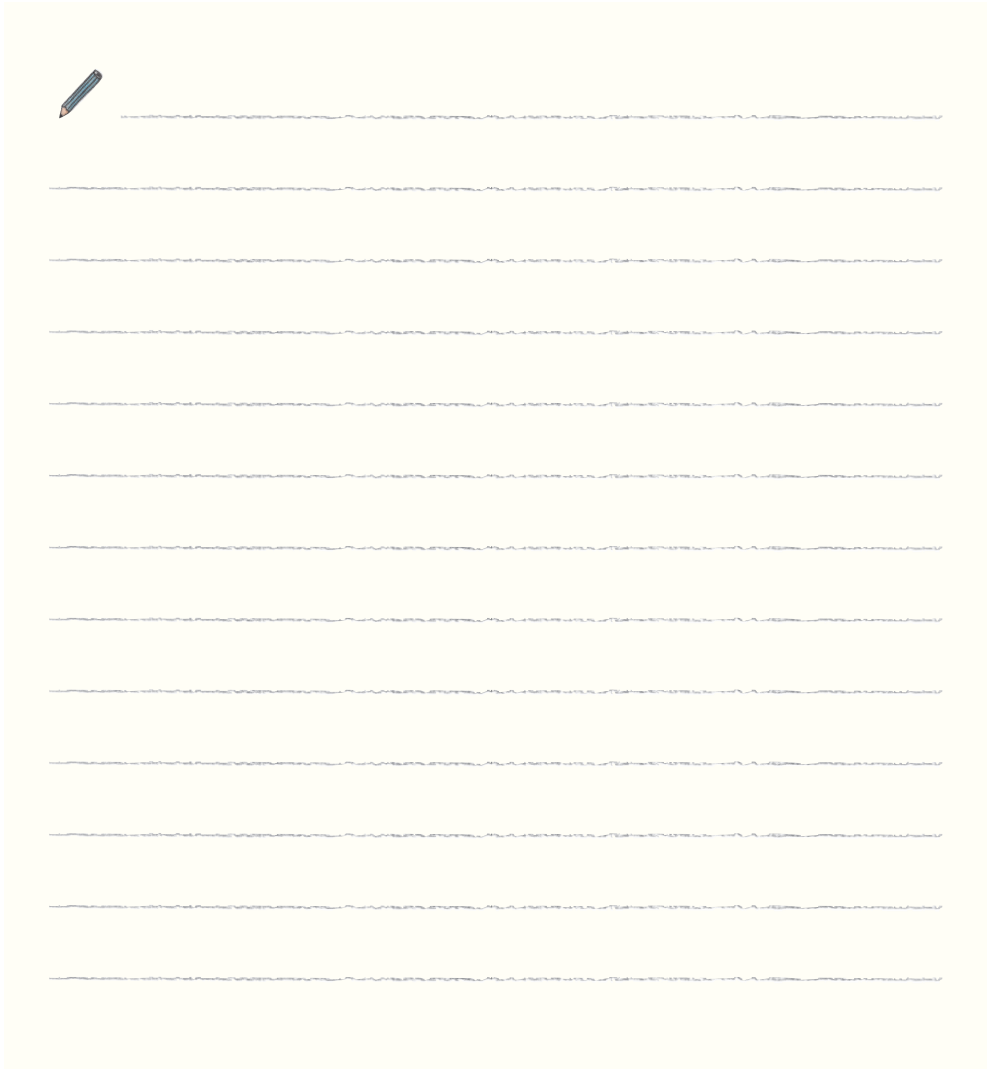
**윤호섭**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행성에 산다는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항상 절약하고 아끼며, 주위를 배려하는 기본적인 미덕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젊은 세대가 너무 경쟁에 내몰리면 안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결국 낙오되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저는 돈과 명예, 성취를 강요하는 사회를 만들어 온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다음 세대한테 미안한 감정을 늘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갚고자 디자이너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는 다음 세대한테 넘긴다고 해결될 것들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 사람은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청소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 있는 세대가 되세요. 물론 저도 잘못하고 있지만, 항상 순간순간 ‘아, 이렇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자존심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누군가를 앞서 있는 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뒤쳐져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인 입장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에 항상 옆에 있는 사람들 입장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힘을 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을까?’, ‘내가 그 사람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거울을 보고 내 눈이 어떤 눈인지를 보세요. 내가 한쪽만 보고 있지 않은지, 편견이 있지 않은지 말이지요. 저는 여러분이 앞에 놓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세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인 여러분에게 앞으로 기대가 큼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질문

그레타 툰베리가 언론, 국제 회의, 강연 등에서 세계를 향해 던진 메시지가 많습니다. 인터넷 뉴스, 영상, 사진 자료를 검색해 보며, 그레타 툰베리의 말 중 가장 멋지고 공감이가며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문장을 뽑아 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나의 친구나 가족에게 그레타 툰베리의 이야기를 전해 봅시다. 그레타 툰베리를 잘 모른다면, 여러분이 친절히 소개해주는 것도 좋겠지요? 소개하면서 느낀 점과 소개받은 사람의 반응도 이야기해 주세요.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되면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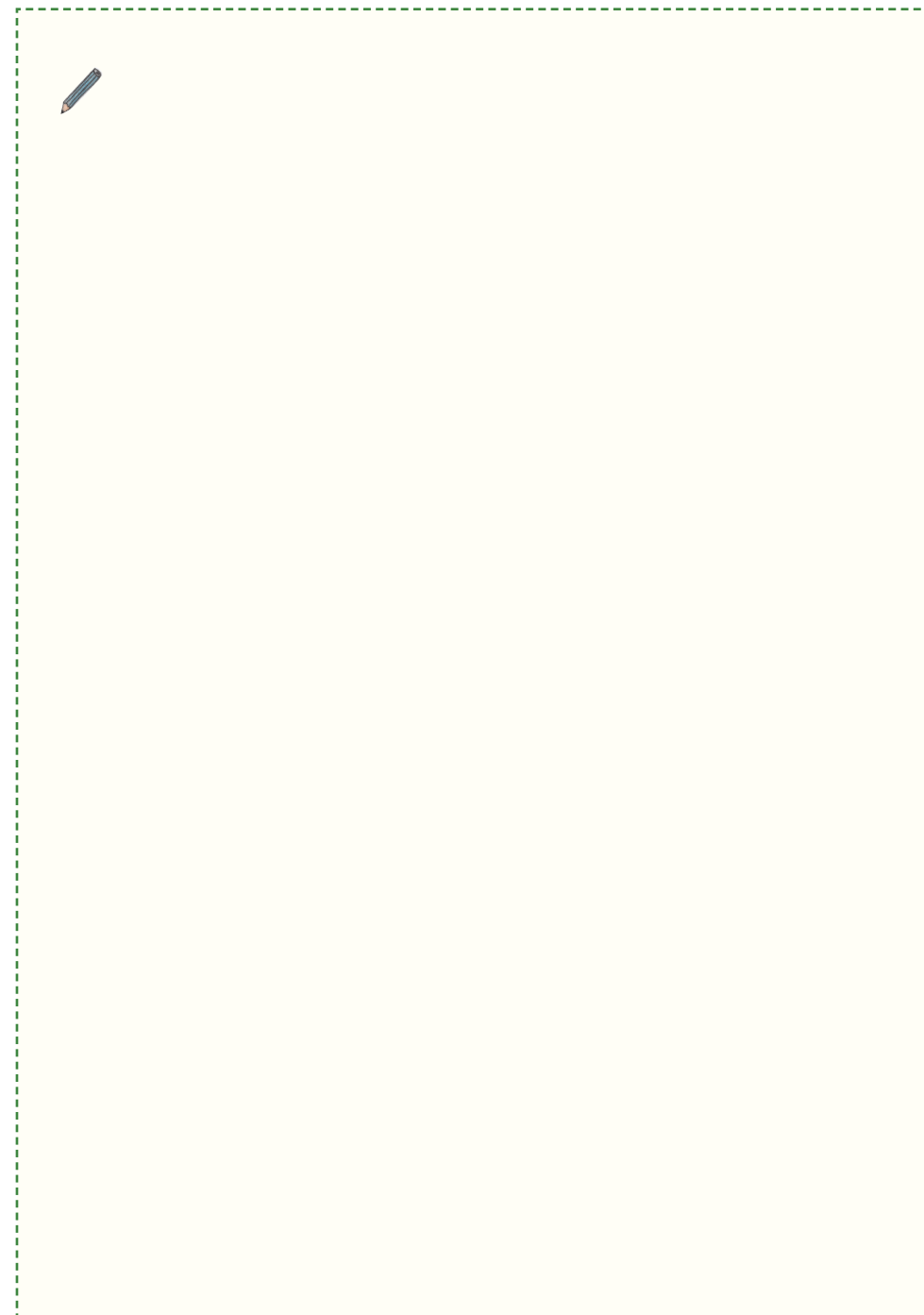




실천

해시태그(#)에 대해 아시나요? 해시태그를 달고 어떤 단어를 쓰면 그 단어가 검색이 되는 기능이에요. SNS를 많이 사용하는 요즘, 해시태그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연결되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레타 툰베리와 많은 청소년이 함께하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도 하나의 해시태그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전 세계의 시민들과 함께 만들고 싶은 사회 변화는 무엇인지 생각하며 재미있는 해시태그 운동을 만들어 보세요!



토론

## 우리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한 질문



“왜 초등학교에는 여자 선생님이 많을까?” 이런 의문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점점 초등학교에는 여자 선생님이 많아지고, 교장, 교감 선생님이 대부분 여자분입니다. 그러고 보니 그렇다고 느껴지거나, 궁금해 본 적이 있지만, 그에 대한 이유를 분석한 적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초등학교에 여자 선생님이 많은 이유가 남녀차별의 증거라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여성으로서 차별 없이 실력으로 진입하여 안정적인 승진이 가능한 유일한 직업군이 ‘초등학교 교사’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은 설득력 있고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1등에게 박수 치는 게 왜 놀랄 일일까?』에서 저자 오찬호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의 여러 모습에 의문을 던져보는 것이 ‘사회학’이라 말합니다. 비판적인 시각을 통해 익숙하게 여겼던 것들 중 문제가 있거나 정의롭지 못한 것들을 고쳐나가는 것이 바로 좋은 삶입니다.

책 속에는 “노숙자들은 왜 술을 많이 마실까?”, “왕따를 당하는 아이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중2병은 정말 나쁜 것일까?” 등의 질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좀 더 정의롭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질문을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봅시다.

### “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할까?”

나와 다른 사람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인데, 우리는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할까요? 우리 교육에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성적을 등수로 매깁니다. 등수 상위권인 아이들은 ‘모범생’이 되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질타를 받습니다. 자기 성적이 지난 시험보다 더 좋아졌다면 더 잘한 것인데, 왜 다른 친구보다 성적이 좋아야 잘했다고 할까요?

우리는 계속 비교를 하면서 내가 더 잘난 점, 다른 사람이 더 잘난 점을 따지면서 위안을 얻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합니다. 웃을 입을 때에도 자신이 좋아하는 웃을 입지 않고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웃, 남들에게 인정받는 웃을 입습니다.

©Alastair Magnaldo

우리는 항상 나 중심이 아닌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남이 어떤지 보고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비교가 공동체 생활을 나쁜 쪽으로 기울게 한다면 어떤가요? 우리에게 필요한 비교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 “왜 우리는 겉으로만 사람을 판단할까?”

지나가는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의 화장은 어떻고, 옷은 또 이렇다며 품평 하듯 말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 의미가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그 사람은 그런 평가를 들을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단지 몇 초 본 사람에게는 더더욱 말이죠.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그런 말을 듣고 그 의미가 긍정적이라면 오히려 기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평가에 익숙해져서 서로를 존중 하고 배려하는 말과 행동에 점점 무심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거나 외모 순위를 매기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누구도 물건 대하듯 평가해서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누군가는 나에게 잘해 주기에 1위고, 누군가는 나와 같이 오랜 시간을 있어 주지 않고,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2위라고 품평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자면,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사는지, 무엇을 잘하는지도 전혀 모른 채로 서로에게 순위를 매기고, 그로 인해 무시 하거나 치켜세워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의 관심만 가지고 들여다본다면, 그 사람의 내면에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외면만을 중요시하고 내면을 잘 보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입버릇같이 말

하는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좋다는 것과 모순되게 말이죠. 결국 이런 사회 에서 우리는 외면을 더 중요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 그치지 말고 나아가 내면이 더 중요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야 할까요?

### “윤리는 왜 ‘대세’가 되지 못하나?”

세상에는 유행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연예인의 SNS에서 시작될 수도 있고,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른 채로 인터넷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윤리적이고 세상에 꼭 필요한 메시지는 사회의 ‘대세’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윤리가 유행이 된다는 말 자체에 모순이 있습니다. 윤리는 유행처럼 쉽고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금방 스쳐 지나가서도 안 되는 진지한 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사회의 분위기가 개인과 타인에 대한 혐오를 향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회의 부조리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 진지한 것 아니냐’는 반응과 ‘모든 것을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인간’이라는 식으로 여기는 분위기 또한 무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물어야 합니다. 불평등과 부조리의 시작은 도대체 어디 인지,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바꾸어나갈 수 있을지를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끈질기게 놓지 않아야 할 질문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정의롭고, 선하고, 옳은 것을 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질문

우리는 살면서 세상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왜 착하게 살아야 하는가?”, “공부는 왜 해야 하는가?”, “왕따를 당하는 아이에게도 책임이 있는가?”,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다수결은 늘 옳은 것인가?” 등 크고 작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꼭 답을 구하고 싶은 질문들을 써 보세요. 그 질문을 누구에게 해보면 좋을지도 생각해 보고,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다면 해 봅시다.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a pencil icon and horizontal lines.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lines.

실천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 각국에서 동양인이 인종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며, 한국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날 인종주의는 피부색뿐만 아니라 국적과 민족, 언어, 신체적 특징, 성적 지향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차이'가 '차별'이 될 때 무수히 많은 폭력이 발생해왔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차별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 지구상에서 인종주의가 완전히 없어지는 날을 꿈꾸며 여러분이 손을 잡아주고 싶은 이들이 누구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그들에 대한 차별의 인식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실제 실행되었던 사례(공익광고, 캠페인, 포스터, 영화 등)를 찾아봐도 좋겠지요?



\*예시

엠네스티에서 진행한 <경계를 넘어 보기(Look Beyond Borders)> 프로젝트. 4분 동안 눈을 마주 보면 친밀도가 상승한다는 심리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기획된 것으로, 유럽의 일반 시민들이 다양한 국가 출신의 난민들과 눈을 마주 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낯설기에 서로를 경계했던 초반부와는 달리, 4분의 눈 맞춤 이후에는 서로의 일상을 물으며 공통적으로 가진 고통, 슬픔, 기쁨, 행복의 감정을 공유합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마주한 사람이 나와 같은 인간임을 확인한 후, 그 어떤 것도 장벽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A large yellow rectangular area containing a pencil icon at the top left and several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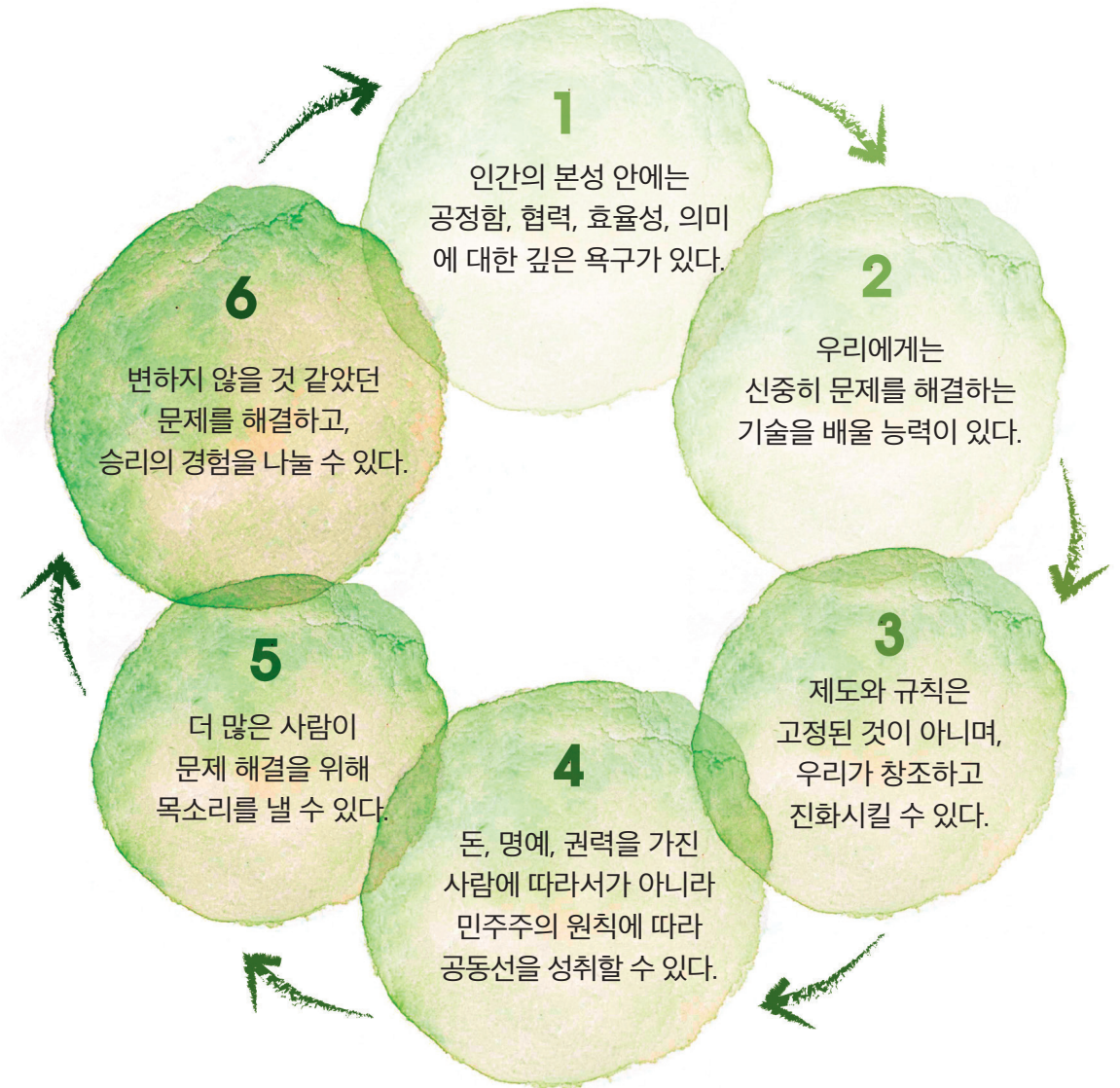
## 희망의 소용돌이 만들기

### 희망의 소용돌이

미국의 민주주의 운동가 프란시스 무어 라페는 무력함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것을 경계 하라고 말합니다. 살아 있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깨어 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 무력함의 소용돌이를 깨트리고 희망의 소용돌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무력함의 소용돌이의 전제는 인간의 선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소용돌이에서 인간은 이기적이고 경쟁적이며 물질적 이익만을 좇는 존재입니다. 서로 협력하거나 공동선을 도모할 수 없다고 믿는 것이지요. 인간이 이런 존재라고 믿기 시작하면, 강압적인 법과 제도만이 사회를 지탱하게 됩니다. 부는 한쪽으로 집중되고, 이로 인해서 올바른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공포와 절망감, 폭력이 퍼지고 경쟁과 소비주의는 강화됩니다.

그럼 이 무력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라페는 무력함의 소용돌이를 희망의 소용돌이로 바꾸는 것은 간단하다고 말합니다. 바로 인간의 선택이 충분하다고 전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의 전환은 인간이 공정하게 판단하고 효율성과 의미를 추구하며,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민주주의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시장은 인간 삶에 봉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며, 정치는 사람들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자연을 보호합니다. 희망의 소용돌이를 통해 우리는 선한 권력과 연대감, 희망이 증대되는 경험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해 전 지구적 위기를 해결 하기 위해 인류는 진보하고, 그 결과 우리는 더 큰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깨어 있는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 깨트리고 싶은 무기력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끊고 새로운 희망의 소용돌이를 만들어 보세요.





우리가 만드는 희망의 손길들이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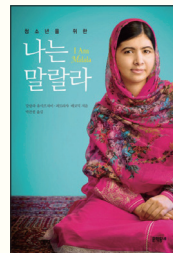


### 그레타 툰베리의 금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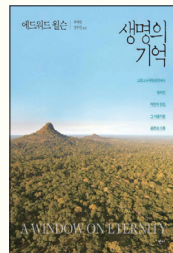
그레타 툰베리 외 지음 / 고영아 옮김 / 책담 / 2019

전 세계 기후위기 대응행동을 이끌어내고 있는 그레타 툰베리. 그녀가 2018년 8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등교 거부' 운동을 시작한 이후, 전 세계 젊은 세대가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이름으로 연대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진실과 사실을 말하고 있고, 그것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오롯이 정치와 시민사회의 힘이라고 그레타 툰베리는 말합니다. 그레타와 지구를 살리기 위해 함께해온 그녀의 가족이 어떤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책을 통해 우리도 그 운동에 열른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 더 읽어 볼 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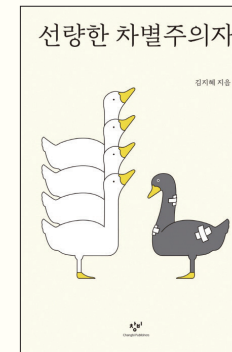
『나는 말랄라』 / 말랄라 유사프자이 지음 / 박찬원 옮김 / 문학동네 / 2014



『생명의 기억』 / 에드워드 월슨 지음 / 최재천 옮김 / 반니 / 2016



『크리스 조던』 / 인디고 서원 지음 / 인디고 서원 / 2019



### 선량한 차별주의자

김지혜 지음 / 창비 / 2019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언어 중 우리도 모르게 차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선택을 잘 못하는 우유부단한 성격의 사람을 '결정장애'라고 부르거나, 이주민에게 "한국인이 다 되었네요"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악해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선하고자 하는 마음과는 다르게 잘 몰라서, 알려고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이 많습니다. 선량한 마음만으로는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되지 않기 위해 익숙한 것을 넘어 다른 세상을 상상해야 함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 더 읽어 볼 책 .....



『1등에게 박수치는 게 왜 놀랄 일일까?』 / 오찬호 지음 / 나무를심는사람들 / 2017



『나만 잘 살면 왜 안 돼요?』 / 이치훈, 신방실 지음 / 북트리거 / 2019



『인디고 서원에서 공생의 책읽기』 / 인디고 서원 지음 / 궁리 /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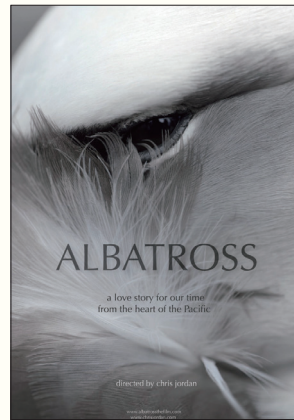


## 함께 보면 좋은 영화

### 알바트로스

크리스 조던 / 미국 / 2017

미국 사진작가이자 다큐멘터리 감독 크리스 조던은 태평양 한 가운데 모든 육지로부터 3천km 이상 떨어진 미드웨이섬에서 인간이 버린 쓰레기로 죽어가는 알바트로스를 카메라에 담습니다. 죽은 새의 배 속에는 플라스틱들이 가득합니다. 인간이 저지른 잔인한 결과에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눈물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영화에서 감독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질문과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상상력을 말합니다. 공생의 삶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 함께 생각해 봅시다

1. 크리스 조던의 사진 혹은 영상을 직접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뱃속에 가득 플라스틱이 들어찬 채 죽어간 알바트로스를 비롯하여, 우리 시대의 무분별한 소비가 낳은 비극을 담은 여러 작품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인상이 깊은 작품을 골라 보고 그에 대한 느낌을 써 봅시다.
2. 크리스 조던 감독은 “시대의 현실을 직시할 용기가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직시해야 하는 시대의 현실은 무엇인가요? 또한 그런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과 세계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생각하여 써 봅시다.

### 우리들

윤가은 / 한국 / 2016

학교에서 따돌림당해 언제나 혼자였던 ‘선’은 모두가 떠나고 홀로 교실에 남아 있던 방학식 날에 전학생 ‘지아’를 만납니다. 둘은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면서 둘도 없이 가까운 친구가 되어 함께 생애 가장 행복한 방학을 보냅니다. 하지만 개학하자 지아는 선에게 차가운 얼굴을 하고, 선을 따돌리는 ‘보라’의 편에 섭니다. 다시 혼자가 되고 싶지 않은 선과 더 많은 친구를 사귀려는 지아, 그리고 그에 무관심하거나 지나치게 참견하는 친구들. 사랑, 우정, 질투, 미움 등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느끼게 되는 복잡한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그려내며 ‘우리’의 의미를 질문하는 영화입니다.



### 함께 생각해 봅시다

1. 영화는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아주 섬세하게 표현합니다. 영화에서 여러분과 가장 닮은 등장인물을 찾아보세요. 그 인물에 공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인물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싶나요?
2.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 동네, 우리나라 같은 여러분이 많이 쓰는 일상 속의 ‘우리’에는 어떤 사람이 포함되고, 어떤 사람이 포함되지 않나요? ‘우리’라는 말을 쓰면서 혹시 나도 모르게 소외시킨 존재는 없는지 생각해 봅시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두가 함께 살아갈 방법은 무엇일까요?

## 참고하면 좋은 사이트

### ● 작은 행성 기금 [www.smallplanet.org](http://www.smallplanet.org)

미국의 민주주의 운동가 프란시스 무어 라페가 만든 연구기관이자 사회 운동단체입니다. 사이트에서는 세계를 더욱 평화롭게 만들어갈 방안으로 '살아 있는 민주주의'의 기획을 제안하는 작은 행성 기금의 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

### ● 미래를 위한 금요일 [www.fridaysforfuture.org](http://www.fridaysforfuture.org)

스웨덴의 환경운동가이자 청소년들의 등교 거부 운동을 이끄는 그레타 툰베리와 청소년들이 함께하고 있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청소년 활동 또한 실시간으로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 ● 크리스 조던 [www.chrisjordan.com](http://www.chrisjordan.com), [www.albatrossthefilm.com](http://www.albatrossthefilm.com)

사진작가이자 영화감독인 크리스 조던은 우리 시대의 어둡고, 고통스러운 단면을 보여줍니다. 특히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감각적으로 볼 수 있는 작품이 많습니다. 절망을 넘어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기 위해 크리스 조던은 모든 작품을 공개하고 있고, 알바트로스 홈페이지에서 영화 <알바트로스>를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 ● 그린 디자이너 윤호섭 [www.greencanvas.com](http://www.greencanvas.com)

한국의 그린 디자이너 윤호섭의 작품과 활동을 볼 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윤호섭은 매일매일이 지구의 날이라는 신념을 갖고, 우리 사회에서 생긴 문제들을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며, 그 생각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 평화를 위한 일상의 실천

- 이 세상의 다양한 사람, 동물, 식물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 나 자신이 공동체의 일부분이며, 나의 선택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나요?
- 세상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나요?
- 무기력의 소용돌이를 끊어 내고, 희망의 소용돌이를 만들 준비가 되었나요?

## CHECK LIST .....

-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마움 표현하기
- 오늘 내가 한 말 중에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이 있는지 생각해 보기
- 나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건네기
- 매일 뉴스나 신문을 보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 가지기
- 사회에서 일어난 문제와 나 사이의 연결고리 지도 만들어 보기
- 내가 먹는 음식, 내가 쓰는 물건이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하기
- 꼭 필요한 물건인지 생각해 보고 구매하기
- 일회용품 쓰지 않는 하루 보내기
- 함께 쓰는 물건이나 공간을 더 소중하게 이용하기
- 하루 5분씩 하늘을 올려다보거나 바람을 느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

## 3부 평화와 세계

# 세계 시민이 만드는 새로운 세계

모든 인간은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고, 그것은 단순히 매일 얼굴을 마주 보는 이웃의 범위를 넘어서 전 세계, 전 생명 공동체의 범위를 아우릅니다. 인류는 함께 협력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계적인 전염병, 기후 위기, 생물 다양성의 위기, 경제적 불평등, 난민 문제, 전쟁의 위기, 인간 소외, 각종 차별,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인간 존엄성의 위기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믿고, 더 나은 세계를 희망하며 지금 눈앞에 있는 불의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의 동료 시민들과 연대해야 합니다. 세계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는 세계 시민들이 많아질 때 우리는 분명 새로운 세계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 가치** 정의와 희망의 동반자들
- 인물** 마수드 하사니, 세상을 바꾸는 정의로운 아이디어
- 톤론** 더불어 실천하는 아름다운 세상
- 활동** 세계평화 포스터 만들기

함께 읽으면 좋은 책 / 함께 보면 좋은 영화 / 참고하면 좋은 사이트 / 평화를 위한 일상의 실천

## 정의와 희망의 동반자들

<벤딩 디 아크(Bending the Arc)>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김용, 오피리아 달, 폴 파머. 이 세 명의 절친한 친구는 국제 의료 활동을 하며 세상을 바꾸는데요, 영화는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들은 “왜 질병은 가난한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는가?”라고 질문합니다. 죽지 않아도 될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의아하게 여긴 것이지요. 전 세계 곳곳에는 자신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사회의 제도, 법, 문화, 정책이 부조리하거나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아서 그 피해를 받고 있는 개인이 많습니다. 특히 권력을 쥔 사람 혹은 집단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가난한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특히 질병은 목숨을 앗아가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후진국에서는 에이즈나 결핵과 같은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고 치료는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치료에 제대로 응하지 않거나 위생에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라고 단정 짓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국제기구는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살리는 데 비용을 쓰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돈을 아껴 전체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오히려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돕는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영화에 소개된 페루의 사례가 대표적인데, 세계 보건 기구와 페루 정부는 기존의 매뉴얼에 있는 처방만을 제공할 뿐, 질병마다 다른 더 적절한 치료



‘건강의 동반자들’ 구성원들의 모습 ©Bending The Arc

법으로 바꾸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최소 6개, 많게는 12개의 약을 먹어야 하는 결핵 환자들이 이미 몇몇 개의 약에 대해서 내성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자세히 진찰하지 않고 무작정 약을 지급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약의 효과는 없고 오히려 다른 약들에도 내성이 생기면서 치료가 어렵게 된 것이지요.

그런 무분별한 방식의 구호가 정확히 이 세계의 질병을 키워왔다고 진단한 이 청년들은 ‘건강의 동반자들(PIH, Partners In Health)’이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지역 보건 의와 자원 봉사자들을 연계하여 환자 가까이에서 질병의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적합한 처방과 치료를 가능하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가까이서 지켜본 결과, 가난한 사람들이 약을 제때 챙겨 먹을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약을 타러 갈 수 없는 물리적 환경, 약을 챙겨 먹기조차 어려운 일상의 고단함 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페루의 결핵 사례처럼, 잘못된 처방과 무책임한 지원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요. 제대로 된 지원과 효과적인 관리, 끈질긴 시도만이 이



결핵 환자 멜키아데스가 건강을 회복하고 김용과 포옹하는 장면. 그는 PIH의 도움으로 살아났다.  
©Bending The Arc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입니다. 세계 보건 기구와 결핵 의사협회의 무관심과 무책임함을 비판하는 청년 세 명의 무모한 도전은 당시 환영받지 못했지만,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결국 페루의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데 성공합니다.

### 교육은 인간의 가능성을 키우는 일

“불행한 인간에 대해서 깊은 주의력을 가지고,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힘을 가졌는가에 인간다움의 자격이 달려 있다.” 프랑스 철학자 시몬 베유는 인간다움의 조건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약자들에게서 세계의 진실이 드러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전염병에 걸릴 위험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탕진할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심지어 가족들과의 시간도 포기한 채 전념한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 죽지 않아도 될

이유로 죽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더라도, 고통받고 울부짖는 사람에게 다가가 한마디의 말을 건네는 것. 이것은 교육의 목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한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 우리가 배움을 통해 이루어야 할 가장 큰 목표일 것입니다. 영화 속 김용은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며 “단순히 우리에게 불편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우리의 판단으로 저 늙은 청년을 죽게 내버려 뒀다고 생각해보세요”라고 말합니다. 페루에서 다제내성 결핵으로 3년간 투병 생활을 하며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청년 멜키아데스의 회복 모습을 영상으로 본 후에 한 말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잘못된 판단은 한 사람의 삶을 무참히 짓밟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과 세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할 헌신적인 열정과 노력입니다.

### 인간 잠재능력의 실현을 보장하는 세계

인도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 역시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인간의 운명에 대해 절실하게 고민하고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8살 때 목격한 벵골 대기근(1942년 말부터 1944년까지 인도에서 진행된 전반적인 식량 부족 사태로 약 200~300만 명이 아사한 사건) 당시의 참상을 잊지 못하고 인생을 걸고 질문했습니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야 하는지, 정말 먹을 것이 없어 죽은 것인지, 그 참상을 예방하거나 막을 수 없었는지 말입니다. 그의 끈질긴 질문은 결국 그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했습니다. 대기근은 식량이 부족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농민들은 구조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 농민들을 외면하는 부패하고 이기적인 권력자들이 일으킨 문제였습니다. 아마르티아 센은 이러한 연구 끝에 양적인 성장만을 추구했던 지금까지의 경제학을 비판하고, 인간 삶의 질과 역량을 개발하는 새로운 지표를 제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마르티아 센이 말하는 이론의 핵심은 사회 속에서 자유로운 인간 존재의 기본적인 ‘잠재능력’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재능력이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자신의

욕구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며, 사회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이 박탈당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과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전 세계적인 기근 문제 역시 단순한 식량의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한 분배로 인해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가 생각했을 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입니다.

“기근 문제는 흉작이나 홍수로 인한 식량부족 등 다각도로 분석되기 십상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오직 민주주의의 차원에서 접근해야만 할 대표적 사례일 것입니다. 정치적 권리와 시민 권리는 경제적·사회적 파국의 방지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아마르티아 센, 『센코노믹스』, 144쪽, 갈라파고스

아마르티아 센은 기근 문제란 식량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자연재해 속에서도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가 보장될 때 그 사회는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정치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때 위기는 심화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자유롭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회적 안전장치들이 충분히 잘 마련된 상황에서 자신이 가진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류의 발전은 바로 그러한 자유의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센의 궁극적인 주장입니다. ‘인간의 안전보장’이 지켜지는 세계가 바로 자유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간의 안전보장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끝까지 정의의 편에 서 있는 사람

의사이자 인류학자인 폴 파머는 종종 “너무 늦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세계 권력자들의 오만한 태도로 인해 살리지 못했다는 것



인도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

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죽게 만들고,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생명들을 고통 속에 놓아둔 것은 아닐까요? 어떻게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함께 질문을 만들어나가고, 함께 꿈꾸는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나아가 옆 사람을 경쟁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상을 살아갈 동료 시민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정의와 희망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오로지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질문

가난한 국가의 지역 건강 봉사 조직 '건강의 동반자들'은 "이 세계에 대한 나의 책임은 무엇인가?"를 고민했던 청년들에 의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질문은 세계은행 총재를 역임한 김용의 어머니가 자주 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공부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또 경제적으로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그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이 세계에 대한 여러분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금 당장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a pencil icon and horizontal lines.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lines.

실천

평화는 무엇일까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막연하게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것만으로는 평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UN에서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억하고 고민해야 할 사항들을 기념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3/8), 해양의 날(6/8), 평화의 날(9/21), 이주자의 날(12/18), 인간 연대의 날(12/20) 등이 있고, 어린이들의 권리를 생각하는 세계 어린이날(11/20)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 어떤 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기념일을 정한다면 어떤 날을 만들어야 할지 적어 보고 그날을 기념할 만한 의미 있는 이벤트를 구상해 봅시다. 그 이유도 함께 적어 보세요.

 내가 만들고 싶은 기념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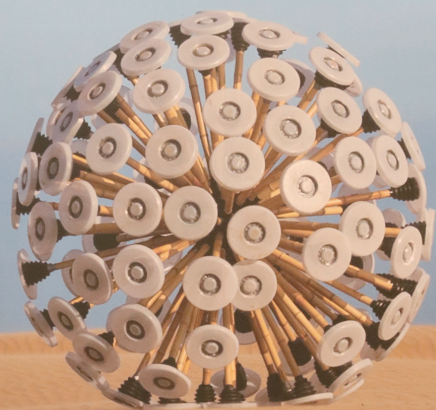
Blank writing area for creating a new holiday.

Blank writing area with horizontal lines for creating a new holiday.





## 새로운 시대를 여는 희망의 여정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서점  
인디고 서원

공익법인  
정세청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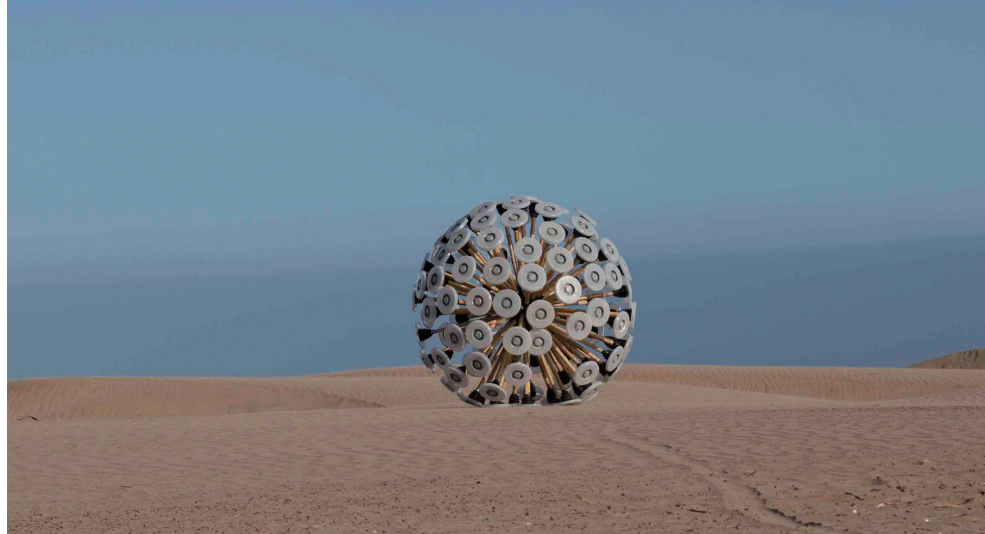
인물

## 마수드 하사니, 세상을 바꾸는 정의로운 아이디어

마인 카폰(Mine Kafon)을 만들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디자이너 마수드 하사니(Massoud Hassani)를 소개합니다. 마인 카폰은 지뢰(Mine)를 폭발(Kafon)시킨다는 뜻의 둥근 공인데, 평평한 대지에 놓으면 바람에 저절로 굴러다니며 지뢰를 터뜨립니다.

제품 디자이너인 마수드 하사니가 마인 카폰을 만든 이유는 어릴 적 기억 때문입니다. 1980년대 있었던 소련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잔해로 아프가니스탄에 묻혀 있는 지뢰는 1천만 개에 달합니다. 무려 1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500m 이내에 지뢰가 묻힌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뢰 때문에 아이들은 자유롭게 뛰어놀 수 없습니다. 순식간에 지뢰가 터져 목숨이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호 식량을 전달해줄 때도 지뢰가 문제가 됩니다. 식량 보급 박스들이 들판 여기저기 무차별적으로 떨어지면 굶주린 아이들이 그쪽으로 달려가다 지뢰를 밟아 몸이 찢기기 때문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묻힌 수많은 지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마수드 하사니가 10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로켓 공격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그의 어머니는 마수드 하사니와 동생을 어렵게 파키스탄으로 피신시켰고, 이후 40차례가 넘게 거주지를 옮기는 난민 생활 끝에 네덜란드에 정착했습니다. 마수드 하사니는 그곳에서 안전하게 디자인을 공부할 수 있었지만, 고통받는 사람들의 얼굴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값싼 재료와 간단한 제작 방법으로 가난한 이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지뢰 제거기를 만들고 싶었고, 그 간절한



바람의 힘으로 굴러가며 지뢰를 터뜨리는 마인 카폰(Mine Kafon)

마음은 어릴 적 가지고 놀던 바람에 날리는 모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마인 카폰을 만드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수드 하사니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지뢰를 제거할 수 있는 ‘마인 카폰 드론’도 개발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의 지뢰를 모두 제거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지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마수드 하사니가 제시하는 지뢰 제거의 방법은 한국인인 우리가 특히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 있는 비무장지대(DMZ) 일대는 세계에서 지뢰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약 200만 발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지뢰는 한국 전쟁 당시 한국군과 북한 인민군, 미군과 중국 공산군이 곳곳에 매설하거나 살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휴전 이후에도 상대의 침투를 막기 위해 지뢰를 매설해왔지요. 그로 인해서 이 지역에서는 지뢰로 인한 사고가 수시로 발생해왔으며, 군인뿐 아니라 일반 민간인의 피해도 큰 실정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이 일대의 지뢰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까지의 지뢰를 제거하는 기술과 속도로는 DMZ의 지뢰를 모두 제거하는 데

400년이 넘게 걸린다는 점입니다. 마수드 하사니의 아이디어를 사용한다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빠른 시간에 생명을 살리는 지뢰 제거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예술 작품을 만들고자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마인 카폰을 예술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인 카폰이 예술 작품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지뢰 문제의 심각성을 더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디자인은 기능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아름답습니다.”

빈곤, 전쟁, 기후위기, 난민, 차별 등 다양한 문제들은 해결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을 향한 정확한 질문을 던지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연결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이런 활동을 하는 이들을 우리는 창조적 리더라고 합니다.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변화를 꿈꾸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창조적 리더인 마수드 하사니를 2020년 2월에 한국으로 초청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마수드 하사니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정의로운 아이디어를 여러분도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

##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인디고** 한반도 DMZ의 지뢰도 제거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마수드 하사니** 2019년에 대한민국 국방부와 함께 DMZ에 있는 지뢰를 제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고, 완성되면 DMZ에 있는 지뢰를 제거할 기술을 가지고 한국으로 다시 오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인 카폰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마수드 하사니(오른쪽)와 그의 동생 마흐무드 하사니(왼쪽)

**인디고** 하루빨리 마인 카폰 드론이 도입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지, 또 다른 기관과 협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마수드 하사니** 마인 카폰 드론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막 완성된 단계입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말리 등 대부분 중동과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을 비롯하여 전 세계의 50여 개 기구에서 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실전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디고** 마인 카폰 드론 외에도 지뢰를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마수드 하사니** 저는 처음에는 공 모양으로 굴러다니며 지뢰를 제거하는 마인 카폰을 만들었고, 하늘을 날면서 지뢰를 제거하는 마인 카폰 드론까지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더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은 뱀처럼 기어가거나 동물처럼 바닥을 걸어

다니며 지뢰를 제거하는 기술입니다. 캄보디아와 같이 정글이 무성한 곳에서도 지뢰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죠.

### 인간과 생명을 위한 기술

**인디고** 드론 기술은 최근에 빠른 속도로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기술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인간의 삶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과학 기술은 그 자체에는 눈이 없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신경 쓰지 않으면 발전하지 못하거나 나쁜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드론이나 과학기술이 인간을 위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마수드 하사니** 드론이나 로봇과 같은 기술은 최근에 개발된 신기술입니다. 이렇게 점차 자동화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더 많이 알고자 공부해야 합니다. 실제로 로봇들은 전쟁에서 사용되곤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더 오래, 멀리 나는 기술이 개발되기도 하지요. 그렇다고 전쟁을 긍정적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이 기술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기술을 활용할 때는 윤리적인 제도나 규제 아래서 이뤄져야 합니다. 저는 적절한 감시 속에서 기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부를 함께 한다면 그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인디고** 선생님께서 만든 기술이 혹시 악용되어서 사람들을 해치지 않을까 걱정한 적은 없으신가요?

**마수드 하사니** 물론 우려가 컸습니다. 저의 몇몇 기술들은 정말로 위험하거나 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럴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저희는 신뢰할 수 있는

정부하고만 협업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엄격히 훈련된 전문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용이 될 소지는 적다고 봅니다.

### 예술적 상상력과 휴머니즘

**인디고** 예술적 상상력에 대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술적 상상력은 인간을 인간이게 만듭니다. 저는 AI가 초지능으로 나아가는 미래에도 예술은 인간만의 활동이고 행위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예술적 상상력은 무엇이고, 삶의 어느 부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마수드 하사니** 처음 마인 카폰이라는 공을 만든 것이 저에겐 예술적 상상력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인 카폰 공은 지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놓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사람들은 지뢰를 나와 관련이 없는 군사용품이라든가, 무기 정도로만 생각해왔지요. 마인 카폰은 그 자체의 제작 동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뢰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인 카폰은 뉴욕의 현대미술관을 비롯한 세계의 여러 미술관에서 소개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마인 카폰의 생김새 때문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마인 카폰이 가진 예술적 상상력의 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마인 카폰이 정말 훌륭한 예술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지뢰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로봇과 드론 기술을 마인 카폰에 결합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예술적 상상력이며 휴머니즘입니다.

**인디고** 선생님과 반대로 세상에는 지뢰를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지뢰를 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인 카폰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예술을 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정신이 필요하고 어떤 실천을 해야 할까요?



마인 카폰은 마수드 하사니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만들어졌다.

**마수드 하사니** 마인 카폰이라는 아이디어는 어린 시절에 가지고 놀던 장난감에서 영감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의 상상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보다는 놀이가 주는 상상력을 충분히 음미하고 발휘한다면 기술을 넘어 예술에 가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놀이로부터 시작한 상상력을 실제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죠.

파블로 피카소는 “모든 아이는 예술가로 태어난다. 다만, 그들을 예술가로 지키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상상력을 유지하면서, 여기서 영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공포를 넘어 희망의 미래로

**인디고** 제가 만약 마수드 하사니 선생님이었다면 지뢰는 저에게 굉장한 공포였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선 어린 시절부터 지뢰로 다친 사람을 많이 보셨는데요. 그것을 단지 공포와 고통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마인 카폰을 만들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희망의 여정을 시작하신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선생님께서 겪었던 가치관의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겪은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어떻게 하면 희망의 여정으로 바꿀 수 있을지 응원의 한마디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수드 하사니** 제가 진행한 프로젝트들은 정말로 제 삶을 바꾸는 기획들이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제가 학교 졸업 작품을 준비하며 3개월간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인데요. 지금까지 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은 감정적으로도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여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함께하고 있는 팀원 중에서도 10대 때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는 인간과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으며, 그런 일을 하며 제 감정과 삶이 조금 씩이라도 변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프로젝트를 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삶을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를 변화시키고, 건강과 생명을 지키며, 문화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주제를 선택한다면 많은 이들이 경쟁심을 느끼기보다는 도움을 주려 할 것입니다. 기존에 이미 만들어져 팔리고 있는 신발을 만들거나 가방, 차를 만드는 일은 당연히 경쟁하게 될 것이고, 그런 경쟁 속에서는 삶을 개선시키는 성공한 기획이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택한다면 그 가치와 방향성에 동의하고 경쟁보다는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Everything is possible)”라는 믿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함께하고자 하는 이 일을 지지하고 참여하며 고통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지뢰 제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작한 마인 카폰 드론

들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믿고, 그 꿈을 지지하는 사람들, 주변의 동료들을 만들고 찾고, 그들과 함께 그런 신뢰를 주고받으며 나아간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세대를 여는 희망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디고** 한국 사회에서는 학교에 가고 경쟁하고, 공부하는 과정을 나의 지위를 굳건히 만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만든 마인 카폰은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인데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모두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나의 좋음이 세계의 옳음에 도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분들에게 지지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뉴욕 현대미술관(MoMA)에 전시된 마인 카폰

**마수드 하사니**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모든 인간 존재들에게 주어진 소명이 아닌가 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 자신의 욕망이나 개인적인 성공과 같은 거품에 매몰되면서 세상에 대한 관심을 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못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 존재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믿는 것이며, 여기에 기반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상자 밖으로 나와 세계와 마주하려는 상상력을 갖고, 삶의 본질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

40여 년 간 아프가니스탄에서 의료 봉사를 이어오다 2019년 12월 4일 괴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아프간의 성자' 나카무라 테츠는 평화란 곧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는 의사였고, 자기 전공과 관련 없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물이 없어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1,600개의 우물을 팠고, 비옥한 토지를 만들기 위해 수로를 개척해 60만여 명의 사람을 살렸습니다. 나카무라 테츠는 세계의 문제를 직시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뿐만 아니라 해야 하는 일도 했습니다. 마수드 하사니와 나카무라 테츠의 공통점은 사람들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했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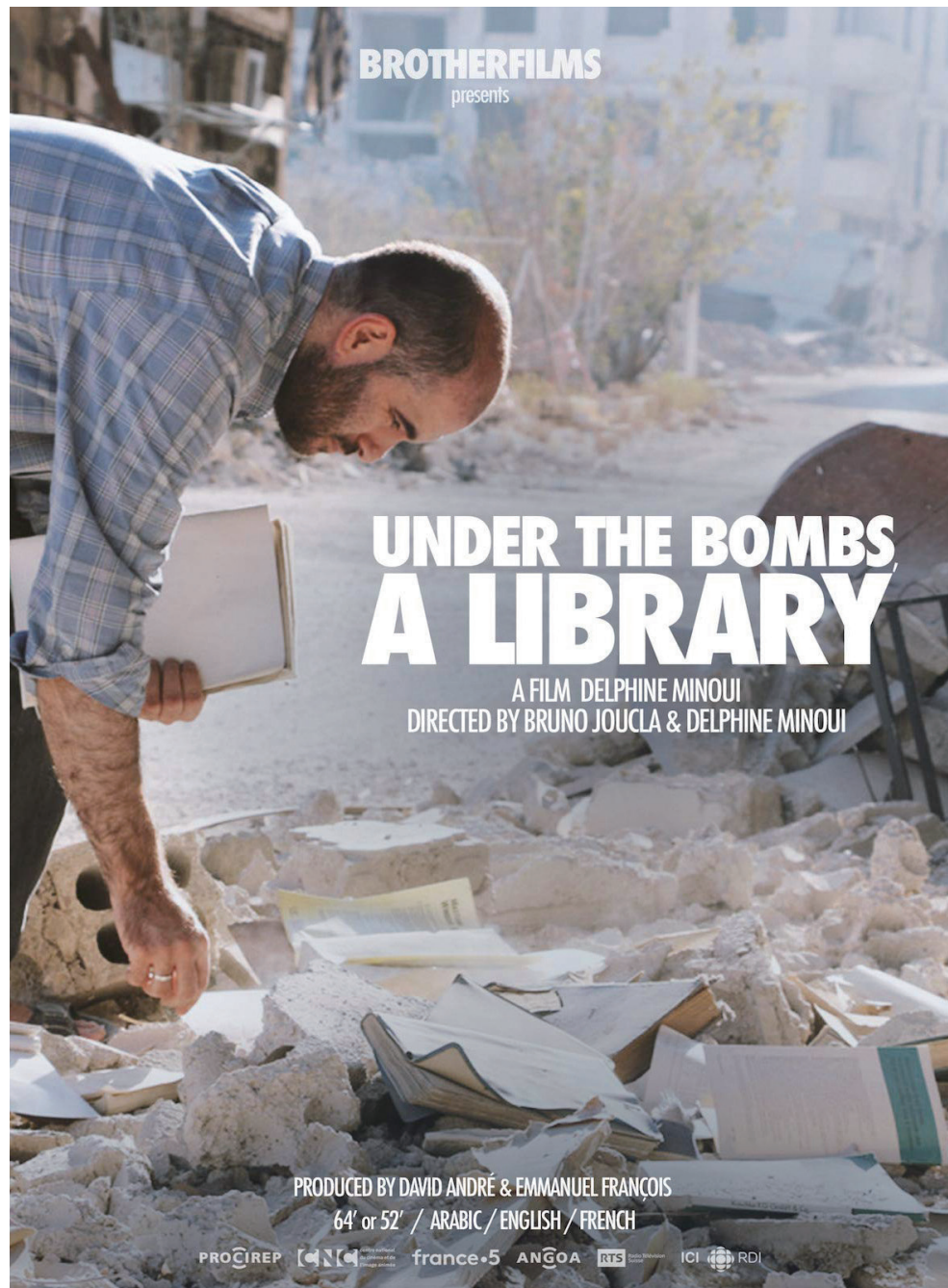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오늘날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는 무엇인가요?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평화로운 세계를 위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생각해 봅시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시민들에게 평화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써 봅시다.

A large yellow rectangular area containing 20 horizontal blue dashed lines, intended for writing.

**실천**

마수드 하사니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의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생명을 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람은 물론이고 동물이나 식물 등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많습니다. 다양한 공동체에서 도움이 필요한 존재를 찾아 보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아 봅시다. 그들을 도울 아이디어를 적어 보세요.

A large yellow rectangular area enclosed by a green dashed border, containing a small pencil icon in the top-left corner, intended for writing ideas.



<다라야의 지하 비밀 도서관> 영화 포스터



## 더불어 실천하는 아름다운 세상

“전쟁은 역효과를 낳았어요. 사람들을 변하게 하고 감정과 슬픔, 두려움을 죽였어요. 전쟁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세상을 다르게 바라봅니다. 독서는 이러한 기분 대신 살아갈 힘을 줍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 것은 무엇보다 인간성을 유지하려는 것이예요.”

- 델핀 미누이, 『다라야의 지하 비밀 도서관』, 73쪽, 더숲

2011년부터 이어진 시리아 전쟁으로 38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1,31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다라야는 시리아 전쟁이 일어난 주요 도시 중 한 곳입니다. 사람들은 한 달에 900여 차례가 넘게 쏟아지는 폭격 속에서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다라야의 청년들은 도시가 봉쇄되어 식량과 의약품이 끊긴 채 하루하루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속에서 책을 발견 하였고, 그 책들을 모아 지하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 인간성을 지키기 위한 저항의 책임기

전쟁은 무자비합니다. 사람들에게서 소중한 것들을 앗아가지요. 이 비밀 도서관을 자주 이용했던 청년 오마르는 독서는 인간성과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



습니다. 이 청년들의 이야기를 읽는 내내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이들에게 독서는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는 도시 속에서 조금이나마 두려움을 누그러뜨리는 희망의 힘이었습니다. 동시에 비밀 도서관은 전쟁 이후의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다양한 사상을 토론하는 공적 토론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이 청년들은 쏟아지는 폭격 속에서 가만히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책읽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다라야의 청년들이 말했듯, 글을 읽는 것이 곧 혁명일 수 있는 이유는, 아직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암흑 속 어디선가 빛나고 있을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몇몇 기술적 성과에 도취해 읽고 쓰는 능력, 그 자유의 영역을 포기한 오만함이 결국 새로운 가능성이 다시 쓰이지 않는 시대, 즉, 비인간적이고 혁명이 불가능한 시대를 만든 것은 아닐까요?

### 펜으로 전쟁과 맞서 싸우며, 희망을 열다

전쟁 속에서도 글을 통해 희망과 가능성을 이어간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어 사이드입니다. 누어 사이드는 시리아 전쟁 당시 국제적으로 테러를 자행해온 이슬람 무장단체 IS(이슬람국가, Islamic State)가 마을 사람들을 학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라디오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IS의 표적이 되었고 시리아를 떠나 망명하게 되었습니다. 스웨덴에 정착한 이후에는 기자가 되어서 IS와 맞서 싸웠습니다. 그녀의 일은 IS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 유적 약탈과 밀매 과정을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도 누어 사이드는 전쟁의 나약한 피해자가 되기보단 맞서 싸우는 쪽을 택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여전히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무수한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난민의 신분으로 스웨덴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손에 돈도, 가족도, 도움을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주 작은 종이 한 장도 가지고 있지



전쟁으로 시리아 곳곳은 폐허가 되었다. 이런 곳에서 희망을 꿈꾸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않았습니다. 무력할 수 있었지만, 저에게는 눈, 손, 마음 등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으로 기자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시리아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그들을 멈추려고 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잘못된 것을 멈추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기를 통해 영혼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비록 네가 작은 별이라 할지라도 이 전체 지구를 밝히고 있다.” 어릴 때 읽은 이 문장 하나가 저를 지금까지도 깨어 있게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모두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도와주어서 변화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실제 변화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노력은 분명 이 세계에 변화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 누어 사이드, 2016 인디고 유스 북페어 강의 중에서



시리아 난민 출신의 스웨덴 기자 누어 사이드(중간)는 진실을 알리는 것으로 세상을 바꾸는 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 2016 인디고 유스 북페어에 참여해 한국 청소년과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다라야의 청년들, 누어 사이드는 모두 글을 통해 시대의 어둠과 절망에 맞서 싸웠습니다.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 속에서도 그들은 총을 든 것이 아니라 책을 읽기 시작했고,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며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지, 어떻게 해야 평화로운 사회가 가능한지 생각하고, 실제로 정의로운 평화로운 사회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 그 둘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방법은 책을 통해 시대를 읽고 쓰는 것으로 가능함을 이 청년들은 온 힘을 다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러한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삶을 바꾸는 혁명이자 인간다운 삶을 향한 혁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삶을 바꾸는 희망의 책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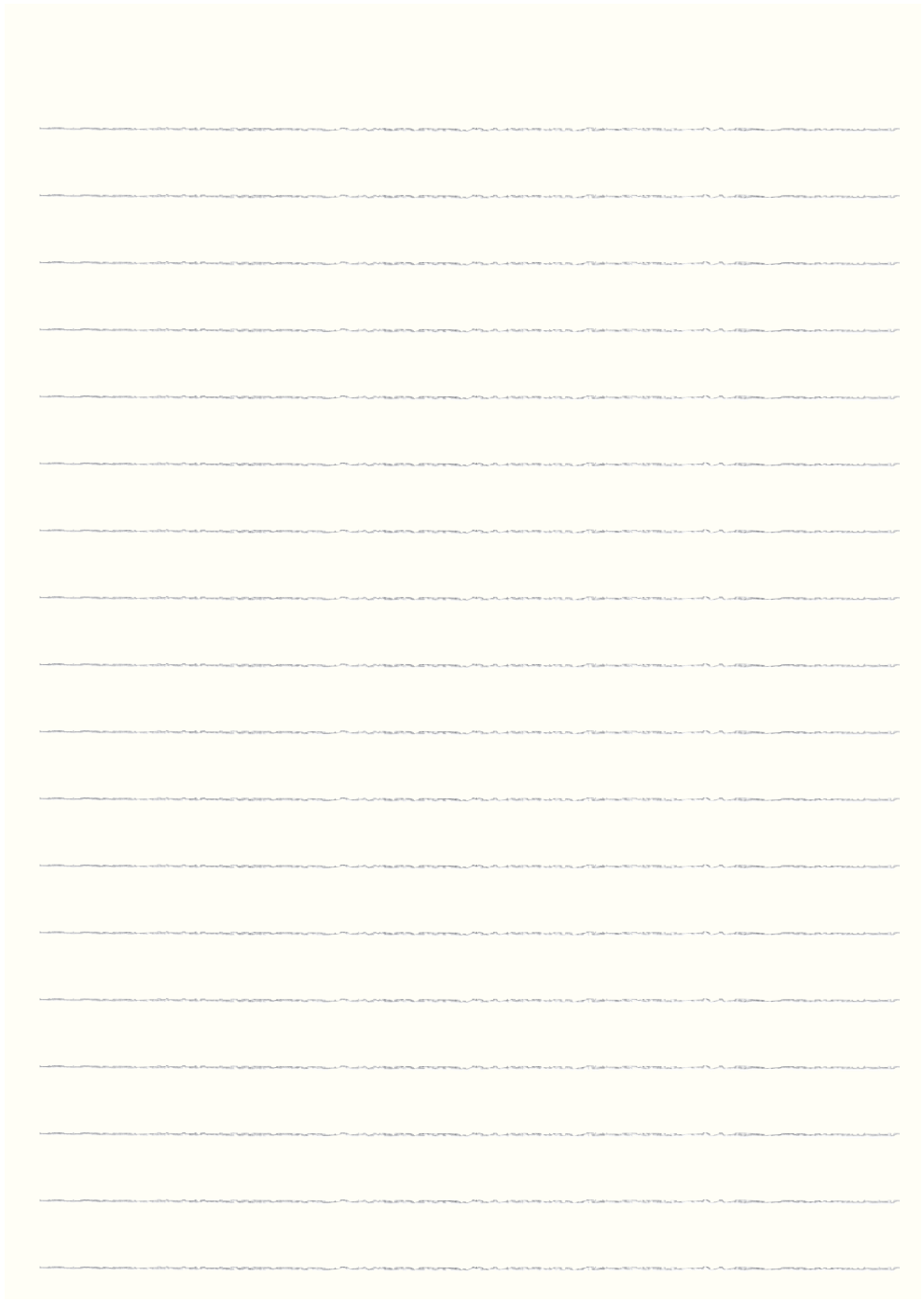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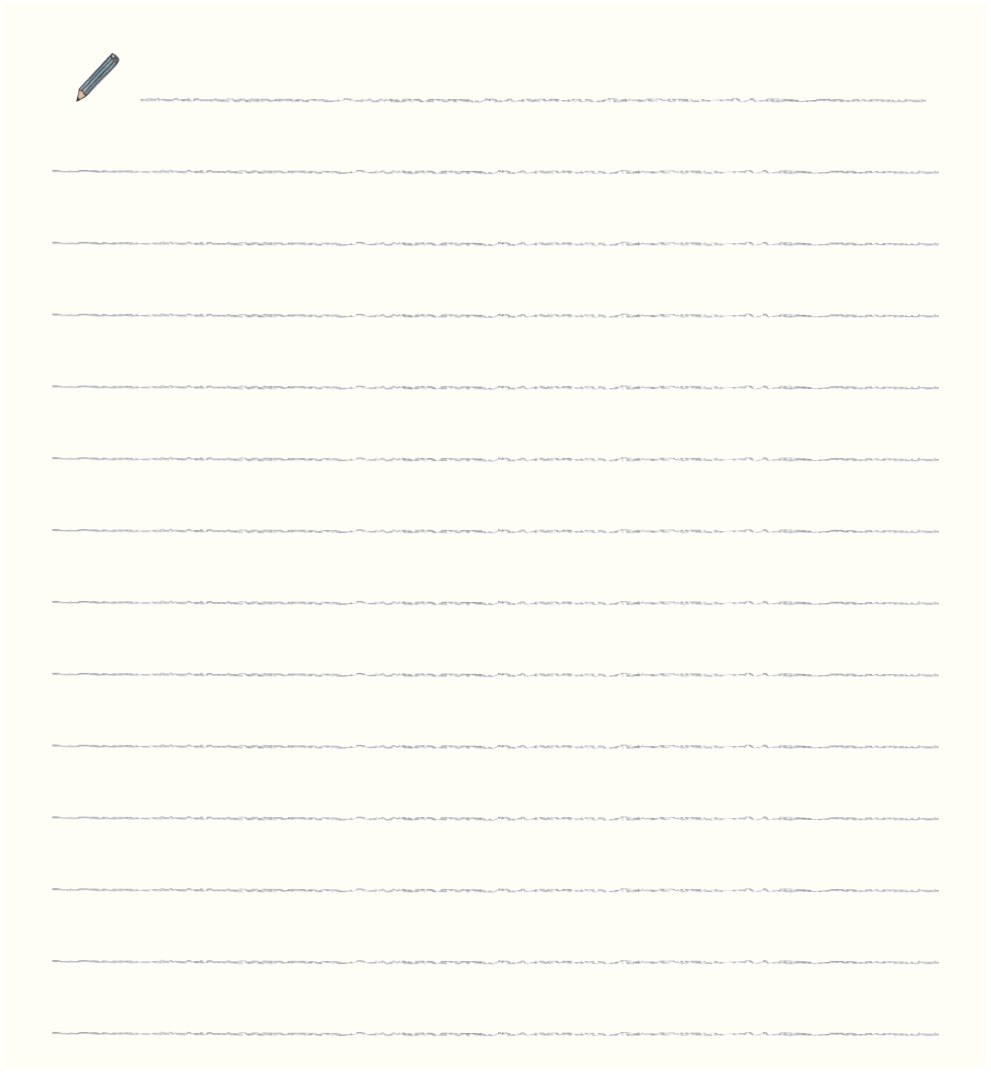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때, 우리는 저항의 상징으로 무언가를 세웠습니다” 라고 아흐마드가 분명하게 말했다. 아흐마드는 생각에 잠긴 채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절대 잊을 수 없을 한마디를 했다. “우리의 혁명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건설을 위한 것입니다.”

- 델핀 미누이, 『다라야의 지하 비밀 도서관』, 25~26쪽, 더숲

책임기는 인간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다라야의 지하 비밀 도서관은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전쟁을 끝낼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한, 생명을 위한 창조의 공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지하 비밀 도서관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은 나만 잘 살기 위한 경쟁 교육을 넘어선, 공존과 공감과 공생을 위한 진정한 평화 교육의 공간입니다. 모든 인류가, 이 지구상의 모든 존재를 위한 이로운 혁명을 완수하는 것, 그것이 다라야의 청년들, 그리고 누어 사이드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학교가, 도서관이, 집이, 모든 교육 공간이 다라야의 지하 비밀 도서관처럼 치열하게 인간성을 지키기 위한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청소년들이 자유와 희망을 꿈꾸고, 시민의 힘을 기를 때 분명 더 인간다운 삶과 평화로운 세계는 가능해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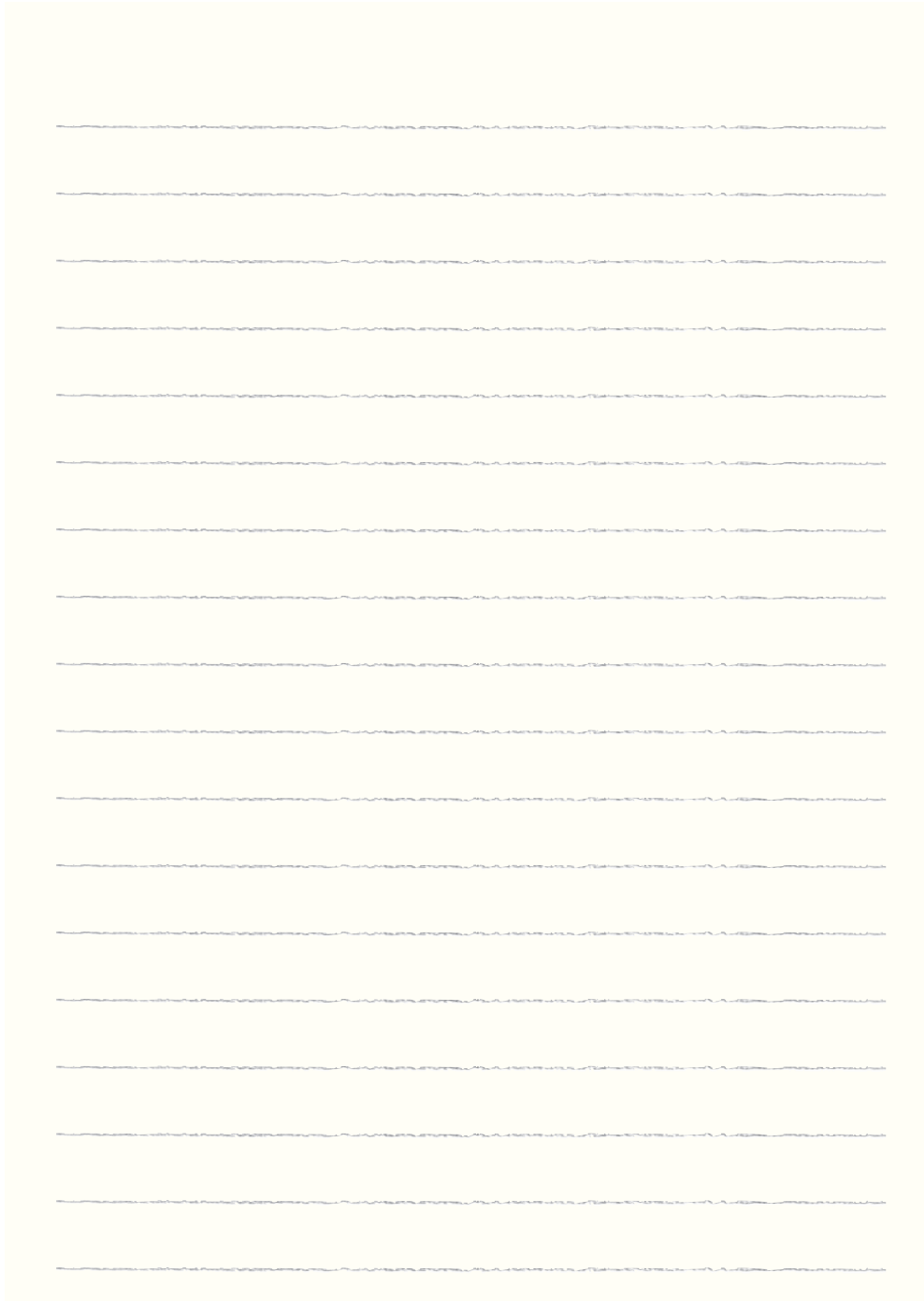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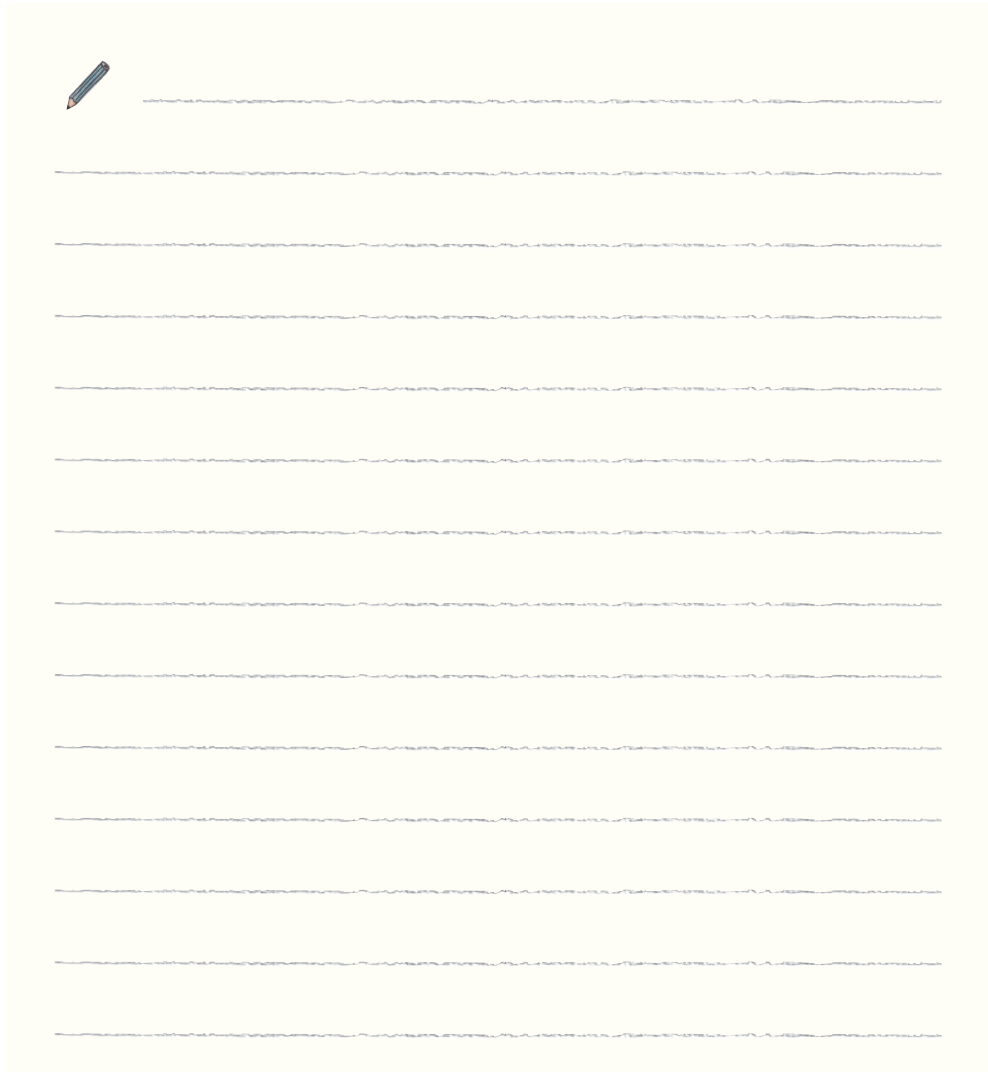
질문

쏟아지는 폭격 속이지만, 다라야의 청년들에게는 지하 비밀 도서관이 있었고 이들은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다라야의 청년들은 책을 읽으면서 인간임을 잊지 않고자 했는데요. 여러분도 다라야의 청년들처럼 책을 읽어야 할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다라야의 지하 비밀 도서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지 찾아 보고, 그 이유까지 함께 써 봅시다.



**실천**

청소년이 만드는 새로운 독서 운동을 기획해 봅시다. 내가 읽었던 책 중에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문장을 뽑아 봅시다. 다라야의 청년들처럼 그 문장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도록 힘을 주는 문장인가요? 나에게 소중한 문장이 내 삶에 영향을 준 이유를 대본으로 쓰고 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려 봅시다. 다른 청소년들이 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책을 통해 또 다른 가능성을 만들어 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말이지요!





# 세계평화 포스터 만들기

인간은 무수히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인터넷망을 사용하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렸고, 의료기술의 발달로 불치병의 수가 줄어들었으며 평균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많습니다. 전 세계에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아직도 많고, 지뢰로 팔과 다리가 잘려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병을 돈이 없어서 고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전쟁, 가난, 종교 등 다양한 이유로 자신이 살던 곳에서 쫓겨나다시피 도망쳐야만 하는 난민들도 점점 늘어납니다. 또, 인간이 만들어 낸 넘쳐나는 쓰레기 때문에 지구는 나날이 오염되고 있고, 전 지구적인 전염병으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이 세계가 점점 더 나빠지는 것을 걱정하고,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은 결코 절망하거나 단념하지 않습니다. 시대의 부당한 현실을 손가락질하지 않고, 새로운 세계를 상상합니다. 끊임없이 꿈꾸고, 질문하고, 시도하고, 부딪히고, 창조하는 과정은 공생의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즉, 나날이 한 걸음씩 더 행복하고 자유롭고 평등하며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세계는 평화로운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원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일상에서 여러분의 평화를 부르는 말과 행동은 무엇인가요? 혹은 평화를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이를 막고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포스터를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 봅시다. 또 이 포스터가 어디에 필요할지 친구들과 의논해서 붙여 봅시다.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STANDUPFORHUMANRIGHTS

UNIVERSAL DECLARATION OF

# HUMAN RIGHTS

Comisiún na hÉireann um Chearta an Duine agus Coibhéisneas  
Irish Human Rights and Equality Commissio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s a milestone document in the history of human rights. Drafted by representatives with different legal and cultural backgrounds from all regions of the world, the Declaration was proclaimed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 Paris on 10 December 1948 as a common standard of achievement for all peoples and all nations.

**ARTICLE 1**

When children are born, they are free and each should be treated in the same way. They have reason and conscience and should act towards one another in a friendly manner.

**ARTICLE 2**

Everyone can claim the following rights, despite - a different sex - a different skin colour, speaking a different language, thinking different things - belonging in another religion - coming from a different country - being born in another social class - coming from another country. It also makes no difference whether the country you live in is independent or not.

**ARTICLE 3**

You have the right to live, and to live in freedom and safety.

**ARTICLE 4**

Nobody has the right to treat you as his or her slave and you should not make anyone your slave.

**ARTICLE 5**

Nobody has the right to torture you.

**ARTICLE 6**

You should be legally protected in the same way everywhere, and like everyone else.

**ARTICLE 7**

The law is the same for everyone; it should be applied in the same way to all.

**ARTICLE 8**

You should be able to ask for legal help when the rights your country grants you are not respected.

**ARTICLE 9**

Nobody has the right to put you in prison, to keep you there, or to send you away from your country unjustly, or without a good reason.

**ARTICLE 10**

Fairness must go on trial; this should be done in public. The people who try you should not let themselves be influenced by others.

**ARTICLE 11**

You should be considered innocent until it can be proved that you are guilty. If you are accused of a crime, you should always have the right to defend yourself. Nobody has the right to condemn you and punish you for something you have not done.

**ARTICLE 12**

You have the right to ask to be protected if someone tries to harm your good name, enter your home, open your letters or bother you or your family without a good reason.

**ARTICLE 13**

You have the right to come and go as you wish within your country. You have the right to leave your country to go to another one and you should be able to return to your country if you want.

**ARTICLE 14**

If someone hurts you, you have the right to go to another country and ask it to protect you. You lose this right if you have killed someone and if you yourself do not respect what is written here.

**ARTICLE 15**

You have the right to belong to a country and nobody can prevent you, without a good reason, from belonging to another country if you wish.

**ARTICLE 16**

As soon as a person is legally entitled, he or she has the right to marry and have a family. Neither the colour of your skin nor the country you come from nor your religion should be impediments to doing this. Men and women have the same rights when they are married and also when they are separated. Nobody should force a person to marry. The Government of your country should protect your family and its members.

**ARTICLE 17**

You have the right to own things and nobody has the right to take these from you without a good reason.

**ARTICLE 18**

You have the right to profess your religion freely, to change it, and to practice it either on your own or with other people.

**ARTICLE 19**

You have the right to think what you want, and to say what you like, and nobody should forbid you from doing so. You should be able to share your ideas - also with people from any other country.

**ARTICLE 20**

You have the right to organise peaceful meetings or to take part in meetings in a peaceful way. It is wrong to force someone to belong to a group.

**ARTICLE 21**

You have the right to take part in your country's political affairs either by belonging to the Government yourself or by choosing politicians who have the same ideas as you. Governments should be voted for regularly and voting should be secret. You should get a vote and all votes should be equal. You also have the same right to join the public service as anyone else.

**ARTICLE 22**

The society in which you live should help you to develop and to make the most of all the abilities, culture, work, social welfare) that are offered to you and to all the men and women in your country.

**ARTICLE 23**

You have the right to work, to be free to choose your work, and to get a salary that allows you to live and support your family. If a man and a woman do the same work, they should get the same pay. All people who work have the right to join together to defend their interests.

**ARTICLE 24**

Each work day should not be too long, since everyone has the right to rest and should be able to take regular paid holidays.

**ARTICLE 25**

You have the right to have whatever you need so that you and your family do not fall ill, do not get hungry, have clothes and a house, and live in peace. If you are out of work, if you are ill, if you are old, if your wife or husband is dead, or if you do not earn a living for any other reason, you cannot help. Both a mother who is going to have a baby and her baby should get special help. All children have the same rights, whether or not the mother is married.

**ARTICLE 26**

You have the right to go to school and everyone should go to school. Primary schools are free for you. You should be able to learn a profession or continue your studies as far as you wish. As a student, you should be able to develop all your talents and you should be taught to get on with others, whatever their sex, their religion or the country they come from. You parents have the right to choose how and what you will be taught at school.

**ARTICLE 27**

You have the right to share in your community's arts and sciences, and in any good they do. Your skills as an artist, a writer or a scientist should be protected, and you should be able to benefit from them.

**ARTICLE 28**

To make sure that your rights will be respected, there must be an 'order' that can protect them. This 'order' should be local and worldwide.

**ARTICLE 29**

You have duties towards the community within which your personality can fully develop. The law and its guardian, Human Rights, it should allow everyone to respect others and to be respec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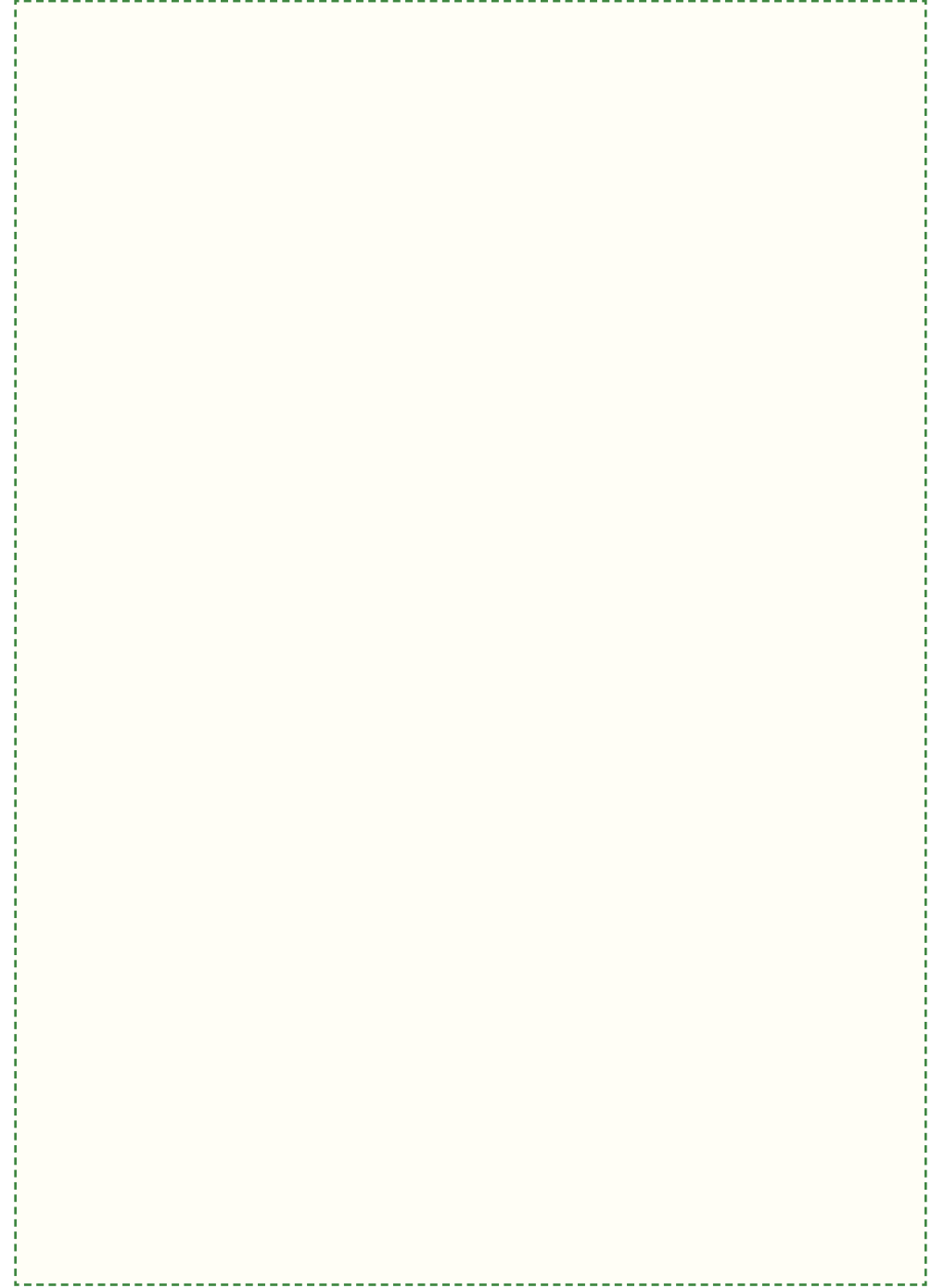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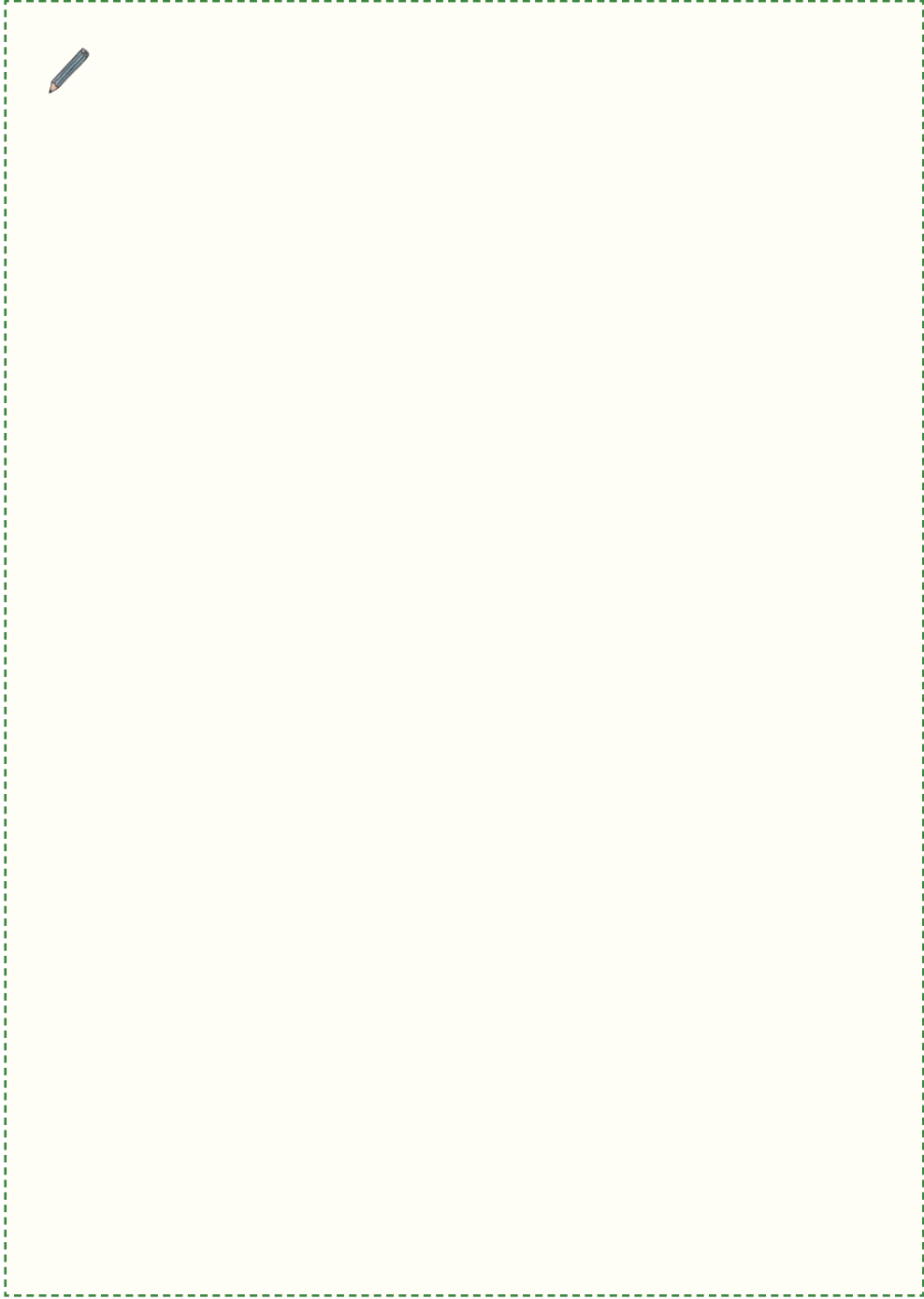
**ARTICLE 30**

No society or no human being in any part of the world should act in such a way as to destroy the rights that you have just been reading abo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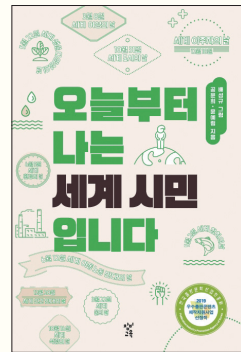
Published by the Irish Human Rights and Equality Commission,  
16-22 Green St., Dublin 7.  
Tel: +353 1 8589600 | Web: www.ihrec.ie | Twitter @ihrec

**THE IRISH TIMES**

Comisiún na hÉireann um Chearta an Duine agus Coibhéisneas  
Irish Human Rights and Equality Commission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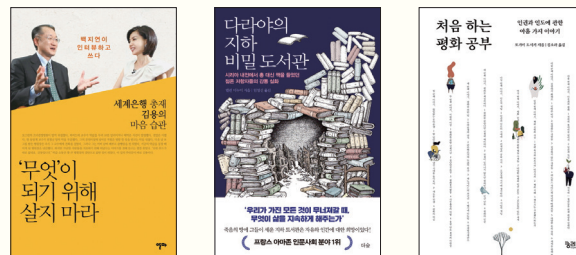
### 오늘부터 나는 세계 시민입니다

공유희, 윤예림 지음 / 창비교육 / 2019

오늘날 세계 경제의 규모는 급격하게 커졌지만,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에서의 경제적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무차별적인 개발과 편리성과 효율성만을 따지는 소비문화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양산하였습니다. 교통의 발달로 왕래는 편해졌지만, 전염병도 그와 함께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필요하며,

이처럼 세계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는 이들을 '세계 시민'이라고 부릅니다. 책을 읽으며 세계의 문제가 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탐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해 봅시다.

### 더 읽어 볼 책



『무엇이 되기 위해 살지 마라』 / 백지연 지음 / 알마 / 2012

『다라야의 지하 비밀 도서관』 / 델핀 미누이 지음 / 임영신 옮김 / 더숲 / 2018

『처음 하는 평화 공부』 / 모가미 도시키 지음 / 김소라 옮김 / 궁리 / 2019



### 사람의 자리

전치형 지음 / 이음 / 2019

과학기술의 발전은 많은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역설적이게도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이 무시당하거나 차별을 당하게 되는 경우, 심지어 목숨마저 위협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잘 활용하는 것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알아내고 마련하는 행위입니다. 누군가의 삶을 고민하고 사람의 자리를 마련하는 과학기술은 분명 세상을 조금씩 나아지게 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해주는 책임입니다.

자리를 마련하는 과학기술은 분명 세상을 조금씩 나아지게 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해주는 책임입니다.

### 더 읽어 볼 책



『내일, 새로운 세상이 온다』 / 시릴 디옹 지음 / 권지현 옮김 / 한울림 / 2017

『소외된 90%를 위한 디자인』 / 스미소니언 연구소 지음 / 허성용, 허영란 옮김 / 에딧더월드 /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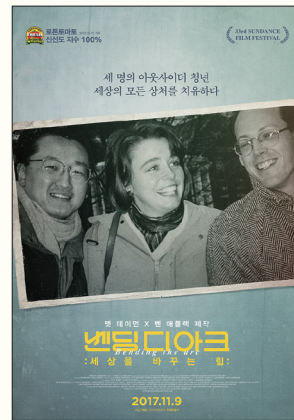
『예술 수업』 / 오종우 지음 / 어크로스 / 2015

## 함께 보면 좋은 영화

### 벤딩 디아크

키프 데이비슨, 페드로 코스 / 미국 / 2017

이 영화의 주인공 김용, 오펠리아 달, 폴 파머는 절친한 친구이자 국제 의료활동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영화는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청년들은 '건강의 동반자들(PIH, Partners In Health)'이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지역 보건과의 자원 봉사자들을 연계하여 환자 가까이에서 질병의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적합한 처방과 치료를 가능하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세 청년의 헌신과 우정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힘은 담대한 질문과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 함께 생각해 봅시다

1. 영화에서 청년들은 돈이 없어서 질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가난한 이들이 겪고 있는 구조적 폭력을 직시합니다. 가난 이외에 우리 시대에 만연한 구조적 폭력에는 무엇이 있으며, 또한 그런 폭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누가 있는지 살펴 봅시다.
2. 폴 파머는 “왜 질병은 가난한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답하기 위해 ‘건강의 동반자들’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도 폴 파머처럼 우리 시대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 보고, 질문의 답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해 봅시다.

### 내일

멜라니 로랑, 시릴 디옹 / 프랑스 / 2015

2100년이 오기 전 기후위기로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는 논문을 접하고 충격을 받은 멜라니 로랑과 시릴 디옹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문제를 살펴 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아주 특별한 여정에 나섭니다. 프랑스, 영국, 미국, 인도 등 세계 10개국을 방문하여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농업, 에너지, 경제, 민주주의, 교육’ 5가지 분야의 혁신가들을 만납니다. 이를 통해 지구의 미래를 바꿀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해법을 얻게 됩니다.



### 함께 생각해 봅시다

1. 영화에서는 지구의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도시농업, 풍력과 바이오매스, 지역 화폐, 주민 참여와 시민 교육 등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지금 지구가 처한 가장 중요한 위기는 무엇이고, 이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요?
2. 여러분은 지구의 어떤 내일을 꿈꾸나요? 여러분이 꿈꾸는 지구의 내일은 어떤 모습인지 상상해 보고, 그런 내일을 만들어가기 위한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구의 내일을 만드는 주인공이 되어서, 어떤 방식으로 이 작은 행성을 지킬 수 있을지 써 봅시다.



## 참고하면 좋은 사이트

### ● 건강의 동반자들 [www.pih.org](http://www.pih.org)

아이티, 카자흐스탄, 레소토, 라이베리아, 말라위, 르완다 등지에서 가난으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기구인 '건강의 동반자들'의 활동을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 ● 마인 카폰 연구소 [www.minekafon.org](http://www.minekafon.org)

전 세계에 있는 1억1천만 개의 지뢰를 모두 제거하겠다는 사명으로 활동하는 마수드 하사니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와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디자인이 만나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 ● 보니따 [www.ibonita.org](http://www.ibonita.org)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세계 시민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보니따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계화라는 그물망으로 서로 연결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실제로 체험하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다큐멘터리 영화 <2040> [www.whatsyour2040.com](http://www.whatsyour2040.com)

데이먼 가류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2040>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계의 변화를 살펴 보고, 희망을 만드는 혁신기들을 만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환경, 경제, 기술, 시민사회, 농업, 교육 등의 분야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평화를 위한 일상의 실천

-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조금 더 생겼나요?
- 전 세계의 평화도 나의 일상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나요?
- 전 세계에는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나요?
-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더 좋은 세상이 온다는 것을 믿게 되었나요?
-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나요?

## CHECK LIST .....

- 매일 새로운 질문 한 가지씩 하기
- 짜증 나거나 화가 날 때 음악을 듣거나 글을 쓰며 마음 다스리기
- 아름답고 평화로운 느낌을 주는 사진을 책상이나 자주 쓰느 노트에 붙이기
- 용기와 희망을 주는 영화 한 달에 한 편 보기
- 관심사가 같은 친구들과 함께 동아리 만들기
- 일주일에 한 번 도서관에 가거나 한 달에 한 번 서점에 가서 좋은 책 만나기
-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 하루에 한 가지씩 해보기
-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바꾸기 위한 버킷 리스트 10개 만들고 실천하기
-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축하하고 싶은 '00의 날' 기념일 만들기
- 오늘 하루 내가 노력한 것 스스로 칭찬하고 더 나은 내일 기대하며 잠들기

## 4부 평화와 통일

# 가장 아름다운 나라

통일은 단지 두 나라가 한 나라로 흡수되거나 합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지요. 남한과 북한에 있는 문제점들을 솔직하게 대면하고, 우리가 함께 이를 극복해 나가면서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통일의 경제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통일해도 괜찮은 나라인지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입니다. 평화롭고 정의로운 나라, 모든 일에 공정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나라, 다양성을 추구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나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 문화가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는 염원을 실천할 때입니다.

**가치** 상처의 연대를 넘어 연민 어린 사랑으로

**인물** 다니엘 바렌보임과 에드워드 사이드의 평화 프로젝트

**토론** 정의와 희망으로 가능한 통일

**활동** 평화를 위한 법안 만들기

함께 읽으면 좋은 책 / 함께 보면 좋은 영화 / 참고하면 좋은 사이트 / 평화를 위한 일상의 실천

가치

## 상처의 연대를 넘어 연민 어린 사랑으로

2018년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물길이 열린 해입니다.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으며, 9월 19일에는 평양에서 평화를 향한 공동 선언도 이뤄졌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만남은 서로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감으로 살아온 지난 세월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참 극적이면서도 눈물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북한의 정상회담이 함께 악수하고 남북 경계선을 건너고, 한라산과 백두산의 흙을 모아 대동강과 한강 물로 소나무를 심는 모습은 정말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이후 남북 교류가 이어졌고, 두 정상은 선언을 통해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못 박았지요.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갈라져서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던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 민족이 평화롭고 새로운 미래를 희망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상대를 적으로 여기며 폭력을 행사해온 것을 멈추고, 반갑게 손을 맞잡고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몽클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통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바로 '경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통일하게 되면 다양한 편익이 있을 것이고, 시장이 확대되고,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며,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다시 말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9년 7월, 엘리트 나우앤서베이에서 785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69.7%가 '통일을 원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통일을 원하는 이유를 물으니 1위가 '경제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의 마지막 장면. 장벽을 넘어서는 것은 인류에 대한 사랑이다.

부흥의 계기'(49.7%)였습니다. 그런데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들에게도 그 이유를 물으니 1위가 '경제적 부담이 클 것 같아서'(53.8%)라고 합니다. 통일을 원하든, 그렇지 않든 남한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경제'인 것입니다.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곧이어 통일비용이 얼마며, 분단비용이 얼마인지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로 가득 차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풍경이지 않나요?

북한은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경제적 자료가 풍부하지 않아서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지만, 대체로 현재 남한이 북한보다 최소한 30~40배는 더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최소 30배 이상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남한이, 북한과의 통일 문제에 있어서 제1의 중점 사안으로 '경제'를 꼽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은 오히려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가치와 원칙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정말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은 이에 대해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흔적만 남은 폴란드의 기차역. 이곳에 북한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온 아이들이 도착했다.  
 ©<폴란드로 간 아이들>

한국전쟁이 발발한 때가 1950년 6월 25일이라는 것은 대부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3년 동안 지속되면서 한반도 전역이 얼마나 아수라장이 되었는지 기억하는 사람도, 그 고통에 공감하는 사람도 그만큼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시 한반도 전체는 포화로 뒤덮였으며 남북한 합쳐 500만 명이 넘는 사상자와 1,000만 명이 넘는 이산 가족을 낳았습니다. 민간인들, 특히 아이들이 전쟁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무려 10만 명이 넘는 전쟁고아가 발생했지요. 전쟁의 당사자인 남북한 정부는 모두 아이들을 책임 질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남한의 경우 국내에서 고아를 수용하는 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해외로 아이를 입양시키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한편 북한에서는 국내에서 고아를 모두 수용할 수 없게 되자 주변 사회주의 국가들에 아이들을 위탁 양육·교육합니다. 그렇게 소련과 중국을 비롯하여 동유럽의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에 수만 명에 이르는 북한의 고아들이 보내 집니다. 1951년부터 1959년까지 폴란드에 6천여 명의 고아가 위탁되었는데 이는 동유럽 국가 중에는 가장 많은 고아가 보내진 것입니다.

추상미 감독의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은 바로 그 아이들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영화는 지금은 숲이 되었지만, 이전에는 기차역이었던 폴란드 프와코비체 역의 흔적을 좇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951년, 그 역에 북한이 보낸 1,270명의 전쟁고아가 도착하였고, 아이들 중에 일부는 폴란드의 중심가에 있는 양육 시설로 보내 졌지만, 유독 몸이 약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아이들은 세상과는 단절된 시골 프와코비체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전쟁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공포와 불안을 감추질 못하였고, 밤에 잠을 잘 때도 침대 아래로 들어가 숨어 자곤 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백선(피부질환의 한 종류로 신체의 여러 부위가 균에 감염되어 붓거나 갈라지는 현상)과 말라리아(모기가 옮기는 전염병으로 두통과 발열, 구토가 발생함), 여러 종류의 기생충 감염 등의 증세를 보였습니다. 수용 초기에는 쥐를 잡아먹거나 숲으로 가서 이끼나 고사리를 뜯어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머리에 이가 살고 있어서 치료를 위해 모든 아이의 머리를 박박 밀어야 할 정도였지요.

그런 아이들을 헌신적으로 보살핀 것은 양육원의 폴란드인 교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픈 아이들의 곁을 밤새도록 떠나지 않고 달래었습니다. 아이들을 치료했고, 좋은 음식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지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함께 놀고, 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숲이 울창한 자연 속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이웃의 폴란드 아이들과도 곧잘 어울렸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건강을 회복했고 웃음을 되찾았으며, 노래하고 춤추며 삶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곳의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자기들을 선생님이 아니라 “엄마”, “아빠”로 부르도록 했는데, 그렇게 불린 교사는 정말로 아이들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즐거움의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1958년 이후 북한은 전쟁의 상흔에서 어느 정도 회복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중국과 소련을 비롯하여 동유럽 국가들과의 사회주의 연대가 약해지고 동유럽에 정치적 혼란의 시기가 오게 되면서 더 이상 아이들을 맡겨둘 수 없는 상황이 되지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천리마 운동(1956년부터 전개된 북한의 노동 강화 운동) 등으로 노동력이 필요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 흩어

졌던 고아들을 다시 불러들이게 됩니다. 이는 프와코비체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아이들과 교사들에게는 날벼락과 같은 소식이었고, 말 그대로 눈물바다가 된 이별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북한 고아들은 제발 자신이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며 애원했지만, 어찌할 방도가 없는 폴란드 교사들은 그들과 가슴 아픈 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후 60년이 지난 지금에도 폴란드의 교사들은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며 죄책감을 느낍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큰 사랑을 가능하게 한 것일까요? 감독은 이를 '상처의 연대'로 해석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유대인 강제수용소(나치 독일군이 유대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을 감금하여 강제노동을 시키고 살육하기 위해 설치한 감옥) 등으로 처참한 고통을 겪었던 폴란드인들의 상처와 한국 전쟁으로 힘든 상황을 겪은 고아들의 상처가 포개지며 위대한 사랑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었던 걸까요? 상처에는 분명 연대와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적어도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요. 하지만 한편으로 바로 그 상처는 적대와 이기심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의 분단 상황입니다. 전쟁의 상흔이 치유되지 않은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향해 적대심을 갖고 있고 그 때문에 나라 안에서 파를 나누며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증오와 범죄, 테러 그리고 또 다른 전쟁을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폴란드 양육원의 교사들이 자신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처를 입었음에도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었다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이 60년이 넘는 세월 속에도 아이들을 잊지 못한 것은, 상처받은 아이들을 진심 어린 연민과 사랑으로 보살피는 과정에서 그들 스스로 내면의 상처를 마주하고 치유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은 사랑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사람 그 자신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남한과 북한이 통일 문제를 다룰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지점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랑하는 마음과 서로에 대한 연민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여기에 반하는 잘못된 적대적 행동을 제어할 정치적, 제도적 노력이 뒷받침



북한 아이들을 돌보았던 폴란드 교사들은 평생 그 아이들을 잊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것에 미안해했다. 그들은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했던 것이다. ©<폴란드로 간 아이들>

되어야 합니다. 남한과 북한의 주민들이 마음을 놓고 차츰 서로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서로 어떠한 경우에도 적대적이거나 폭력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약속이 필요합니다. 한반도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같은 노력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미국, 일본과 중국, 러시아가 만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도 무척 중요합니다.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세 조성이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고, 서로 간에 적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결국 모두에게 손해이며 불필요한 희생을 낳을 수 있음을 인지시키는 국제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평화를 지키는 것이 세계 평화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한 안정적인 한반도 내외의 질서 속에서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온 남한과 북한 주민들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며 또 연민 어린 사랑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한 번도 만났 적은 없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북한 아이들을 돌보았던 폴란드 교사들처럼 남한과 북한의 평범한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만날 때 비로소 평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통일의 길을 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정치적인 만남에 집중해왔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1970년대 처음 남북 대화가 시작된 이래로 1990년대에는 평화 통일의 방향을 담은 '남북기본합의서 (1991년 12월 13일 남한과 북한의 고위급회담을 통해 화해와 상호불가침, 교류 협력 등에 관한 방안을 담은 문서)'를 채택했고, 2000년대 이르러 남북정상회담과 다방면의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사이에 계속된 군사적 긴장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새로운 교류와 만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똑바로 보고, 편견과 선입견 없이 동등한 존재로 만나야 합니다.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고 그것과 관련하여 여러분이 제안하고 싶은 제도나 토론 주제를 만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통일할 때 한반도의 생태계 문제에 대해 토론할 주제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 통일 이후 교육 제도에 대한 제안서를 써봐도 좋겠지요?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a pencil icon and horizontal lines.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lines.



## 다니엘 바렌보임과 에드워드 사이드의 평화 프로젝트

21세기는 지난 20세기의 참혹한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난 평화의 세기라고 불리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은 전쟁 중이거나, 전쟁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대립 중인 중동 지역인데요. 이곳은 우리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남한과 북한에 각각 정부가 수립된 해인 1948년에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을 통해 건국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은 한국 전쟁과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국경선에 세운 장벽은 남한과 북한 사이에 놓인 철조망을 연상시키지요.

이렇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정치적으로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던 중에도 평화와 공생을 꿈꾸며, 용기 있는 행보를 이어간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과 실천적 지식인 에드워드 사이드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무척 특별합니다. 다니엘 바렌보임은 유대인이고 에드워드 사이드는 팔레스타인 출신의 아랍인인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오래된 만큼 두 민족 간의 골은 매우 깊어 서로 우정을 나누기 어렵다고 여겨지지만, 이 두 사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계에 질문을 던졌고, 예술을 통해 인간을 이해함으로써 이 분쟁을 끝낼 단서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중동 지역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서동시집 오케스트라”를



에드워드 사이드(왼쪽)와 다니엘 바렌보임(오른쪽)

기획하였습니다. 독일의 작가 괴테가 동양의 문학에 영감을 받아 쓴 『서동시집(West-Eastern Divan)』에서 이름을 따온 이 오케스트라는, 정치적으로 서로를 가로지르는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여는 예술적 시도였습니다. 오케스트라에 참여한 이들 사이에는 처음에는 서로에 대한 적대적 긴장감이 가득했지만, 이내 그들은 음악이라는 예술을 통해서 각자가 갖고 있는 국가적 정체성을 뛰어넘어 서로 하나 되는 경험을 합니다. 이 작업에 동참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공연을 본 수많은 사람이 평화와 공생을 가슴에 품게 됩니다.

이후 이 오케스트라는 ‘평화의 오케스트라’라고 불리며 유럽 전역에서 공연하고, 나아가 팔레스타인 라말라에서도 공연을 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공연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라말라는 팔레스타인의 임시 행정수도입니다. 이스라엘 단원들은 라말라에 가면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랍 단원들은





평화와 화합을 도모하고자 기획된 서동시집 오케스트라. 2013년 잘츠부르크에서 공연하는 모습

다른 사람, 가족, 사회의 시선을 두려워했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언론과 국가에 의해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을 배웠습니다. 아랍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살인, 학살, 폭력을 보아왔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의 테러, 자살 폭탄에 부딪혀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용기를 내어 성공적으로 라말라에서 연주회를 했고, 라말라에 도착한 이스라엘 단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별거 아닌데, 돌아보면 한심할 정도예요. 왜 그렇게들 걱정하고 긴장했는지 한심스러워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자꾸만 걱정되고 무섭지만 용기를 가지고 한 번 두려움을 깨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우리도 북한에 대한 편견과 두려움을 깨고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과 강한 거부감이 지배적이지만, 그들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려는 우리의 작은 노력이 이어진다면 북한과 우리나라의 오해와 증오를 풀고 긴 시간 동안 쌓인 고통을 치유할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는 이렇게 자신을 규정짓는 국가적 정체성의 경계를 넘어 서로가 다르지 않은 보편적인 인간임을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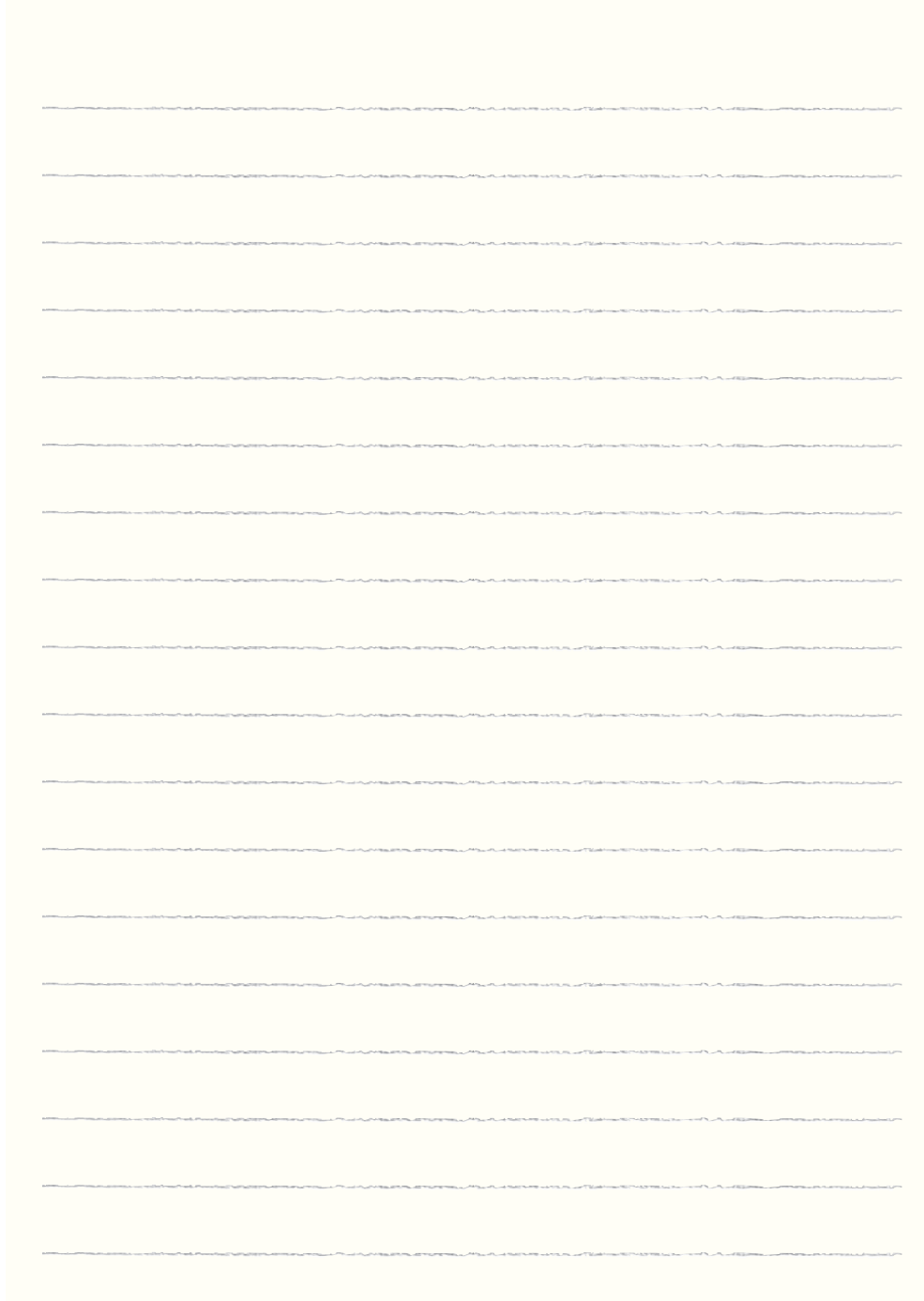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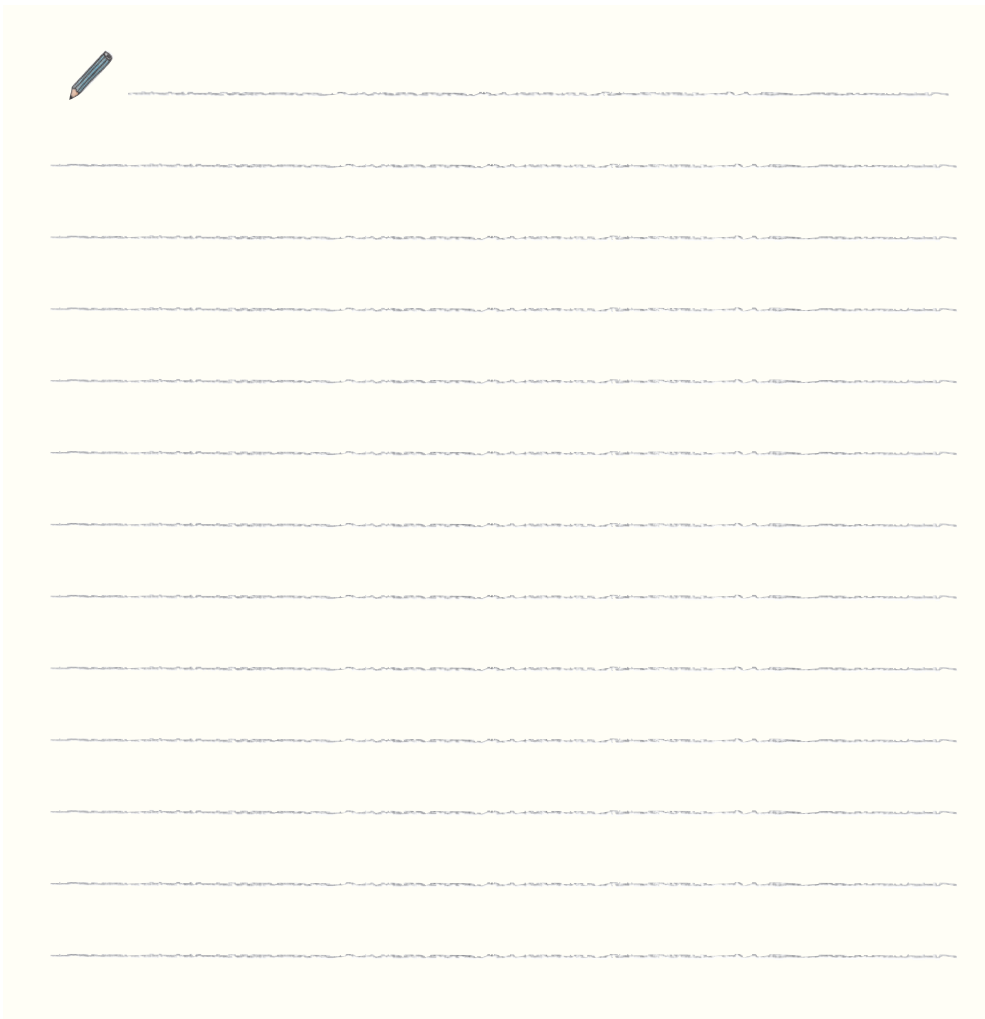
한반도는 왜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이 되었을까요? 광복 이후 북한 땅에는 소련이, 남한 땅에는 미국이 들어와 있었지만, 일정 기간 이후 한반도의 시민들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것이 공동의 목표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당시 한반도에 존재하던 여러 정치 세력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서로의 다름을 포용하고, 함께 한반도의 미래를 상상하고 꿈꾸며 준비했다면 어찌면 우리는 분단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는 그럴 정치적 역량을 갖추지 못했고, 결국엔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립에 대립을 거듭하던 끝에 결국 남과 북에 각각 다른 정권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휴전선이 상징하는 외부로 드러난 분단의 경계를 허무는 일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개개인의 내면에서 경계를 허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면의 경계를 허물지 못한 채, 강제로 외부의 경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면서 발발한 것이 바로 한국전쟁입니다. 전쟁은 내적·외적 상처만 더욱 크게 만들었을 뿐, 결코 이 땅에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해법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통일은 남북한 주민들 개개인의 마음에 평화가 스며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라는 정체성을 넘어서 모두 같은 인간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 땅과 전 세계의 평화와 공생을 위한 마음을 모아보는 기회, 교육, 문화가 필요하지요.

‘서동시집 오케스트라’가 보여준 것처럼, 한반도에 평화의 문화, 예술, 교육이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를 바꿔 갈 수 있다면 이 또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일이자 우리의 통일을 한 발자국 앞당기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다니엘 바렌보임과 에드워드 사이드가 기획한 '서동시집 오케스트라'는 전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두 민족 사이를 다시 평화와 화합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서로 마음을 모아 연주해야 하는 협주였습니다.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갈등은 무엇인가요? 가족 간의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 친구와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 간의 감정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북한과 대립 관계에 놓인 것 역시 우리가 마주한 갈등입니다. 이 크고 작은 갈등들을 해결할 평화적인 기획은 무엇이 있을까요? 직접 기획해보거나 전 세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기획들을 찾아보세요.



## 실천

세계의 뛰어난 리더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향해 국경, 종교, 인종과 관계 없이 “그들이 우리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라도 인간다운 대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전 세계의 대통령을 뽑는다면 어떤 사람을 뽑고 싶나요? 워크북에 소개된 사람들을 참고하여 세계 대통령 후보를 정해 봅시다. 모둠을 만들어 한 명씩 후보를 뽑고, 실제 그 후보가 되었다고 상상하며 세계 대통령 후보 연설문을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서로 연설을 한 이후에 모의 투표도 진행해 봅시다.

### 연설 메시지 1



저의 꿈은 2000년까지 세계의 굶주림을 없애는 것입니다. 저의 꿈은 가난한 이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저의 꿈은 매일 굶주림으로 죽어 가는 4만 명의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곧 우리이고, 우리가 곧 그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미래를 생각하고, 그곳에 빛을 비추려 노력한다면 저의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가

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굶주림을 외면한다면 그 빛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돕고 일한다면 그 빛은 점점 자라고 거침없이 타올라 좀 더 나은 내일을 만들 것입니다.

- 레이첼 코리(Rachel Corrie, 1979~2003)

\*\*레이첼 코리는 팔레스타인에서 평화운동을 하다 23세의 나이로 목숨을 잃은 평화운동가입니다. 이 연설은 10살 때 세계 빈곤에 대한 캠프에서 발표한 연설입니다.

### 연설 메시지 2



평화롭던 금요일 오후, 한 남성이 평화로운 사원에 들이닥쳤고, 50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날은 우리 시대 가장 어두웠던 암흑의 날이 되었습니다. (...) 테러 공격의 중심에 서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뉴질랜드의 무슬림 공동체를 공격했던 사람 말입니다. 그는 뉴질랜드의 법에 따라 최대한의 형량을 받아야 합니다. 그는 테러를 통해

많은 것을 얻고자 했고, 그중 하나가 악명이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저는 그의 이름을 결단코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테러리스트입니다. 그는 범죄자입니다. 그는 극단주의자입니다. 하지만 제가 언급할 때 그는 이름 없는 자입니다. 희생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의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희생자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길 다른 분들께도 간청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의 슬픔을 모두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이 가는 모든 길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Aroha(사랑)과 Manaakitanga(환대)로 여러분을 감싸 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은 무겁지만, 우리의 정신은 강합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다 느끼길 바랍니다. 안전함은 폭력의 공포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뜻하고 이러한 폭력이 만연한 현장을 만드는 인종주의와 혐오의 감정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바꿀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우리입니다. 당신이 우리입니다.

- 저신다 아던(Jacinda Ardern, 1980~)

\*\*2019년 3월 15일 금요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의 사원에서 반이슬람주의 총기 테러 사건이 발생한 이후 뉴질랜드 총리 저신다 아던이 국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입니다.



Blank lined writing area on page 166.

Blank lined writing area on page 167.

## 정의와 희망으로 가능한 통일

바리데기 이야기를 아시나요? 이야기의 주인공 바리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버려진 신세였지만, 비록 공덕 할멈과 할아범의 손에 구해져 아주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산속에서 자라서 그런지,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과 소통하는 특별한 능력을 갖추기도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인 오구대왕이 병에 걸렸고, 자신이 생명수를 구해와야만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신을 버린 아버지이지만 한 나라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기에, 바리는 생명수를 구하는 고난의 길을 선택하게 되지요. 그런데 바리가 산 밖으로 나와 왕궁으로 가는 길에 만난 세상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고, 질병에 고통받고, 가난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바리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생명수를 구해와 아버지를 살리고 나면, 죽은 자들의 곁으로 가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고 씻겨주는 일을 평생 하겠다고 말이지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과 자기 스스로 운명을 찾아 나가려는 자유로운 의지, 사랑과 생명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착한 마음을 가진 바리는 오늘날에도 정말 필요한 존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통과 슬픔을 껴안고 보듬고자 하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바리가 있다면, 어떤 문제에 가장 가슴 아파할까요?

수많은 아픔 중에 분단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분단된 지 70년이 넘는 우리는 분단으로 인한 수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과 이념 전쟁 속에 강제로 분단되고, 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후 전쟁의 위협 속에서 무수한 갈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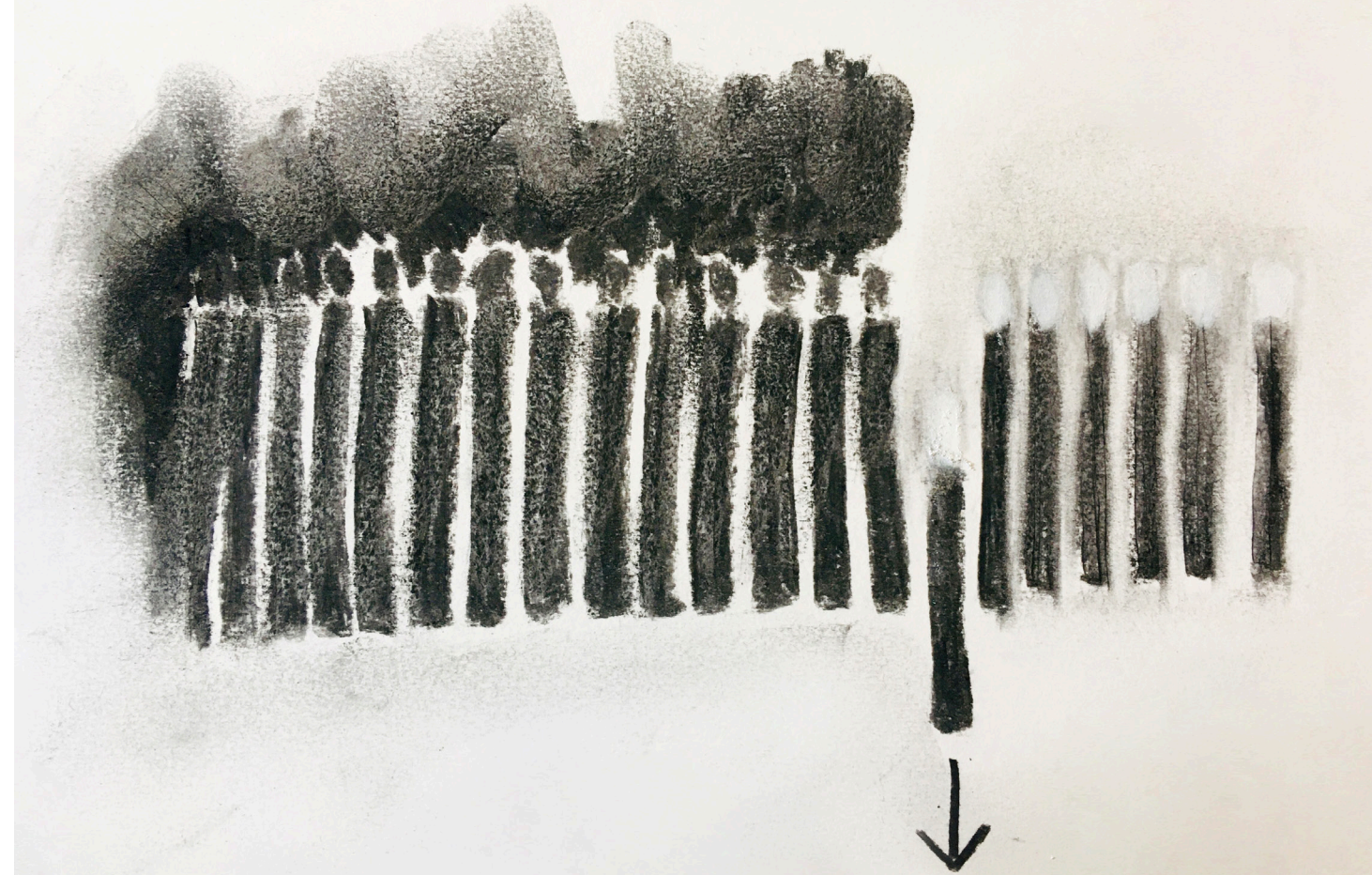


반목을 낳았고, 이로 인한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산가족이 흘린 통곡의 눈물은 강과 바다를 이뤘으며, 이제 그 눈물을 닦을 기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치적으로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적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졌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 있었으므로 집단주의적이고 폐쇄적인 공동체 문화가 정착되었고, 조금이라도 다르면 틀린 것으로 낙인찍는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통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젊은 세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통일 운동은 “통일을 하면 좋다”라는 명제가 아니라 통일 이전에 우리나라가 통일해도 괜찮은 나라 인지를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통일은 남한과 북한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한의 모습은 어떤가요? 무한경쟁의 질서 속에서 나 이외에 다른 타인에게는 관심이 없거나, 나와 다른 이들에 대한 혐오의 발언들도 종종 일어납니다. 경제적·사회적 약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환경 오염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문습니다. 이대로 통일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우리 내부의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통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북한의 주민들은 이러한 남한의 모습을 보면서 통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그렇다면 통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의 통일 담론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빠져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바로 통일에 대한 새로운 비전입니다. 마치 바리공주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수를 구하러 떠났듯, 우리는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통일을 논의해야만 합니다. 이기심을 넘어서 이타심, 평화에 대한 확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굳은 신념 그리고 희망을 바탕으로 말이지요. 전 세계에서 자민족과 자국 중심주의의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미국과 중국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무역을 비롯하여 경제적 차원에서 씨름을 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곳이 한반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지난 일이라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과 이후 이어진 세계적 냉전의 중심에 있었던 곳이 한반도이며, 일본과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 다툼의 중간에 있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여러 열강 사이에 분쟁이나 전쟁이 난다면 한반도가 위협해질 가능성이



한 사람은 공포를 막아낼 수도 있고, 용기의 전달자가 될 수도 있다. ©Miranda-Rottmann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의무는 바로 전쟁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이 한반도를 평화의 시작이 되는 완충지이자 강력한 평화의 메시지를 세계에 전하는 발신지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제2차 세계대전으로 분단된 나라 중 아직도 분단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가 갈등과 상처를 극복하고 평화로 나아가는 길에 앞장선다면 세계인의 가슴 속에 자국 이기주의를 넘어서 보편적인 가치로서 평화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통일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역량을 키우는 일이 교육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교육이며, 교육의 모습을 보면 그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지금 남한의 교육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대학 혹은 취업에 맞춘 입시경쟁, 취업



인간은 함께 살아가야만 한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잘 살기 위함이다. 사진은 생계 유지에 가장 중요한 커피나무 종자를 무료로 나눠주는 르완다 주민들의 모습 ©임종진

경쟁에 뛰어들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끝없는 경쟁 속에서 옆에 있는 친구를 이겨야만 하는 불행한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그런 방향과 다르게 살아가면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신의 고유한 가치와 재능을 발견하고 이를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도록 격려하기보다, 이미 잘 닦여져 있는 정해진 길을 따라 가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면 잘 사는 사회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당연히 무엇이 옳바르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지에 대한 윤리교육과 가치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공동체 차원에서 서로 다른 구성원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나누고 배려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정의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시민교육은 관심 밖으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통일을 이룬 독일은 일찍이 그런 교육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통일교육'이라는 명시적인 이름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지만, 서독 시절부터 정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고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통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교육에서 가장 강조된 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당면하게 되는 갈등과 공격성 등 폭력적인 사건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입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생각이 다른 타인과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을 키우고자 했습니다. 독일의 평화교육이 강조한 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대응만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국제 정세를 고르게 이해하길 원했고,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타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타인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공동체 의식과 연대 의식인데요. 이것이 독일의 통일 역량을 키우는 근본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시민들이 통일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이것이 개인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는 길임을 이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적인 삶의 방식을 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민주 시민적 역량이 곧 평화 역량이고, 이것이 통일로 이어진 것이 독일입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교육의 변화와 희망의 불씨를 살리며 정의로운 질문을 던지는 시민들과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이들은 교육의 본질적인 의미와 역할을 물으며,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문교육, 시민교육, 평화교육, 생태교육, 예술교육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포괄한 인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시기는 아직 자신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를 위해 담대한 꿈을 꾀보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바로 남과 북의 청소년들이 만나 인문과 예술 교육을 바탕으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공동의 미래를 꿈꾸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남한 청소년과 북한 청소년이라는 정체성의 장벽을 뛰어넘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청소년 대 청소년으로 만나서 우리의 미래를 꿈꾸보는 것입니다. 각자가 고유한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 땅과 전 세계의 평화와 공생을 위한 마음을 모아보는 것입니다. 외면의 경계가 공고할지라도 이와 같은 만남과 소통을 통하여 내면의 장벽을 허물어갈 수 있다면

이는 분명히 이 땅의 평화의 주춧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전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청소년들의 정의로운 목소리가 중심이 되어 울려 퍼질 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생각만으로도 가슴 설레는 이 꿈이 현실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평화의 가치와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이 바로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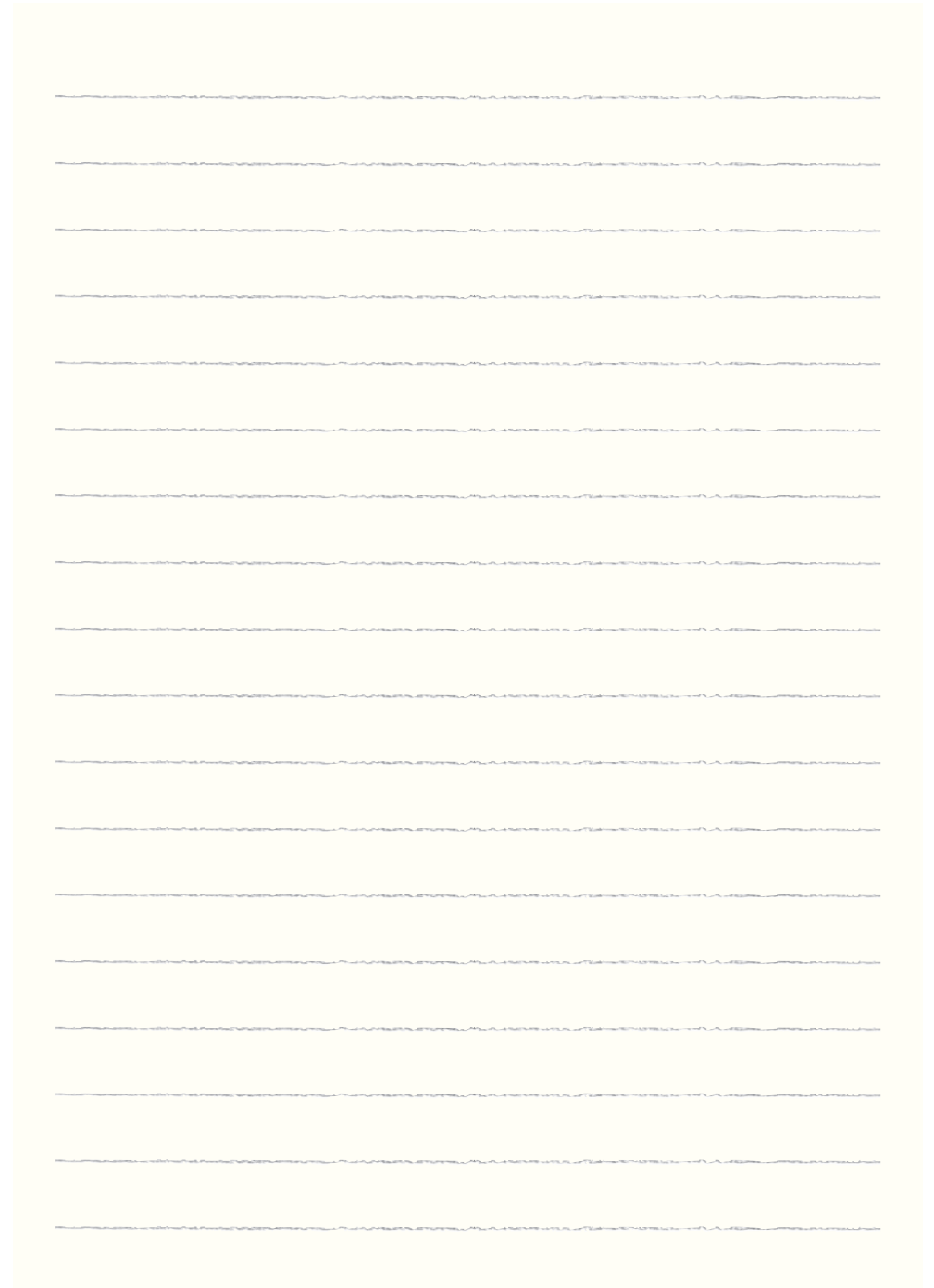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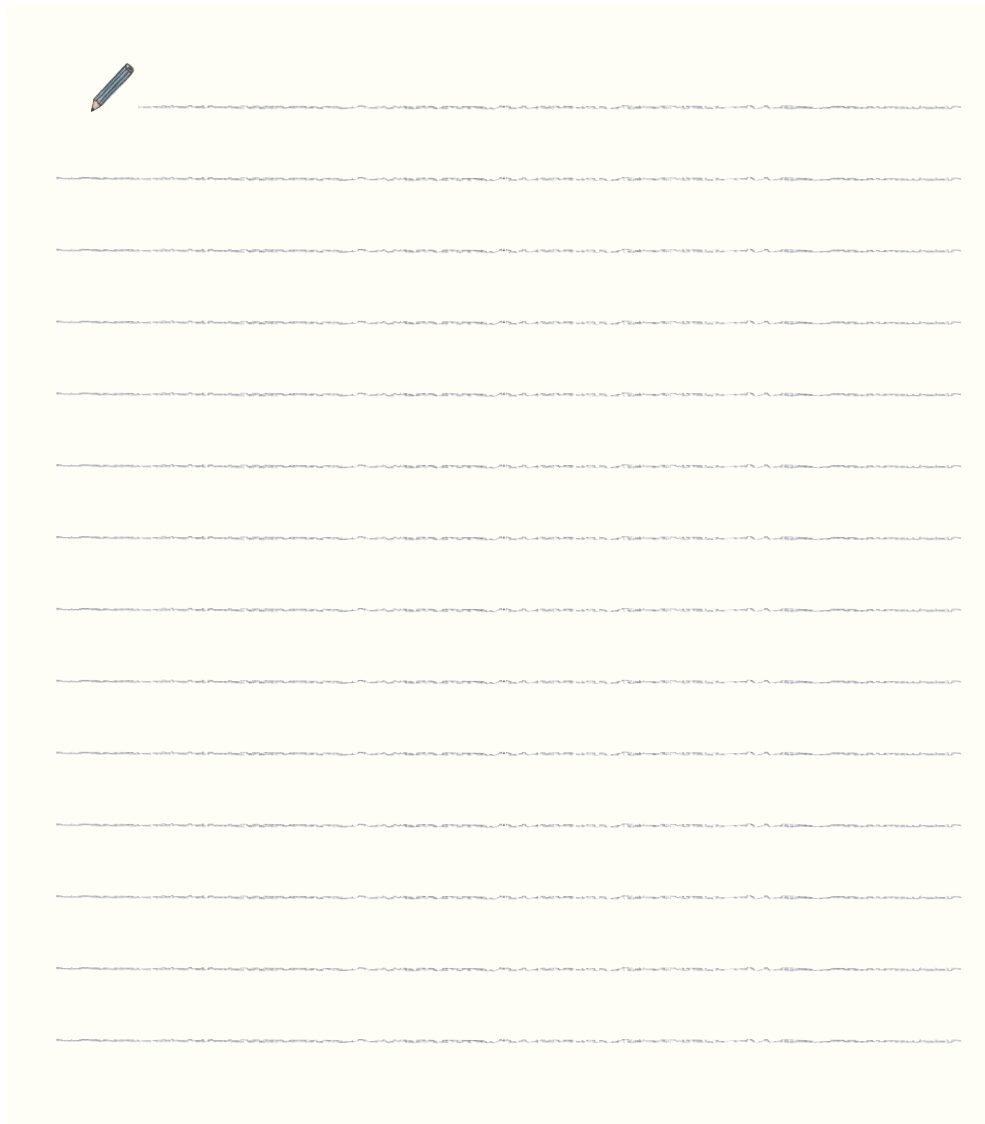


©Barbara Bash



질문

바리는 산 밖으로 나와 굶주림에 허덕이고, 질병에 고통받고, 가난에 절망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구대왕을 살려낸 보상으로 평생 호의호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죽은 자들의 곁으로 가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고 씻겨 주는 일을 평생 하겠다고 말했지요. 오늘날 바리가 있다면, 누구의 고통에 가장 가슴 아파할까요? 누구의 곁으로 가 그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보듬어 줄까요?



## 실천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식에 올려 퍼진 평화의 노래를 기억하시나요? 바로 존 레논의 〈이매진(Imagine)〉이라는 곡입니다. 〈이매진〉은 이념과 종교, 인종을 뛰어넘은 평화를 말하고 있어 2012 런던 올림픽 폐회식, 1996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 개막식 등 평화를 염원하는 자리에서 여러 번 불렸습니다. 존 레논은 그룹 비틀스 활동 당시 폭발적인 인기와 성공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평등한 사회와 전쟁을 일으키는 세계를 비판했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평화로운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바랐던 존 레논의 마음이 담긴 〈이매진〉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공감을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음악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주고, 우리가 사는 세계 너머를 상상하게 해줍니다. 통일 이후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분단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지만, 통일 후 한반도가 어떻게 상상하며 여러분 역시 평화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매진〉 가사 중 다음 부분을 개사해 봅시다.

### 이매진

존 레논

모든 인간이 평화롭게 살아간다고 상상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오늘을 위해 산다고 상상해보세요.

탐욕을 부릴 필요도 없고

굶주릴 필요도 없고, 인류애가 넘쳐나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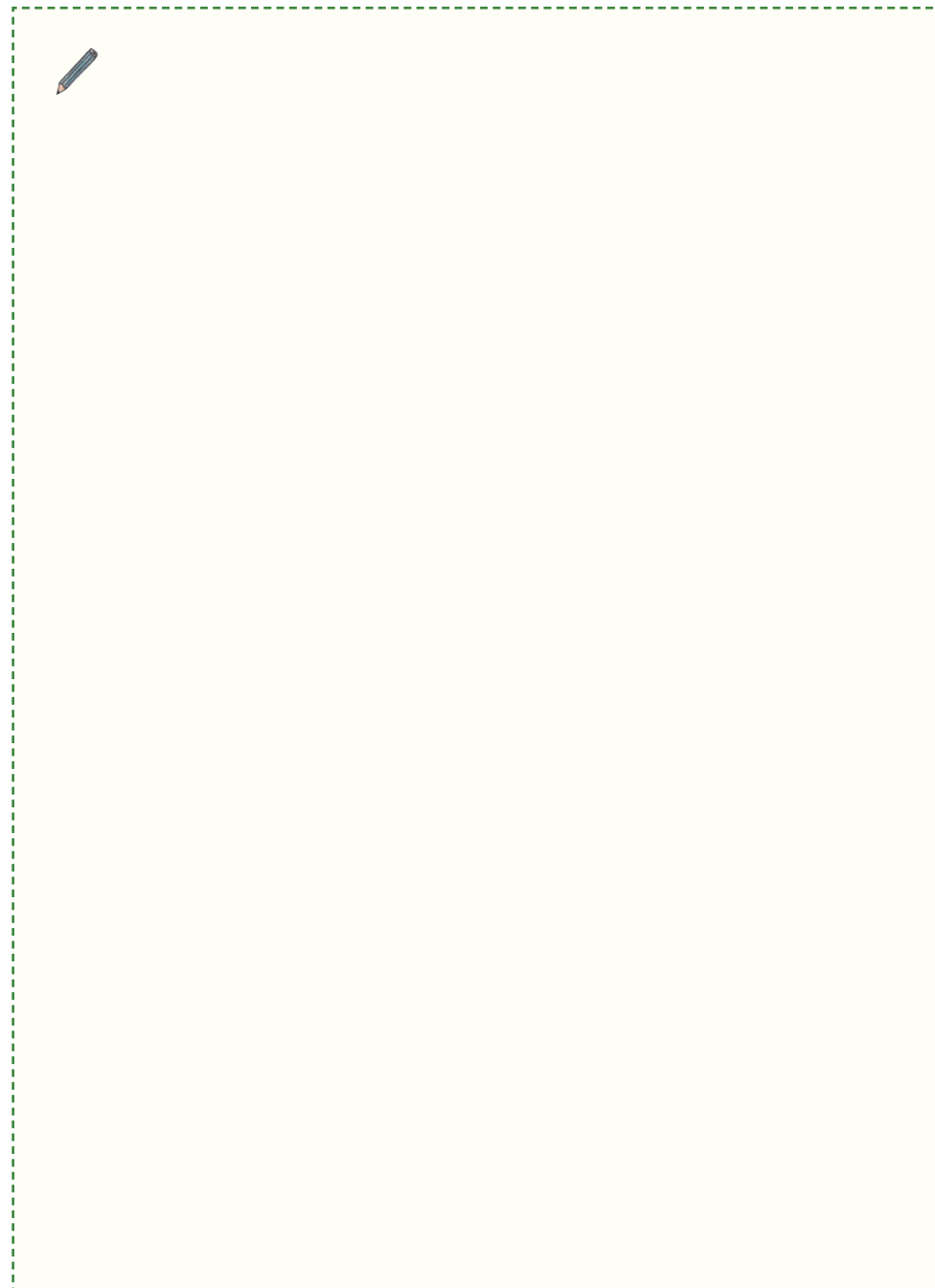
그런 세상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을 상상해봐요.

날 몽상가라고 부를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도 언젠가 그렇게 믿기를,

그리고 이 세계가 하나가 되길 꿈꿔요.





## 평화를 위한 법안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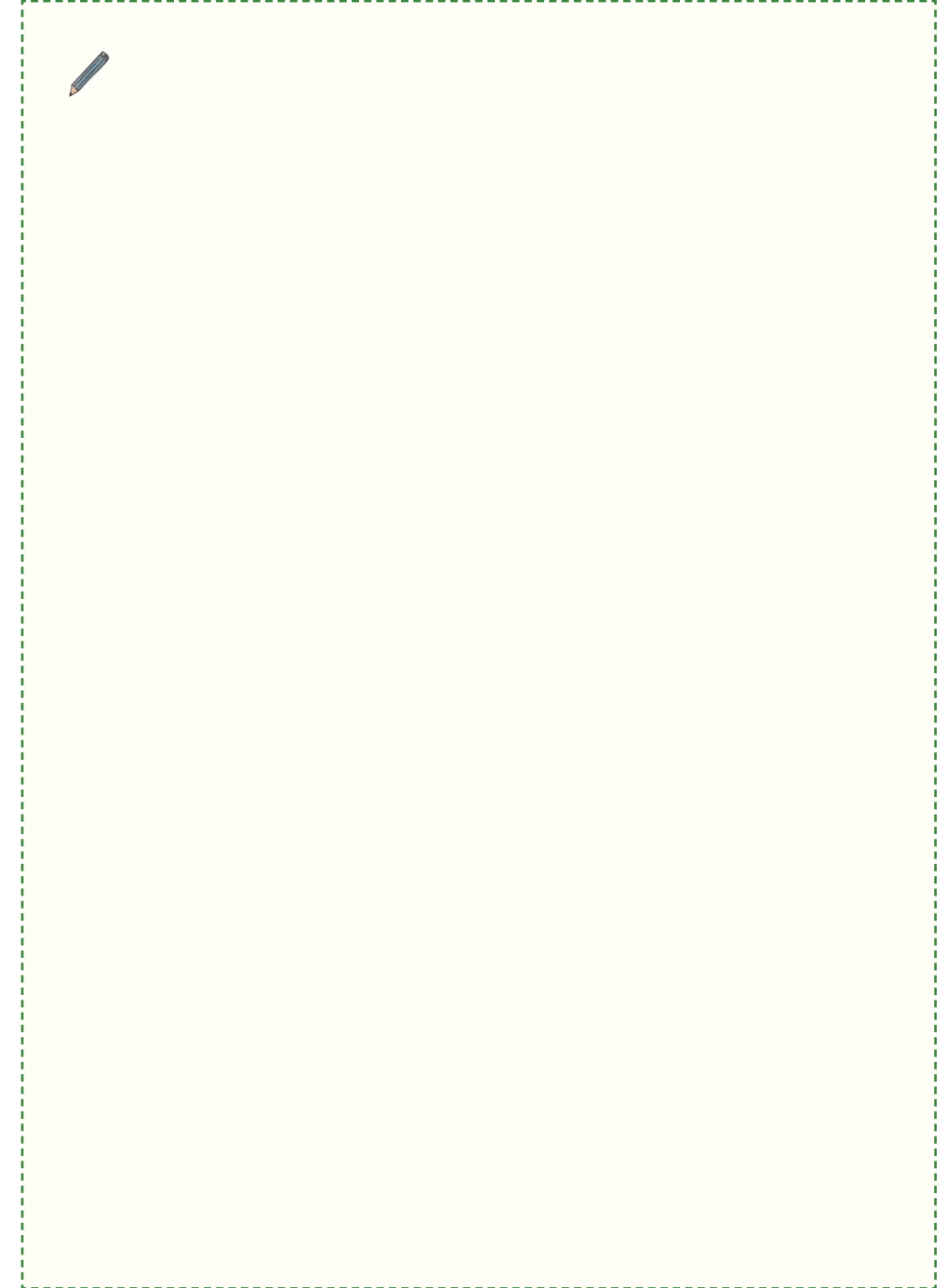
제1조 유엔(UN)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제거 그리고 침략 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고 평화의 파괴로 이를 우려가 있는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해결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또한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실현한다.
2. 사람들의 평등권 및 자결의 원칙의 존중에 기초하여 국가간의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 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유엔 헌장> 중에서

유엔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결과를 낳았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 세계 다양한 분야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만든 기구입니다. 그런 유엔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유엔 헌장>입니다. 여기에는 평화를 향한 인류의 보편적인 꿈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된 한반도를 상상해 봅시다. 꼭 통일이 아니더라도 남한과 북한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행복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상상해 봅시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환경 등 각 분야에 대해서 모듈별로 분과를 나누어서 관련 법안을 만들어 봅시다. 이후 상호 토론을 통해 만들어진 법안을 보완해 봅시다.



##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 희망을 부르는 소녀 바리

김선우 지음 / 단비 / 2014

바리는 비록 버려진 신세였지만, 비록 공덕 할멈과 할아버지의 손에 구해져 아주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냈던 숲속과는 다르게 왕궁으로 들어가는 길에 만난 백성들은 가난, 전쟁, 질병에 고통받아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는 버려진 존재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과 싸우고 이 세계를 구원하겠다는 의지를 선언합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과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려는 자유로운 의지, 사랑과 생명의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희망'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새로운 세대인 우리도 함께 이 희망을 찾아 나서 봅시다.

### 더 읽어 볼 책



『10대와 통하는 평화통일 이야기』 / 정주진 지음 / 철수와영희 / 2019

『바닷가 아이들』 / 권정생 지음 / 창비 / 1988

『세계인권선언』 / 제랄드 게를레 지음 / 목수정 옮김 / 문학동네 / 2018



### 아이들의 평화는 왜 오지 않을까?

강안 지음 / 웃는돌고래 / 2018

『아이들의 평화는 왜 오지 않을까?』는 저자가 '이민자의 나라'라고 불리는 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만난 이민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밀입국 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온 프레드, 팔레스타인 난민으로 난민촌에서 태어난 모하메드, 한국에 와서 엄마를 잃고 할머니와 사는 정민이의 이야기는 전 세계 난민

7천만 명의 시대에 우리의 아픈 얼굴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보이지 않는 장벽에 가로막혀서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이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지 고민해 봅시다.

### 더 읽어 볼 책



『딸에게 들려주는 인종차별 이야기』 / 타하르 벤 젤룬 지음 / 홍세화 옮김 / 롤러코스터 / 2020

『사람은 왜 서로 싸울까?』 / 차병직 지음 / 낮은산 /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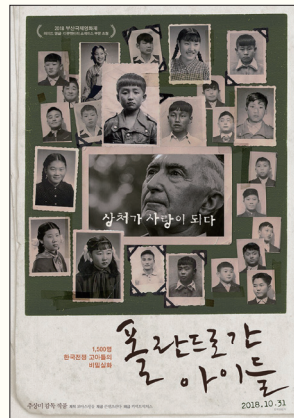
『평행과 역설』 / 에드워드 사이드, 다니엘 바렌보임 지음 / 노승림 옮김 / 마티 / 2011

## 함께 보면 좋은 영화

### 폴란드로 간 아이들

추상미 / 한국 / 2018

한국전쟁 당시 무려 10만 명이 넘는 전쟁고아가 발생했고, 북한에서는 주변 사회주의 국가들에 아이들을 위탁 양육·교육합니다. 폴란드에 무려 6천여 명의 고아가 위탁되었고, 폴란드의 교사들은 전쟁의 아픔으로 몸이 약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북한 아이들을 헌신적으로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필요에 의해 아이들은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것을 막지 못했던 폴란드의 교사들은 6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며 죄책감을 느낍니다. 국가와 민족을 뛰어넘은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연민 어린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함께 생각해 봅시다

1. 제2차 세계대전과 유대인 강제수용소 등으로 처참한 고통을 겪었던 폴란드인들의 상처와 한국 전쟁으로 힘든 상황을 겪은 고아들의 상처가 포개어지며 위대한 사랑이 탄생했다고 영화의 감독은 해석합니다. 자신이 겪은 상처가 타인을 이해하거나 돕는데 도움이 된 경험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또한 남북한이 서로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공동의 상처는 무엇인지도 생각해 봅시다.
2. 남한과 북한이 상처의 연대를 넘어 서로를 향한 진정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 다니엘 바렌보임과 서동시집 오케스트라

파울 슈마츠니 / 독일 / 2005

세계적인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은 실천적 지식인인 에드워드 사이드와 깊은 우정을 나누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중동 지역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서동시집 오케스트라”를 기획하였습니다. 민족 간의 갈등이 심한 이 지역의 아이들에게는 생소한 기획이었지요. 오케스트라에 참여한 이들 사이에 처음에는 서로에 대한 적대적 긴장감이 가득했지만, 음악이라는 예술을 통해서 각자가 갖고 있는 국가적 정체성을 뛰어넘어 서로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합니다. 예술이 과연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진정한 의미의 평화와 공생에 대한 깊은 울림을 안겨줍니다.



### 함께 생각해 봅시다

1. 서동시집 오케스트라는 아름다운 꿈을 품은 이들이 예술을 통해 경계를 넘나들며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오케스트라 안에서 만난 청소년들은 서로를 향한 적대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진정한 우정을 나눕니다. 여러분은 예술 활동을 통하여 마음속에 평화가 싹튼 경험이 있나요?
2.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는 우리 모두가 다르지 않은 보편적인 인간임을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남한과 북한은 휴전선 철조망에 둘로 나누어져 여전히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이런 한반도에서도 우리 모두가 하나의 보편적 인간임을 경험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 참고하면 좋은 사이트

### ● 서동시집 오케스트라 공식 홈페이지 [www.west-eastern-divan.org](http://www.west-eastern-divan.org)

서동시집 오케스트라는 중동 지역의 젊은 음악가들의 공존과 문화 간 교류,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에드워드 사이드와 다니엘 바렌보임이 만든 워크숍에서 출발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20년이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서동시집 오케스트라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으며, 공연을 통해 적대심을 넘어 평화로 흐르는 아름다운 음악과 평화에 대한 감수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 ● 평화 교육 실천 연합 홈페이지 [www.peace-education-in-action.org](http://www.peace-education-in-action.org)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에서 공동으로 협력하여 진행하는 평화 교육 실천 단체의 홈페이지입니다. 평화를 지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뢰와 우정, 사랑이라는 핵심 가치에 기반해서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학부모, 교육자, 학생들을 위해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평화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 ● 통일부 통일교육원 [www.uniedu.go.kr](http://www.uniedu.go.kr)

우리나라 통일교육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인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홈페이지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다양한 책과 영상 자료, 학교 교육에서 이뤄지고 있는 통일교육과 체험활동, 사이버 통일교육, 웹툰 등 많은 자료를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통일교육 주간, 통일리더 캠프, 학교통일 체험교육,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등 통일과 관련해서 학교 단위 혹은 학생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다방면의 활동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풍부한 자료와 활동을 통해 북한을 이해하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 평화를 위한 일상의 실천

- 평화와 통일 문제가 내 삶에도 중요한 문제인 것을 알게 되었나요?
- 남한과 북한의 가슴 아픈 역사에 대해서 더 알아 보고,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게 되었나요?
- 편견과 선입견 없이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나요?
-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평화와 관련한 소식에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나요?

## CHECK LIST .....

- 하루 10분 이상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명상·체조하기
-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 근거를 상상해서 써 보기
- 북한에 있는 나와 동갑인 친구를 만났을 때 물어 보고 싶은 질문 5개 만들기
-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 문제를 다루는 기사 10개 찾아 보기
-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가고 싶은 여행지를 찾고 지도에 표시해 보기
- 평화를 테마로 만들어진 공간(공원, 박물관, 기념관 등) 찾아가 보기
- 평화를 주제로 한 영화를 찾아서 친구와 함께 보고 토론해 보기
- 현재 전쟁 중인 지역에 대해서 조사해 보기(신문 기사, 영화 등)
- 세계인권선언의 전문을 찾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 내어 읽어 보기
- 세계가 평화롭게 공생한다면 어떤 가능성이 펼쳐질지 상상해 보기

# Doing Peace

평화, 나날이 한 걸음씩

- \* 이 책은 평화교육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통일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 이 책은 비매품입니다.
- \* 이 책에 실린 글과 이미지의 무단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 \*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인디고 서원과 통일부 통일교육원 양쪽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 이 책은 통일부 통일교육원 홈페이지([www.uniedu.go.kr](http://www.uniedu.go.kr))에서 다운로드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이 책은 2020년 12월에 발행되었습니다.